

중국을 사랑하는 이들의 동반자

중국을 주께로

96/ 3-4월

특집/ 확산일로, 중국의 종교열기

중국 교회 현주소/ 하나님을 믿지 않는 '목사'
변화하는 중국/ 주 5일 근무제 好不好?
인물연구/ 중화민국 조선선교사 자녀학교 교사 조소임
자료실/ 상하이시 종교 조례법

제 5 회 청년·학생 선교대회
선교한국 '96
“세계 복음화는 우리의 세대에 우리의 손으로!”

연합과 헌신, 그리고 선교 축제의 장으로 알려진 선교한국 대회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수천 명의 청년학생들이 자신의 생애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찾기 위해 전세계에서 모여 들게 됩니다.

다양한 언어, 민속과 문화 속에서 함께 웃으며, 찬양하며, 기도하며,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보게 될 것입니다. 세계적인 강사들의 살아있는 메시지를 듣는 동안 바로 당신과 연관되어있는 하나님 왕국의 비밀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21세기 세계 복음화의 견인차- 한국의 청년 학생들! 세계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제2의 학생자원 선교운동의 핵으로 선교한국 '96은 “세계복음화는 우리 세대에 우리의 손으로!” 이루겠다는 벽찬 감격과 결단의 집회가 될 것입니다.

이 선별된 자리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기 간 1996년 8월 5일(월)- 10일(토)

강 사 Stuart Briscoe, George Verwer, David Bryant, Viv Grigg,
 조종남, 김순곤, 옥한흠, 홍성철, 하용조, 임종표, 한정국,
 송인규, 이신철, 김진경, 김성준, 윤수길, 주누가 등
 국내외 선교지도자 및 선교사 120여 명

장 소 한양대학교 올림픽 체육관, 근린 학사

참가대상 각 교회와 선교단체에서 선발된 6,000명(외국인 및 교포 600
 명, 운영요원 400명, 강사 120명)

참 가 비 예약비 2만 원 입금 후 등록카드와 목회자 추천서를 선교한국
 으로 등록(회원단체는 단체를 통하여 등록)

문 의 Tel. 555-2713

주최: 선교한국 '96 조직위원회

관시(關係)

이동화

중국에서 살아본 사람이라면 ‘관시’가 얼마나 중요한지 잘 알 것이다. 관시가 좋으면 안될 일도 되고 관시가 좋지 않으면 될 일도 안 된다. ‘중국에서는 되는 일도 없고 안 되는 일도 없다’는 말이 바로 이런 연유에서 생긴 말이다. 하다 못해 열차표 하나 사는 일조차 관시를 동원해야 될 때가 있다. 그래서 상사 주재원에서부터 외교관이나 정치인에 이르기까지 보다 영향력있는 사람들과 관계를 맺기 위해 노력하는 것을 본다. 그리고 여기에는 우리 중국 사역자들도 예외가 아니다.

우리는 이같은 노력에 긍정적인 의미가 있음을 인정한다. 그러나 문제는 중국 측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심혈을 기울이면서도 한국 사람들간의 관계 계발에는 너무 등한히 한다는 사실이다. 심지어 한국 사람을 가까이 하면 될 일도 안 된다고 말하는 이까지 있다. 그 결과 한국 사람들 사이에 상호 비방, 과다 경쟁, 흑색 선전 등의 불미스러운 일들이 발생하는 것을 보는데, 이것 또한 중국 사역자들의 경우와 크게 다를 바가 없다.

그렇다면 그 원인은 어디에 있을까? 그것은 무엇보다 동료 의식, 곧 동역자 의식의 부재와 교제의 부족에서 비롯되었다고 생각한다. 우리가 잘 아는대로 ‘펠로우십(Fellowship)’이란 영어 단어는 흔히 ‘교제’의 뜻으로 쓰이고 있지만, 본래 의미는 ‘동역자 의식’이라는 뜻이다. 다시 말해서 동역자 의식은 예수께서 본을 보여주신대로 서로의 발을 씻어주는 섬김의 교제에서 싹트며, 또한 그러한 교제는 우리 모두가 주님의 지상명령 수행을 위해 부름받은 동역자라는 자각에서 비롯되는 것이다.

물론 중국은 우리가 자유로이 교제할 수 있는 곳이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창의적인 방법으로 교제의 물꼬를 터야 하는 것은 주님께서 그것을 명령하셨기 때문이다.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는 것, 이것보다 더 강력한 그리스도인됨의 증거는 없을 것이며, 그럴 때 중국 교회와 중국인들이 우리가 그리스도의 참 제자인 것을 알게 될 것이다.

특집 /
혁신일로, 중국의 종교열기

- 10 중국 대륙을 휩쓰는 기독교 열풍
- 14 천주교회의 실상 토니 램버트
- 20 소수민족의 다수종교, 라마교와 회교
김한성
- 27 미신 열풍 강성광
- 32 변화 속에 일고 있는 종교의 새물결
평야오(彭耀)



선교 나침반

- 4 인터뷰 중국 교회, 한국 교회와 바른 협력을 바랍니다. 권수영
- 38 중국 교회 체험기 다시 찾은 중국, 다시 만난 양떼들 메이쯩즈(梅增知)
- 42 미전도종족 중국 미전도종족 입양 및 협력 사역 위취엔루이(余雋瑞)
- 47 중국 교회 현주소
하나님을 믿지 않는 '목사'

중국은 지금

- 54 변화하는 중국 주 5일 근무제好不好?
- 101 중국동향 초점 웨이징성이 체포된 내막



현신의 삶

- 65 대륙성도의 간증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 시슈에(茜雪)
- 80 현지에서 온 소식
선교 백년의 신앙을 이어온 묘족 주애화

인물 역사

- 68 중국선교의 발자취
나의 위치 방지일
- 70 중국선교사의 간증(11)
참으로 너를 도우리라
- 74 인물연구(5)
중화민국 조선선교사 자녀학교 교사
조소임 김교철

중국을 알자

- 58 중국의 省(4) **장강 유역의 경제개발 중심지**
호북성 · 호남성 · 강서성
- 82 중국문화 **중국 여성들에게 사랑받는 옷**
치파오(旗袍) 장충팡(張瓊方)
- 86 중국영화 감상
애정만세(愛情萬歲) 조일래



세계선교

- 92 세계선교 동향
TARGET 4000 복음음반선교회



자료실

- 104 **상하이시 종교 조례법**

- 1 발행인 칼럼
관시(關係) 이동하
- 50 중국 교회 소식
- 53 시사만평
- 85 목상의 샘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항상 있도록
- 88 선교중국어 你讀過幾遍聖經?
(성경을 몇 번 읽어 보셨습니까) 차이나
- 89 중국어로 찬양을
與神和好 **(예수 안에서)**
- 90 선교 다이제스트
최찬영 이야기
- 91 신간도서
『중국인의 가치관』 외 2권
- 97 중국은 지금
보도물에 나타난 최근 중국동향
- 102 선교단신

별책부록

‘중국을 주제로’ 기도 캘린더



표지설명

현재 중국은 종교의 백화제방이라 할만큼 각양각색의 종교들이 확산되고 있다. 중국 남부 푸젠(福建)성의 어부들이 자신이 좋아하는 물고기 모양의 제등을 만들어 풍어를 기원하는 행사를 벌이고 있다. 푸젠성은 해안을 따라 발전한 상업, 어업항이기 때문에 현세에서의 복을 기원하는 마음이 종교적 열심으로 표현된다. 그래서 이곳을 ‘중국 종교의 본산지’라 부르기도 한다.

이번 한국 방문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한국 교회가 중국 교회에 대해 관심이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최근 몇 년 전부터 한국 교회가 중국 교회를 향한 선교투자를 많이 하고 있는데 안타깝게도 그 효과는 그리 크지 않습니다. 저는 한국 교회에 중국 교회의 실상을 알려 양국 교회의 올바른 협력을 모색하고자 방한하였습니다.

한국 교회의 첫 인상은 어떠셨습니까?

제가 보기에 한국 교회가 한국 사회에 끼친 공헌은 무척 큼니다. 그래서 기독교가 사회발전 전에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 와서 보니 한국의 발전이 무척 놀라운데 이것은 하루 아침에 이룩된 것이 아니라, 많은 시련과 고난을 거치면서 가능하게 된 것이라 생각합니다. 중국 교회도 한국 교회처럼 중국 사회와 민족을 위해 많은 공헌을 해야 한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현재 중국에서 맡고 계신 사역은 어떤 것입니까?

베이징기독교협회 부주석과 승문문교회 원로 목사를 맡고 있는데, 저의 주요 역할은 중국 교회와 해외 교회와의 효과적인 연결을 도모하여 중국 교회 발전에 있어 이상적인 목표에 다다르게 하는 것입니다. 이 외에도 목사로서 베이징 각 교회를 순회하며 설교하고, 대부분 승문문교회에서 전화나 가정방문을 통해 신

김학경 목사 약력

1921년 8월 13일 북경의 3대째 감리교 집안에서 출생
1948년~1952년 화북(華北)감리공회 북경신학원 졸업
1953년~1956년 연경협화신학원연구과 수료
1956년~ 현재 북경교회 목사 임직
1986년 조선어 예배 창립
1989년~ 1993년 북경기독교협회 총간사
1994년~ 현재 북경기독교협회 부주석
1990년~ 현재 중국기독교삼자애국운동 위원회 상무위원 재직 중

도들을 심방하고 신앙교육을 하는 등 목양사역에 주안점을 두고 있습니다.

목사님께서 최초로 공식 교회 내에 조선족 예배를 설립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배경을 설명해주세요.

해방(1949년 공산화) 전에 베이징에서 조선족 예배가 드려지고 있었는데 해방 후 중단되었고, 조선족 자치구 지역의 교회 또한 북한 정부에 의해 몰수되었습니다. 이후 조선족인 장 목사는 자기 가정에서 예배를 인도하였는데, 1958년에 그가 한국으로 가면서 예배는 중단되었습니다. 그후 80년대까지 한번도 조선족 예배는 드려지지 않았습니다.

1986년에 저는 라오닝(遼寧)성에서 온 한 경건한 조선족이 가정에서 이웃 몇 명과 같이 예배를 드리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저는 그가 정집회가 정부에 의해 들켜 베이징에서 쫓겨나지 않을까 걱정되어 그들에게 권유하여 승문문교회 내에서 예배를 드리라고 했습니다.

1년 후 제가 백두산에서 기도를 드릴 때 주님께서 음성을 들려주시길, 조선족 예배를 설립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제가 조선어를 할 줄 모른다는 이유로 주님의 명령을 거부하였습니다. 그러나 주께서는 저에게 억지로라도 이 임무를 맡으라고 명하셨던 것입니다.

얼마 후 조선족 자치구에서 잠시 생활한 적이 있었는데, 언어소통의 불편함, 음식의 어려움 등을 겪으면서 진정으로 소수민족의 삶을 체험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베이징에 돌아온 후 조선족 예배 설립에 관해 더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제가 조선어를 못하므로 마침 라오닝성에서 온 형제, 자매들을 교육하여 신학을 가르치고 함께 예배를 드리면서 조금씩 이 사역에 협력하였습니다.

2년 후 한 형제가 세례를 받고 다시 5년을 공부하여 지금 승문문교회의 조선족 예배를 책임지게 되었습니다. 처음에 10명 정도 모이던 것이 지금은 500~600명이 모이는 예배로 발전하였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중

국에서 최초로 조선족 예배를 세우게 된 것입니다. 지금 저의 가장 큰 희망은 장차 조선족 단독의 교회를 세워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한족 교회가 조선족 교회에 대해 관심이 부족했던 것에 대해서 정말 송구스럽고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중국 성도들의 영성이 어떨지 궁금합니다. 한국 교인들의 신앙 스타일과는 다른 면이 많을 것 같습니다. 교회에서 교인들에게 가장 강조하는 신앙 태도는 무엇입니까?

중국 교회의 기초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정통 교회의 기초로서 서방에서 전해온 기독교이고, 다른 하나는 중국의 토착적인 복음파(복음주의)입니다. 기독교대학생연합회, 왕밍따오(王明道)의 집회소 등이 그것입니다. 이 두 종류의 중국 교회는 문화대혁명이라는 십여 년 간의 박해를 거쳐 발전하기 시작하였고, 지금 모든 중국의 기독교는 복음파라 할 수 있습니다.

중국의 기독교인들은 수많은 고난을 겪으면서 '여호와와 나의 목자시내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라는 시편 23편의 말씀을 익히 잘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최악의 고통 속에서 이 말씀을 통해서 위안과 격려, 보호를 받고 자신의 신앙으로 승리했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비록 자기가 가지고 있던 모든 것들이 사라졌으나 하나님은 여전히 그들을 보호하고 계시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중국 교회에서는 누가 설교를 하더라도 설교 안에 한 마디의 성경말씀만 있으면 성도들이 모두 은혜를 받고 '할렐루야'를 외치는 것입니다. 신도들은 직접 하나님을 체험하기를 소망하며, 하나님이 언제나 자신과 함께 하심을 확신합니다.

현재 중국에서 일고 있는 기독교 열기는 해외 기독교인들의 주된 관심사입니다. 중국 교회는 현재 어떤 상황에 처해 있습니까?

중국이 지금 '기독교열기' 속에 있다고 하는 것은 지나친 비약이라고 봅니다. 열기가 아니라

비로소 시작입니다. 중국에는 아직도 안 믿는 사람이 너무나 많습니다. 하지만 중국 교회가 지금 부흥, 발전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들에 3개 꼴로 교회가 세워지고, 베이징만 해도 1년에 세례받는 신도의 수가 1천 명이 넘습니다.

중국 사회에는 소위 '문화 기독교인'이라고 불리우는 많은 지식인들이 있습니다. 이들의 성경연구는 매우 광범위하고, 출판한 책도 우리가 출판한 것보다 훨씬 많습니다. 이렇게 교회에 참석하지 않는 문화 기독교인을 포함하면 중국의 기독교 인구는 더 많습니다.

그리고 중국에는 지금 '성경열(聖經熱)'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교회에서 발간하는 성경은 한 권당 10원도 안되는 데 비해, 일반 사회 종교기관에서 편찬하는 성경은 60원 내지 80원이나 하는데도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구해 읽으려고 난리입니다. 이러한 현상은 가히 '성경열'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정부에 등록하지 않은 교회를 소위 지하교회 또는 가정교회라고 하는데 이들에 대한 목사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해외에서 잘 알지 못하고 '지하교회'라는 말을 쓰고 있는데 사실 집회란 군중성을 띤 활동이어서 정확한 날짜, 시간에 예배드리게 되므로 드러나지 않을 수가 없으니 '지하교회'란 말은 맞지 않습니다. 가정교회도 두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삼자교회와 왕래가 있는 교회로서, 삼자 목사들의 세례와 성찬을 받아들이고 신도 중에는 주일에 삼자교회 예배에 참석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평소에는 가정예배로 모이는데 대부분 노인들이 참석합니다.

다른 하나는 삼자교회와 관계가기를 원치 않는 독립적인 집회입니다. 그러나 이들도 또한 삼자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삼자 교회는 중국인이 스스로 자기의 교회를 이끌어 가는 것을 가리키기 때문입니다.

정부의 입장에서 불법 교회라 말할 수 있는, 해외 교회와 연결되는 소수의 가정교회가 있는데, 우리는 이러한 교회들이 해외 교회와의

관계를 명확하게 하기를 바랍니다. 또한 이런 가정교회들은 적극적인 역할을 발휘할 수 없다는 사실을 해외 교회가 분명하게 이해했으면 합니다.

현재 중국 교회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 일부 해외 교회나 선교단체들이 성경과 기독교 서적을 밀반입하고 지도자 훈련 등을 하고 있는 것에 대해 목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중국 사회는 특수한 사회입니다. 그러므로 해외 교회의 관심과 선교사들의 방법은 현재 중국에서는 적합하지 않습니다. 중국 교회는 스스로의 성경 인쇄소를 필요로 합니다. 지금까지 인쇄된 성경이 이미 1천만 권을 넘어섰고, 매년 2백만 권의 성경을 출판하고 있습니다. 중국 교회가 필요로 하는 성경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스스로 성경을 인쇄하여 판매하는 것이 해외에서 들여오는 것보다 더 수월합니다.

해외에서 성경을 밀반입하는 것은 교회 입장에서는 별 문제가 되지 않지만, 해외 교회의 국내 선교활동을 금하고 있는 중국 정부의 입장에서 볼 때는 불법입니다. 지금 해외 교회들이 여러 방법으로 몰래 선교활동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별로 큰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습니다. 중국 정부는 이 일을 매우 중시하여 '해외종교 침투'라고까지 말합니다.

한국 교회의 효과적인 중국선교는 어떤 방법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십니까?

우리 중국 교회는 과거 제국주의 선교활동의 역사를 바꾸기 위해 자치, 자양, 자전이라는 삼자원칙을 고수하는데, 그 목적은 중국인 스스로 중국 교회를 이끌어가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중국 교회의 발전에 관심이 있고 중국 자체에 어떤 필요가 있는지 이해하는 해외 교회들이 중국 교회를 통한다면 정부로부터 쌍방의 합의와 동의를 통한 것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해외 교회가 방법을 바꾸었으면 합니다. 지금 가장 시급한 과제는 해외 교회



가 중국 교회와 함께,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중국에서의 선교사역의 목적을 달성할 것인가 연구하고 토론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중국 정부는 교회가 사회에서 자신의 역할을 확실히 해내길 요구합니다. 해외 교회도 중국 교회와의 협력을 통해 어떻게 하면 중국 사회에 공헌할 것인가를 연구하여 자연스럽게 복음전파의 기초가 형성되도록 도와주었으면 합니다. 예를 들면 기독교 내엔 오래 전부터 의료시설, 학교, 사회교육 등 사회봉사의 훌륭한 전통이 있었습니다. 만약 교회가 이런 일들을 해낸다면 당연히 기독교가 사회에 대한 공헌을 드러낼 수 있게 될 것이고 복음전파의 기회와 조건이 마련되어질 것입니다.

중국 정부는 해외 교회가 사회에 공헌할 수 있는 시설물을 짓는 것에 역시 동의합니다. 교육사업이나 경제무역 교류에 도움이 될만한 것도 권장합니다. 제가 보니 한국의 여러 대기업의 사장 등이 교회의 장로나 집사더군요. 만약 그들이 베이징에 상기한 시설물들을 세운

다면 믿지 않는 사람들이 세운 것과는 다를 것입니다. 이것도 하나의 간증이 될 수 있겠죠. “다른 사람이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는 말씀, 이것이 나의 경험으로 볼 때 가장 좋은 전도방법입니다. ‘무조건 예수 믿으면 좋다’라는 식의 전도는 중국에서 거절받기 쉽습니다. 무신론자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한국 교회와 성도들에게 바라고 싶은 점을 말씀해주시요.

한국 교회와 성도님들이 끊임없이 중국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주시기 바랍니다. 한국 교회의 기도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것이고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만하기 때문입니다. 한국 사회 발전과 국가의 강성, 민족의식의 고양 모두 기독교 발전과 떼어서 생각할 수 없는 것이라 여겨집니다.

한국 교회와 성도들의 중국을 사랑하는 마음과 중국선교의 뜨거운 열정을 저도 아주 잘 알고 있고 이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더욱 바라는 한국 교계의 지도자와 평신도들이 함께, 효과적으로 중국선교에 임할 수 있는 방법과 전략을 연구해 나갔으면 합니다. 또 중국정부로 하여금 선교 활동에 대해 동의할 뿐 아니라 적극적으로 지지하도록 하여 중국에 복음이 전파될 수 있는 가장 좋은 환경을 만들어 가야겠습니다. 주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양국 교회간의 협력과 발전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합니다.

취재/정리/ 권수영 본지 편집기자

중국 베이징 송문문교회



교회 배경 및 역사

1938년도 미국 감리교회 할라(Hala) 목사에 의해 설립되었고, 1945년까지는 모든 교회 재정, 운영, 집행을 미국 감리교 총본부 방침에 맡겨서 교세를 확장하여 오다가 1945년 이후부터는 중국인 중심의 운영으로 바뀌었다.

킨쉬에칭 목사(현재 원로 목사)가 운영하여 오던 중 1966년부터 1979년까지 문화대혁명으로 교회가 폐쇄되었다. 1972년부터 중국과 미국과의 국교가 수립되면서, 중국 정부에서 칸 목사에게 외국인 예배를 송문문교회에서 보라는 지시에 따라, 그때 주중 미국 대사로 있었던 부시(Bush) 대사 내외와 함께 외국인들이 예배를 드려왔다. 마침내 1979년부터 중국인 예배가 허락되었다.

1986년 칸 목사가 기도중 조선족 교회를 설립하라는 계시를 받고 처음으로 조선족 예배를 별도로 드릴 수 있게 주선하여 지금까지 시행해오고 있다.

교회 조직

중국 정부의 방침에 의해 교회 내부조직은 확정할 수 없고, 다만 교회 운영상 업무분담이 있을 뿐이다. 1995년부터 교회 조직을 하지는 여론이 있어 현재 연구 중에 있다(미국형, 한국형, 이스라엘형). 송문문교회 목사는 6명이며, 베이징에서 정교회(正敎會)로 허가된 교회는 송문문교회 하나 뿐이다. 그의 8개 교회 전부 분교회(分敎會) 형태로 존재한다.

교인수와 현재 교회상황

본 교회 교인 수는 약 4천~4천 5백명 정도이고 조선족 교인은 약 7백~8백명(별도예배) 정도이다. 비공개 교인은 약 3백~4백명 정도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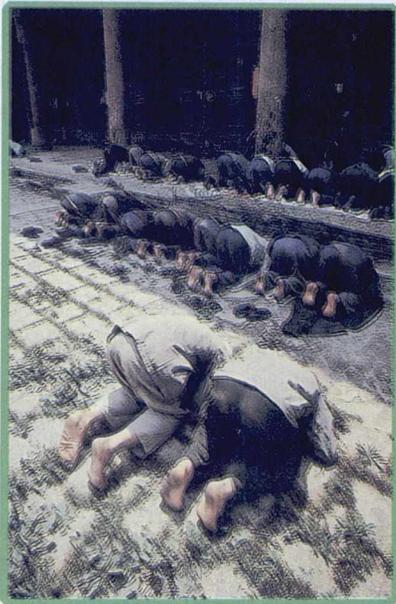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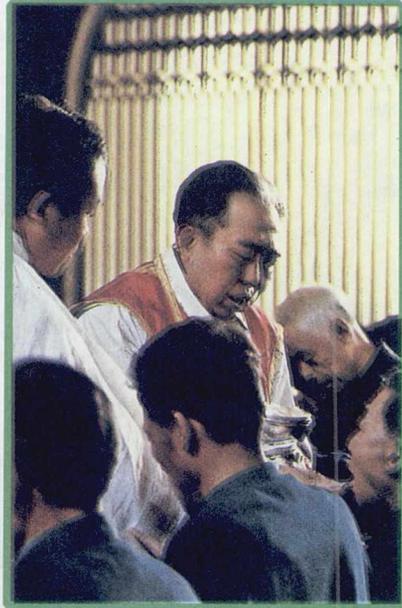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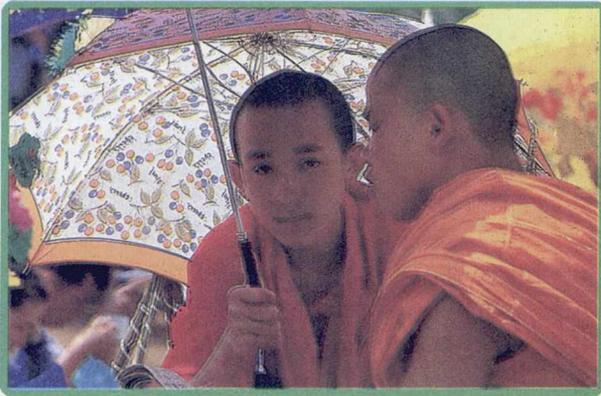
교회는 고대 건물이며, 약 천 명 정도만 직접 예배 참석이 가능하고, 그의 교인은 지하실, 옥외, 별실에서 VTR 화면을 통해 예배를 드린다. 예배 형식은 한국 교회와 동일하나 헌금 순서가 없고, 헌금을 원하는 사람은 입구 헌금함에 자유롭게 헌금한다. 교회의 예산(교역자 봉급 및 기타)은 정부로부터 지급받고 있다. 각종 봉사 기구나 부녀회(여전도회 성격)는 각자 봉사헌금을 모금하여 봉사활동을 하고 있다. 교인의 성장속도는 매우 빠른 추세이다.

-세계선교문화원 <어둠속의 불꽃> 제공-



특집

확산일로, 중국의 종교열기



개혁개방의 물결을 탄 중국은 지금 가시적이든 비가시적이든
 간에 사회의 각 분야가 큰 변화의 소용돌이 속에 놓여있다.
 그 큰 변화 중의 하나가 종교이다.
 중국 정부의 종교에 대한 기본입장은 아직도 확고부동하다.
 궁극적으로 사라지든가 제거해버려야 할 대상으로서,
 '4개 현대화'를 위해 아직 이용할 만한 가치가 있는 그 무엇이다.
 그러나 중국 정부의 의도야 어찌되었든 종교는 중국 사회의
 변화와 맞물려, 중국인들의 심령에 급속히 확산되고 있는 추세이다.

중국 대륙을 휩쓰는 기독교 열풍

공산

화 이후 중국 정부는 기독교를 제국주의의 종교이자 미신으로 간주해왔다. 공안당국이 등록되지 않은 교회를 적발, 신도들과 성직자들을 투옥하거나 외국인 선교사들을 추방한다는 소식이 지금도 심심치 않게 들리고 있다.

광저우(廣州)에 있는 유명한 따마잔(大馬站) 교회는 비록 등록하지 않은 불법 가정교회이긴 하지만 늘 신도들로 앗을 틈이 없다. 2층 본당은 예배 1시간 전부터 신도들로 메워지는데, 예배 시간에 늦은 신도들은 아래층을 짝 매운 채 비디오를 통해 설교를 듣는다.

“공산치하에서 다시 설교하게 되리라곤 상상도 못했다.”

따마잔 교회의 담임 목사이며 강제노동 수용소 출신인 린시엔까오(林獻羔) 목사의 말이다. 1982년 몇십 명에 불과했던 이 교회의 신도 수도 지금은 1천 5백 명이 넘는다.

그의 신도들이 주로 젊은이들이라는 사실은 현재 중국을 휩쓸고 있는 기독교 열기의 일면을 보여준다. 이 열기는 거대한 정신적 세력으로 변해 공산주의에 대한 환멸, 그리고 최근에 나타나는 배금주의로 인한 도덕적 공백을 메워주고 있다. 150년에 걸친 서양선교사들의 기독교 선교가 모택동의 인민해방으

로 끝장났던 1949년 당시 중국의 기독교도는 4백만 명에 불과했다. 그러나 오늘날엔 그 숫자가 5천만~7천만으로 추산된다. 그들 중 다수는 덩샤오핑의 개혁개방 정책과 함께 어느 정도의 종교의 자유가 허용되기 시작한 80년대에 기독교인이 되었다. 7년 전의 천안문 사태 이후 종교활동에 대한 탄압이 더 강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기독교인의 수는 계속 증가하고 있다.

탄압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기독교의 발전에 대해 중국 당국이 가장 우려하는 것은 지하교회의 수백 개 이단교파들이다. 이들 교파의 대부분은 문제가 없지만 ‘예수가정’(耶穌家庭) 등의 집단은 당국의 골칫거리이다.

이들은 특히 8억 빈농들의 든든한 지지를 받고 있다. 농촌지역의 불안이 가중되고 있는 가운데 중국 정부는 원리주의 광신도들에 의해 소요사태가 일어나지 않을까 두려워하고 있다. 당국은 기회가 있을 때마다 문제가 되는 교파들을 단속한다. 예로부터 산적들이 자주 출몰하는 지역으로 알려진 산둥(山東)성의 시골지역에서 활동해오던 예수가정은 1982년 당국의 단속으로 37명의 신도가 2~



중국에서 기독교는 개방으로 인한 배금주의, 도덕성 상실에 따른 정신적 공허감을 채워주는 종교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광저우 따마잔교회에 모인 젊은이들.

12년형을 받기도 했다. 1851년~1864년에 일어나 14년 간 맹위를 떨치면서 2천만 명의 목숨을 앗아간 대규모 농민반란 '태평천국의 난'을 이끈 홍수전(洪秀全)은 스스로를 예수의 형제라고 믿었다.

쓰촨성 오지 마을인 시창(西昌)에 가보면 새로 생긴 교회의 활기찬 모습을 볼 수 있다. 외국 선교사들이 그곳에 성공회 교회를 설립한 것은 1887년. 마지막 외국인 성직자가 추방되던 1952년까지 교회는 계속 운영되었다. 그 후 3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공산정권은 교회를 강제 폐쇄했다. 첫 번째 폐쇄조치는 애국적 지도력 아래 교회를 개혁한다는 것이었고 두 번째는 문화혁명 기간 중 반동적인 봉건 이데올로기를 발본색원한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현지 기독교 신자들은 신앙을 버리지 않았다. 현 개신교 교회의 평신도 지도자인 양선푸(여)는 "우리는 천주교 신도들과 함께 옷가게에서 몰래 예배를 드렸다"고 말했다. 그러는 동안에 그곳의 모든 기독교 성직자들은 강제노동 수용소에서 곤욕을 겪었다. 화교로서 중국에 와서 선교사로 일하던 양씨의 남편은 고문을 받은 후 수감되었다.



따마잔교회를 방문한 빌리 그레함 목사의 설교를 통역하는 린시엔카오 목사.

그러나 문혁 이후 1982년에 와서야 교회에 대한 박해가 완화되었다. 교회는 다시 문을 열었고 지금 그녀가 몸담고 있는 교회의 신도 수는 날로 늘고 있다. 양씨는 4백 명의 신도 중에 젊은이들이 특히 많은 것을 강조한다. 그러나 그녀는 자신의 자녀들은 아버지가 겪은 박해의 기억으로 상처를 입어 교회에 나오지 않는다고 덧붙인다. "아이들은 기독교도가 아니지만 강요할 생각은 없다"고 그녀는 말한다.

그 사이에 개신교도들은 지도자들의 고령화라는 두 번째 위기를 맞게 된다. 문혁 이후 교회 활동이 부활되었을 즈음, 전 중국의 사

제와 목사들의 평균 나이는 70세가 넘었다. 시창에서도 한동안 지도자가 없어 처음엔 평신도 지도자들이 교회를 운영했지만 현재는 사천신학원(四天神學院)을 졸업한 예비 목사 타오리핑(여·28) 전도사가 예배를 인도하고 있다. 이 마을의 한 기독교 가정에서 태어난 그녀는 농민들을 교회로 인도한 것에 큰 자부심을 느낀다.

종교정책 강화, 그러나...

최근엔 삼자교회들도 종교적 자율성 확대에 대한 열망을 나타내고 있다. 한때 정부의 꼭두각시에 불과했던 삼자교회들이 교회 재정, 인사 문제 등에 더 많은 자율권을 요구하고 있다. 일부 삼자교회들은 가정교회들과 유대를 갖기도 한다.

하지만 중국 정부로서는 교회가 손아귀에서 벗어나는 것을 순순히 두고 볼 수만은 없다. '94년 1월 리핑(李鵬) 총리는 국무원령으로 종교에 관한 두 가지 규정을 공포했다. 제 144호 『중국 내 외국인 종교활동 관리규정』이라 불리우는 첫 번째 조치는 사실상 외국 선교사의 모든 활동을 금지하는 것이었다. 제 145호 『종교활동 장소 관리규정』이라는 두 번째 조치는 무허가 교회들이 당국에 등록하지 않을 경우 범법행위로 보고 강제 해체토록 한다는 것이다.

특히 외국인 선교활동 금지조치는 적용 대상이 광범위하다. 선교사들이 전도활동을 하거나 교회, 신학교를 세우는 일 등을 할 수 없다. 즉 중국 정부와 공식적 종교단체를 통하지 않는 종교활동과 선교행위는 모두 금지된 것이다. 그같은 새로운 규정을 맨 처음 위반하여 처벌받은 사람은 미국인 선교사 데니스 벨콤(Dennis Balcomb)이었다.

그는 허난(河南)성에서 대규모로 비밀 예배를 주관한 후 다른 외국인 6명, 중국인 신도 7명과 함께 구금되었다가 '94년 2월 추방되었다. 홍콩의 부흥교회(Revival Church) 담임 목사인 벨콤은, 중국 관리들에 따르면 성경의 중국 밀반입을 주도했고, '89년에도 광둥성

남부에서 부흥회를 인도하다가 쫓겨난 적이 있다고 한다.

중국 정부가 벨콤을 비롯, 외국에서 파견된 선교사들의 영향력 확대를 주시하기 시작한 것은 분명하다. 그러나 기독교의 확산을 저지하려는 중국 정부의 강경책은 각지에서 은밀히 활동하는 상당수 외국인 선교사들의 활동에는 거의 아무런 영향도 주지 못했다. 예컨대 윈난(雲南)성 쿤밍(昆明)에 위치한 윈난대학에서는 외국인 학생용 기숙사의 절반 가량을 미국인 선교사들이 차지하고 있다. 중국 각지에서 영어 교사로 고용된 '외국인 전문가'들 중 은밀히 선교활동을 하는 사람이 절반이나 된다고 한 서방 외교관은 추산한다. "그들은 먼저 중국인들과 친해지려고 노력한다. 그런 다음 하나님에 대해 가르치고 성경 및 기독교 서적을 나눠주기 시작한다." 윈난대학의 선교사들 사이에서 생활했던 한 프랑스 학생의 말이다.

두 번째 규제는 공인교회인 삼자교회의 합법적인 권리를 수호하기 위한 목적에서 제정된 것으로, 신고되지 않은 수천 개소의 가정교회를 강제로 등록시키기 위한 것이다. 해외교회나 선교단체들과 협력하는 가정교회는 더욱 위협해진다. 그러나 어느 교회나 등록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아직 정해지지 않았지만 재정적, 법적, 지도적 요건이 충족되어야 등록할 수 있다. 그런 요건에 적합하지 않는 교회의 지위는 '상황에 따라 처리될 것'이라고 국무원 종교사무국의 한 관계자는 말했다. 규정대로 따르지 않는 교회는 폐쇄할 것이라는 협박이나 다름없는 것이다.

꺼지지 않을 불, 기독교

전국적으로 기독교에 철폐가 가해질 것이라는 우려가 있지만 아직 그런 조짐은 보이지 않는다. 그러나 현재 중국 중부의 곡창지대를 포함한 각지에서 무허가 가정교회에 대한 지방 당국의 일제단속이 대대적으로 실시되고 있다. "종교 규제법의 신설로 중국 경찰들은 기독교인들을 제때대로 탄압할 수 있게 되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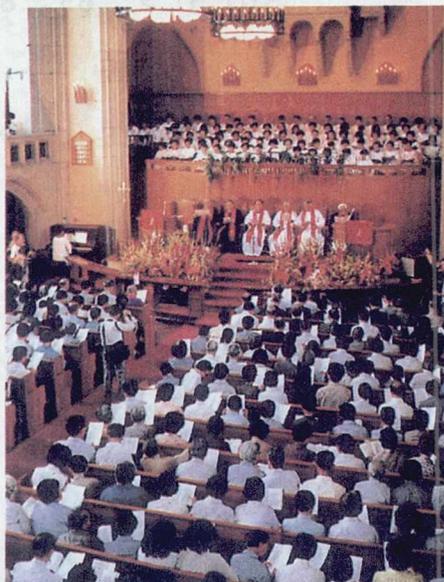
다.”고 아시아 인권감시단체의 한 관계자는 말했다. 안후이(安徽)성과 허난성에서는 경찰들이 때때로 ‘노동 재교육’ 명목으로 기독교인들을 억류하기도 한다. 재판도 없이 교도소에 집어넣고 몇 개월 또는 몇 년씩 중노동을 시키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정교회의 교세 확장은 수그러들 줄 모른다. 베이징 교외 노동자 주거지역의 어느 일요일. 지양(江) 자매의 먼지 쌓인 아파트에 20명의 신도가 모여 있다. 그들은 무릎을 꿇고 앉아, 감동으로 북받치는 울음을 억누르며, 예수 그리스도 앞에 자신이 지은 죄를 고백하고 죄사함을 간구한다. 그리고 손으로 베껴쓴 성경책을 읽으며 찬송가를 부른다. 이어 지양 자매는 새로 신자가 된 여섯 명의 10대 청소년들에게 새 성경책을 나눠준다. 삼자교회에서 얻은 것들이다.

등록하지 않은 가정교회 신도들은 세 가지 이유에서 삼자교회를 기피한다. 그 첫 번째 이유는 교리상의 문제 때문이다. “그들은 성경을 가르치지 않는다.”는 것이 지양 자매의 주장이다. 둘째, 50년대에 삼자애국교회와의 연합을 거부했다는 명목으로 장기간 옥살이를 한 많은 기독교인들은 아직도 삼자교회를 어용 내지 이단으로 보고 있다. 셋째, 비록 불법이긴 하지만 지하 종교활동이 더 안전하다고 보는 사람들이 많다. 삼자교회에 등록하면 언젠가 탄압의 표적이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삼자교회의 지도자들은 이러한 문제의 해결을 위해 고심하고 있으며, 실제로 이런 노력이 성공을 거둔 지역에서는 신자 수가 급증하고 있다. 베트남과 인접한 중국 남부 광시(廣西)성의 경우 '80년에 7천 명에 불과하던 삼자교회 신자 수가 지금은 5만 명을 넘어섰다. “공산당원이 당적을 버리고 세례를 받는 경우도 있었다.”고 한 교회 목사는 말했다.

베이징의 대학가에 있는 한 개신교회는 매주 일요일만 되면 학생 신도들로 만원을 이룬다. 삼자교회의 고위 지도자들이 지하 종교활동에 대한 탄압을 완화하기 위해 자신들의 정치적 영향력을 동원하기도 했다. '94년 4월,



공개된 삼자교회도 신도들로 붐빈다. 삼자교회의 대표적 지도자들이 모인 가운데 진행된 상하이 목은당 교회의 성탄예배.

중국 기독교협회 당광선 주교는, 선량한 가정교회 신도들을 무자비하게 공격한 ‘편견을 가진’ 공산당원들을 엄히 다스리도록 정부에 요청했다. 무허가 가정교회 지도자들과 정기적으로 접촉하고 있는 또 다른 책임자는 종교의 자유를 위한 헌법적 보장은 삼자교회 신도뿐 아니라 모든 기독교인들에게도 적용돼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들의 권리가 침해당할 때는 우리가 목청을 높여 그들을 지켜줘야 한다.” 이들의 주장은 종교 박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당 지도부의 노선과 맞지 않는 것이다. 장기적으로 중국 기독교가 크게 일어설 것으로 봐도 무방할 것이다.

가정교회들은 점차 양성화되고 있으며 삼자교회도 운신의 폭이 넓어졌다. 종교활동을 옮아매는 규제조치들도 상당수의 지역에서는 유명무실하다. 사회질서가 붕괴되어 소수 기독교인에게 불뚱튀는 일만 없다면 그같은 추세는 계속될 것이다. 공산 당국으로서는 불만이겠지만 정부나 중국 인민 할 것없이 모두, 오늘날 중국에서의 다른 많은 것들처럼 종교도 마침내 정부가 좌지우지할 수 없게 되었다는 사실을 깨닫기 시작하고 있다.

이 글은 〈Newsweek〉(94. 5. 23)에 실린 「keeping the Faith」를 정리한 것이다.

천주교회의 실상

토니 램버트



공산화와 천주교회

16세기에 중국에 도착한 예수회 선교사들을 통하여 전래되기 시작한 천주교는 중국에서 각별히 긴 역사를 갖고 있다. 공산당 정부가 수립되기 직전인 1949년에 천주교단은 350만 명의 교인, 13,251명의 신부와 수녀, 2,200개의 학교와 3개의 대학교, 216개소의 병원, 254개의 고아원과 781개의 진료소를 운영하는 등 대단한 규모를 자랑하고 있었다.¹⁾

1) China and the Churches, p. 39. 신부와 수녀 중 4,441명은 외국인이었다.

그러나 공산당 정부는 천주교회를 미제국주의와 협력하는 로마 교황청의 스파이로 간주하며,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고 있었다. 로마 교황 역시 무신론을 신봉하는 공산주의와는 타협할 의사가 없었다.

1950년 말 정부는 기존의 개신교 삼자애국운동위원회 노선에 천주교 삼자애국운동위원회를 설립하고 그들과 협력할 준비가 되어 있는 인사를 찾았으나, 쓰촨성의 산간 오지에 살고 있는 단 한 명의 신부 밖에는 찾을 수가 없었다. 대부분의 주교와 신부, 성도들은 로마 교황청에 충성을 표시했으며 천주교의 위

계질서에 힘입어 개신교에 비해 천주교회를 지배하려는 공산당의 노력에 저항하는 더 일치단결한 모습을 보였다. 1951년 공산당은 난징과 우한, 광저우에 있는 천주교가 운영하는 교아원에서 서양 신부와 수녀들이 중국 교아들을 살해했다는 유언비어를 퍼뜨렸다. 신부들에게 간첩혐의를 씌워 재판에 회부했고 인민일보에 교회를 테러조직이라고 비난했다.

1954년 12월까지 중국에 있던 2,500명의 외국인 신부들 가운데 61명만 제외하고는 모두 추방되었으며 그들 중 21명도 감옥에 갇히게 되었다. 2,700명의 중국인 신부들 중 약 400명은 그들의 성직을 박탈당했고 농촌 지역 대부분의 천주교회들은 토지개혁으로 인하여 모두 폐쇄되었다. 개신교와 마찬가지로 천주교가 운영하던 모든 학교, 대학교, 병원들이 정부의 손에 넘어갔다.

공산당 정부는 중국 전역에 천주교 개혁위원회를 설립하는 데 굉장한 어려움을 겪었다. 이그나티우스 공핀메이 주교의 지도력 아래, 15만 천주교 신자의 안식처였던 상하이를 중심으로 천주교는 정부에 대한 저항을 시작하였다. 1955년 12월 공 주교가 체포되면서 교회를 정부에 예측시키는 일은 일단락되었다.

1957년까지 200여 개 지역에서 애국 성향을 띤 천주교 단체들이 설립되었다. 그 해 7월에 천주교 애국회가 정식으로 발족되어 중국의 천주교는 로마 교황청으로부터 독립한다고 선언하였다. 1958년 4월에는 새로 설립된 천주교회가 로마 교황청을 무시하고 우한에서 두 명의 주교에게 성직을 수여하였다. 이로 인하여 중국 천주교와 로마 교황청과의 관계는 더욱 악화되었다. 천주교 교회법에 의하면 주교들의 성직 수여에 불법을 행한 자는 자동적으로 추방되므로 중국의 천주교는 로마 교황청으로부터 완전히 결별되었다. 로마 교황청에 충성하는 신실한 천주교 신자들은 정부의 꼭두각시로 전락한 천주교 애국회와의 협력을 거부하고 지하로 숨어들었다.²⁾

1950년대 초부터 문화혁명 후까지 수많은 천주교 신부와 성도들이 그들의 신앙을 지키다가 감옥에 갇혔다.

천주교회의 부활

개신교의 경우에서처럼, 덩샤오핑의 정계복귀는 정부의 종교정책에 두드러진 변화를 가져다 주었다.

1979년이 되자 천주교 애국회가 개편되었으며, 천주교회도 중국 전역에서 다시 문을 열기 시작하였다. 공식 집계에 의하면 중국에는 1989년에 천주교 애국회 산하에서 1,000개 이상의 성당과 2,300개소의 예배처나 처소가 다시 문을 열었는데, 1,100명의 신부와 1,800명의 수녀와 견습 수녀, 340만 명의 천주교 신자들이 있었다.³⁾

이러한 통계로 보아 천주교회는 1949년 이래 교세가 10분의 1로 감소하였다. 신부의 숫자는 1949년 통계에 비해 그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으며 수녀들의 숫자는 3분의 1도 못 된다. 그러나 교회는 매년 4만 명 이상씩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천주교 애국회에 등록된 교회에 참석하는 교인 수만큼, 또는 그 이상의 천주교 신자들이 신실히 지하교회에 출석하므로 전체 중국 천주교 신자 수는 800만 명 이상에 달한다. 개신교와 마찬가지로 정식 교육을 받은 천주교 지도자의 부족으로 인하여 천주교회는 분명히 큰 위기에 직면해 있다. 신부들의 평균 연령은 70세로 나타났다. 7개의 국립 신학교와 5개의 교구관리 신학교가 1989년까지 다시 문을 열었지만(1949년에는 16개의 신학교와 많은 지방 신학교가 있었다), 그곳에는 단지 630명의 신학생이 공부하고 있었다. 이는 필요로 하는 인원에 비해 그 수가 훨씬 부족한 것이었다.

천주교 애국회는 1980년 5월에 중국 천주교 제3차 전국 총회를 개최하였다. 천주교 애국회는 당과 천주교 간의 정치적인 업무를 다루었는데, 종교 업무만 전적으로 다루기 위해

2) Laszlo Ladany, *the Catholic Church in China*, pp. 17-21

3) *Asia Focus*, 7 January 1989.

중국 주교 신학교(Chinese Bishop's College)와 천주교 종교사무국(Catholic Religious Affairs)이 새로이 설립되었다.

천주교계의 이러한 움직임은, 삼자애국운동위원회로부터 독립된 자치기관으로 중국 기독교협회가 설립되었던 것처럼, 아마도 천주교 애국회가 대부분의 천주교 신자들로부터 굉장히 나쁜 평판을 받고 있는 것을 인식한데서, 또한 당이 추진하는 정책들이 천주교 신자들로부터 지지를 얻기 위해서는 외형적이나마 천주교에 자치권을 부여하겠다는 동기에서 출발하였을 것이다. 이 전국 총회에서는 '천주교 성직자와 신도들에게 보내는 편지'라는 제목의 선언서를 발표했는데, 이는 종교를 방자하여 기적을 일으키거나 헛소문을 퍼트리고 분열을 조장하는 무리들과 반혁명 외국 세력에 대하여 맹렬히 비난하였다.⁴⁾

천주교 신자들을 회유하기 위한 움직임으로, 중국 정부는 총회가 끝난 후 불과 한 달 만에 도미니크 탱 주교를 전격적으로 석방했다. 그는 22년 동안 감옥에 갇혀 있었다. 1980년 10월 정부는 몇몇 지역 천주교 신자들과 대화를 나눈 후, 그를 광저우시 주교로 임명하였으며 또한 그의 신병 치료를 위하여 홍콩에 다녀오도록 허락했다. 1981년 6월 그가 로마를 방문했을 때 로마 교황은 그에게 광저우 대주교라는 성직을 수여했는데, 중국 정부는 이에 심한 불쾌감을 표시했다. 이는 아마도 탱 주교가 교황의 최고 권위를 인정했기 때문이었을 것이다.

이에 대한 후속조치로 당과 천주교 애국회는 그의 대주교 성직 수여를 규탄하는 전국적인 캠페인을 대대적으로 전개했으며, 천주교 애국회에 가입하지 않은 신부들의 자격을 박탈했다. 통일전선부의 수뇌부는 천주교 애국회가 재천명한 로마 교황청으로부터의 독립 선언을 쌍수를 들고 환영했으며, 또한 5명의 애국 주교들을 로마 교황청을 무시하고 새로이 성직에 임명했다.⁵⁾ 중국 정부의 이러한 조

4) Ladany, p. 36.

치는 중국과 로마 교황청 사이에 화해에 대한 희망을 완전히 사라지게 했다.

1981년 11월, 4명의 예수회 신부들이 로마 교황청과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는 이유로 체포되어 각기 10년 이상의 형을 선고받았다. 1981년 말에서 1982년 초까지 적어도 20여 명의 신부들과 신자들이 상하이와 광시 좡족자치구 또는 안후이성과 허베이성에서 체포되었다.⁶⁾

1982년 중국 정부와 천주교 애국회는 중국 교회를 위해 기도하라고 촉구한 교황 요한 바오로 2세를 규탄했다. 교황은 그의 발표문에서 "중국에 있는 형제자매들이 지난 30년의 긴 세월 동안 고난과 어려움을 당해 왔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한 심한 고통 속에서도 그들은 예수님과 교회에 충실해 왔습니다."라고 말했다.⁷⁾

1980년대 초부터 말까지 로마 교황청은 화해를 위하여 중국 정부와 천주교 애국회와 접촉을 가지려고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그러나 대만과의 관계를 단절하고 천주교 애국회의 역할을 인정하며 북경과 정식 외교관계를 맺는데 있어 로마 교황청에 충성하는 지하 천주교회뿐만 아니라 적지 않은 대만의 천주교회의 존재를 저버리지 않고 인정할 책임은 지금까지 로마 교황청이 극복해야 할 장애물이 되어왔다.

천주교회의 생활

전통적인 중국 천주교 신앙은 대단히 보수적이었다. 세계적으로 잘 알려진 중국 문예 전문가인 예수회 신부, 라데니(Ladany)에 의하면 중국의 천주교 신자들은 대단히 종말론적 이어서 죽음, 심판, 천국, 지옥을 중점적으로 믿는다고 한다. 천주교의 이러한 신앙은 개인

5) Ladany, pp. 40-41.

6) Amnesty International, China: violation of human rights; Kim-Kwong Chan, Towards a Contextual Ecclesiology:

the Catholic Church in the PRC(1979-1983), pp. 176-177

7) Ladany, p. 41.

교회가 강조하는 예수님의 재림, 천국에 대한 희망,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깊은 자각과 비교해볼 수 있다. 천주교나 개신교를 믿는 박해 속의 중국 신자들은 현대 서방의 그리스도인들이 대체로 잊어버리기 쉬운 성경적 진리에 대해 보다 더 깊이 깨달을 수 있었다.

천주교 신자들은 이교도들과 어울리는 것뿐만 아니라, 가극 풍의 쇼에 가는 것조차도 허락되지 않았다(중국의 전통적인 보수신앙은 세속으로부터의 분리를 강조하였다). 따라서 빈곤을 추구하는 경향이 강하다.

신자들의 굳건한 신앙심의 바탕 위에 천주교와 복음주의 교회나 단체들도 굳건히 서게 되었다.⁸⁾ 비록 그들이 삼자애국운동위원회 소속의 진보주의 신학자들이나 천주교 애국회, 또는 해외의 지원자들로부터 편협하다거나 세상과 동떨어진 사람들이라는 비웃음을 받아오긴 했지만, 그들의 신앙심은 성숙되었고 기독교의 생존과 성장에 기여하였다.

1979년 천주교 성당들이 다시 문을 열었을 때 미사에 참석하는 군중들의 수는 적었다. 광저우에서는 그 해 10월 토굴로 이루어진 성심성당에서 열린 첫 미사에 단지 100여 명이 참석했다. 그러나 1981년이 되자 참석자의 수는 1,000여 명으로 늘어났다. 1981년에 내몽고의 삼바에서 열렸던 성탄절 미사에는 2,000 명이 참석하였으나, 1982년에는 21,000명으로 늘어났다. 이 현상은 많은 천주교 신도들이 정부가 실시하는 새로운 종교정책의 신실성에 대하여 의심을 품고 있었다는 증거였다. 그러나 양심상, 아직도 많은 천주교 신자들이 천주교 애국회에 소속된 성당에 출석하기를 거부하고 있다. 북경의 애국 주교 푸티엔산에 의하면, 그 지역에 4만 명의 천주교 신자들이 있으나 정부에 등록된 성당의 미사에는 단지 5천여 명만 참석하고 있다고 한다. 상하이 한 지역에는 1만여 명의 신자들이 있지만 500명만이 그곳에 있는 큰 천주교 애국 성당에 다닌다고 한다.⁹⁾



공식적인 천주교회의 예배는 라틴어로 거행된다. 사진은 농촌의 한 천주교회 예배당에 그려진 벽화

수많은 천주교 신자들이 천주교 애국회에 소속되어 있는 신부들을 받아들이기를 꺼리는 이유는 특히 이들 중 많은 신부들이 결혼함으로써, 독신의 서약을 파기했기 때문이다. 결혼했다고 알려진 지린성(吉林省) 천주교 애국회의 왕웨민 주교가 이곳에서 맨 처음 문을 다시 연 성당의 미사를 인도했을 때, 단 한 명의 신자도 나타나지 않았다. 나중에 천주교 신자들은 천주교 애국회에 이에 대해 항의했으며, 비록 천주교 애국회에서의 그의 지위는 유지되었으나 미사를 집행할 자격은 박탈당한 것으로 알려졌다.¹⁰⁾

일반적으로 천주교 애국회는 로마 교황청의 권위를 부정하며, 낙태와 피임에 관한 교회의 전통적인 가르침에 함구하고 있다.¹¹⁾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정통적인 천주교의 후견인임을 나타내고자 열심을 내고 있다. 예배는 트리엔트 종교회의(the Council of Trient)에서 결정된 미사의 형식을 포함하여 제2차 바티칸 종교회의 이전의 경직된 형식을 고수하고 있다. 모든 미사는 신부가 강단을 향한 채 라틴어로 거행하므로 미사에 참석할 일반 신자들은 거의 알아들을 수가 없다.¹²⁾ 또한

9) Laszlo Ladany, *Meditations on the Church in China*.

10) Kim-kwong Chan, pp. 145-152.

11) *Bridge*, Nov 1984, pp. 9-10.

8) Ladany, pp. 10-12.

농촌 지역의 중국 천주교 신자들은 성모 마리아에 대한 헌신적인 미사 형식의 옛 전통을 버리지 못하고 있으며 이는 개신교를 당혹케 했다.

박해와 저항

허베이성 내에 있던 지하 천주교인의 숫자는 최근 허베이성 정부 당국에 깜짝 놀라게 했으며, 성 정부는 강압적인 조치를 취하기 위하여 심혈을 기울였다. 1986년 9월, 38명의 재학생이 있는 지하 천주교 신학교를 무력으로 폐쇄하기 위하여 치아오자이라는 마을로 군인과 경찰들이 밀고 들어왔다. 국제사면위원회의 보고서에 의하면 다수의 수녀들이 경찰들에게 성폭행을 당했고, 75세가 넘는 두 명의 연로한 신부가 체포되었다.¹²⁾

이러한 억압조치에도 불구하고 교회를 진압할 수 없었던 정부는, 1989년 허베이성의 성도(省都) 스지아짱 근처에 있는 한 천주교 마을을 포함하여 체계적인 대학살을 시작했다. 유통이라는 이 마을에는 1,700명의 천주교 신자들이 살고 있었는데, 이들 중 200여 명만이 천주교 애국회의 일원이었으며 나머지 1,500여 명은 지하 교회와 로마 교황청에

충성을 표시하는 신자들이었다. 이 지역의 천주교 신자들은 정부 당국에 문혁 당시 부수어진 교회를 재건할 수 있도록 허락해 줄 것을 요청했으나 헛수고였다. 그러자 그들은 그곳에 천막을 치고 당국의 수배 중에 있던 신부가 거행하는 미사에 모여 들었다. 정부 관리들은 1989년 4월 17일까지 한 달 동안 여러 번 찾아와서 그들에게 기도를 금지하고 천막을 치울 것을 명령했다. 다음은 사건 발생 후 이틀만에 진정서를 제출한 이 지역 천주교 신자들의 증언이다.

“오전 8시 쯤, 약 5,000명의 경찰과 무장한 군인들이 수백 대의 트럭에 나누어 타고 와서 마을 전체를 포위하고, 수배중인 신부를 체포하기 위해 집들과 천막 안으로 달려 들어갔다. 그들은 교회를 부수면서 몽둥이로 수많은 신자들에게 상처를 입혔으며, 기도하고 있던 몇 십 명의 여자들을 강제로 끌어냈다. 여섯 명의 할머니들이 맞아서 기절하였다. ……”

무장 경찰들은 눈앞에 보이는 모든 사람들을 구타하면서 사방에서 신부의 집을 공격해 들어갔다. 집안에 있던 사람들이 급히 도망쳐 나왔지만, 그들은 벽돌을 던지고 유리창을 깨뜨리면서 무자비하게 구타하였고 한 명, 한 명



70세가 넘는 수녀들이 상하이(上海)의 여산(佘山) 천주교당에서 경건하게 기도 드리고 있다.

12) Kim-Kwong Chan, pp. 155-157.

13) South China Morning Post, 23 September 1986, 8 October 1986.

씩 모두 끌어냈다. 노인들이나 어린아이들도 풀어주지 않았다. 수백 명의 신자들이 구타당하여 엎드려진 채로 온 마당에 가득 차 있었으며 마당은 피로 흥건하였다. 그들은 또한 여러 가지 물건들을 약탈했다.

이 잔혹한 사건으로 인하여, 구타당하고 의식을 회복하지 못한 20여 명을 포함하여 약 100여 명 이상이 부상을 당했으며 이들 중 60여 명은 중상을 입었다. 30여 명이 체포되었는데 이들 중 4명은 14세 이하의 어린이들이다. 그들의 생사를 우리는 확인할 길이 없다.”¹⁴⁾

지방 정부는 이에 대한 변명으로서 사건의 원인은 학교 캠퍼스를 ‘불법점거’한 데 있다고 발표했다. 천주교 애국회의 부회장인 안소니 류베니안은, 충돌은 경찰에 의하여 먼저 시도된 것이 아니며 유혈 사태도, 사망 사건도 없었다고 발표하였다.¹⁵⁾ 나중에 천주교 애국회는 이 사건이 발생했음을 시인했지만, 이 사건의 원인을 이 지역 천주교 신자들을 기만한, 수배 중이었던 페이 신부에게 돌렸다.

이 유통 지역 사건은 최근 중국에서 발생한 박해 가운데 가장 비극적인 사건이지만, 이는 중국 공산당이, 특히 지방의 극좌세력들이 그들의 체제를 지키기 위하여 얼마나 단단히 각오하고 있는가를 보여주는 사건이다. 비록 극단적인 경우이기는 하지만, 이 사건은 국가 지배세력들이 정부와 의견을 달리하는 천주교 신자들에게 본 때를 보여주기 위하여 고의적으로 지나친 강압 조치를 취한 대표적인 예로 해석될 수 있다.

정부에 대한 중국 천주교의 저항이 표출된 경우도 있다. 그것은 쓰촨성의 성도신학원(成都神學院)에서 일어난 사건이다. 지난 '94년 4월, 53명을 제외한 전교생들이 공산당의 간섭에 ‘환멸을 느껴’ 수업을 거부한 일이 발생하였다. 학생 시위대측은 학교 당국이 ‘현



광저우의 석심(石室) 성심(聖心) 대성당

금을 횡령하고 교회 재산을 헐값에 팔아치웠다.’고 비난했다. 학생들은 또 천주교삼자에 국회 지부가 ‘무신론자’를 학장으로 임명한 것을 비난하면서 ‘교회의 운영주체가 정부인가 아니면 하나님인가’라고 반문하였다.

성도신학원 학생들의 시위는 중국 내 13개 신학교에 대한 심각한 도전이 되고 있다. 쓰촨성 내 다수의 주교들은 천주교 애국회측이 물러서지 않으면 산하 고구 학생들을 직접 교육함으로써 신학교 존립의 필요성을 없애버리겠다고 경고했다. 그럴 경우 국무원 종교사무국의 현지 지부는 수많은 사제들을 통제할 수 없어 치명타를 입게 될 것이다. 일부 학생들은 삼자교회 조직을 이탈해 지하교회 조직에 가담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전체적인 분위기로 봐서, 중국 정부와 로마 교황청 간의 화해가 이루어지거나 중국의 정치 상황에 폭넓은 변화가 있지 않는 한, 지하 천주교에 대한 탄압과 신도들의 저항은 계속되리라 예상된다.

토니 램버트/ 홍콩 오엠에프(Overseas Missionary Fellowship) 중국 자문위원

이 글은 『중국교회의 부활』(토니 램버트 저, 김창영/조은화 역, 생명의 말씀사 간)에서 발췌한 글로 ‘생명의 말씀사’의 허락을 받은 것이다. <편집자 주>

14) Si. Shiba Canan Zhenxiang' (The Truth about the 18 April Cruel Incident), handwritten or mimeographed appeal from 'All the Church Members in Youtong Village', Luancheng County, Hebei Province, 20 April 1989.

15) Asia Focus, 13 May 1989. 그러나 사실은 두 명의 어린이가 죽고 늙은 수녀가 실명했으며 300여 명이 부상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소수민족의 다수종교, 라마교와 회교

김한성

불교와 회교는 중국의 5대 종교에 속한다. 또한 55개 소수민족들의 다양한 종교 중에서 대표적인 종교로서, 이를 신봉하는 민족의 문화와 삶에 깊고 광범위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 중국 정부의 소수민족 정책은 기본적으로 '다민족 국가 융합'이기 때문에, 각 민족의 문화와 풍속, 종교를 인정한다고 하지만 라마교와 회교의 극단성은 때때로 종교 분쟁으로 발전하기도 한다.

이 글은 라마교와 회교에 대한 개관이다. 지면상의 한계로 피상적인 소개에 그칠 수 밖에 없는 아쉬움이 있지만, 미전도종족 복음의 가장 큰 장벽으로 여겨지는 라마교, 회교 지역에 관심을 갖고 있는 독자들에게 미력하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 <편집자 주>

라마교

라마교란 무엇인가?

라마교는 짱족(藏族-티벳)의 보편적인 종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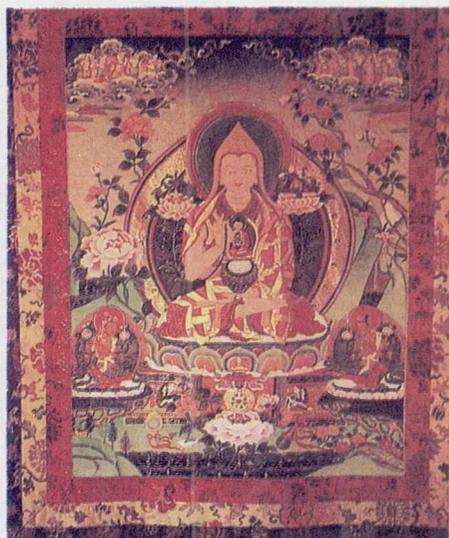
이다. 티벳인들은 자신들의 종교를 '상결등과(桑結登巴)'라고 하는 데, 이는 불교라는 뜻이다. 결국 라마교란 티벳지역 불교의 속칭이다. '라마'란 티벳어의 음역으로 '상사' 나 '상인(上人-웃사람)'이란 뜻인데 티벳인들이 종교상의 지도자나 고승을 '라마'라고 부른 데서 유래한다. 반면 출가한 보통의 승려는 '자바'라고 한다. 후대에는 사람들이 자바조차도 라마로 존칭하였다.

7세기 전후로 중국 내지와 인도를 통해서 불교가 티벳에 전래되었다. 불교는 전래된 직후에 티벳의 토착종교인 본교(本敎)와 심각한 투쟁을 거쳐, 결국 서로 영향을 미치면서 융합되었다. 그 배경에는 왕실의 중앙집권의

필요에 따른 불교의 도입과 본교를 둘러싼 토착 귀족세력간의 갈등이 있었다.

티벳의 토착종교인 본교는 일종의 자연숭배, 정령(각종 사물에 붙어있는 것으로 사람들에게 불행이나 액운을 가져오는 귀신)숭배 신앙이다. 본교의 무당은 정령들이 가져오는 재앙을 해결하는 사람으로, 티벳인들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연관을 맺으면서 거의 무한정한 권력을 누리는 귀족으로 군림하고 있었다. 이들의 권력이 점차 극도로 팽창하여 투판(吐蕃-옛날 티벳왕국을 지칭하는 말) 왕실의 권위조차 위협받게 되었다. 이에 왕실에서는, 당시 전래되어오던 불교가 고차원적이고 정밀한 정신적 도구로서 능히 본교와 대항할 수 있는 종교라고 여겨 유입하고자 하였다.

수백 년 동안 두 종교는 이러한 갈등을 겪다가, 불교에서 먼저 본교의 신들을 수용하여 자신의 신으로 삼았으며 본교의 의식도 수용하였다. 특히 인도 불교의 밀종대사인 연화생



라마교 무용에 쓰이는 가면과 불화

(蓮華生)이 가지고 들어온 신비한 무술과 주문 및 본교의 것들을 융합시켜 전파하였다. 불교의 자비와 중생평등(衆生平等), 인과(因果), 윤회(輪廻), 극락(極樂) 등의 사상이 티벳 인민의 종교적 심성에 영합된 결과, 10세기에 들어서 결국 독특한 형식을 지닌 티벳불교, 즉 라마교가 형성되었다.

라마교는 현재 중국의 소수민족 중 몽고, 티벳, 키르키즈, 투, 다워르, 치양, 시버, 푸미, 누, 어룬춘, 위꾸, 먼빠 등 12개 민족이 신봉하고 있다.

라마교의 발전

779년에 첫 사원인 상연사(桑蔴寺)가 건립된 이래 귀족과 평민 7명이 계를 받고 출가하여 승려가 되었다. 이로써 티벳남자는 반드시 출가하여 승려가 되는 제도가 생겨나게 되었다. 또 불경 번역의 필요 때문에 일단의 번역요원을 양성해 내기도 하였다.

불교는 열파건 재위 시기(815~836년)에 매우 발전하였는데, 심지어 본교마저 불경을 경전으로 삼았다. 그러나 랑달마 재위 시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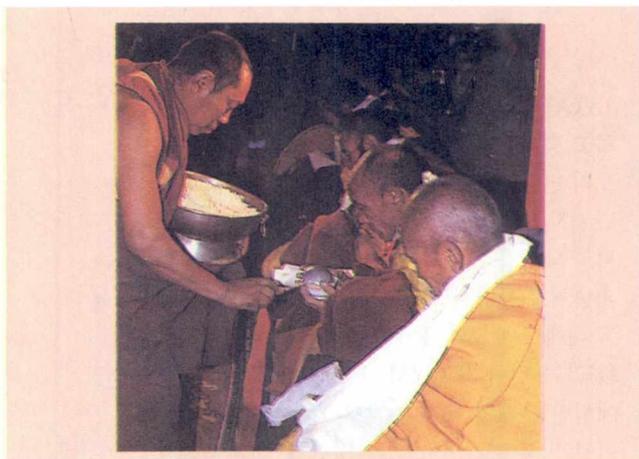
(836년~841년)에 무력으로 불교를 탄압하고 승려를 죽이며 사원을 훼파하는 등 대규모의 멸불(滅佛)운동을 전개하였다. 이후 978년까지 136년 동안 도탄에 빠진 민중들은 의탁할 대상을 찾게 되었고, 이 때 불교는 다시 피난처로 등장하였다. 심지어 이 시기에는 본교 내에도 불교와 유사한 종파인 백본교(白本敎)라는 것이 생겨났다. 본교는 편벽한 지방에서만 본래의 특징이 여전히 유지되었는데, 이것을 흑본교(黑本敎)라 하였다. 이후 본교는 더이상 불교의 맞수가 되지 못하였다.

9세기 중엽부터 11세기 중엽까지는 라마교 각 교파의 발전시기이다. 이 때는 각교파별로 각 지역의 호족들과 연결되어 발전해 갔다. 이 때 갈당파(噶當派), 살가파(薩迦派), 갈거파(噶舉派), 복로파(復魯派), 낭마파(寧瑪派), 격로파(格魯派) 등이 출현하였다. 이 중 경제적으로 든든한 지원을 얻지 못한 교파들은 타교파와의 경쟁에서 패배하거나 겨우 명맥만 유지하여 그 세력은 미미하게 되었다. 1949년 신중국 성립 시기에 이르러 라마교는 낭마파(寧瑪派), 격로파(格魯派), 살가파(薩迦派),

갈거파(噶舉派) 등의 4대 교파만 남게 된다.

활불(活佛)제도의 유래

라마교는 교리에 따라 라마승들이 결혼을 하지 않기 때문에, 현재 티벳 라마들의 전수방법인 전세상승법(轉世相承法), 즉 활불제도를 시행한다. 원래 철봉사의 법태종객파(法台宗喀巴)의 제자인 '근등가착'이 죽자 정권을 쥐고 있던 라마가 옹룡(雄龍)이라는 지방에 가서, 겨우 3살짜리 남자아이인 '색남가착'을 찾아 영적으로 근등가착을 계승하게 하였다. 이 영동(靈童)이 황교사원의 우두머리가 된 것이다. 이것이 황교의 활불제도의 시작이다. (황교(黃教)는 라마교 최대의 일파인 격노파를 말한다. 이들이 노란 승려복을 입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이다)



라마승들의 저녁식사 시간

1546년에는 몽고(蒙古) 토목특부의 수령으로 명나라가 순의왕으로 책봉하였던 엄담한(俺答汗)이 색남가착에게 “성직일체와제가 달라달뢰라마(聖職一切瓦齊爾達喇達賴喇嘛)”라는 존호를 증여하였다. 황교 쪽에서는 이후 황교시조 종객파(宗喀巴)의 제자 근둔주파를 제1대 달라이라마로, 근등가착을 제2대 달라이라마로, 색남가착을 제3대 달라이라마로 추존하였다. 17세기 중엽 이후에 청순치제는 1653년에 제5대 달라이라마를 “서천대선자재불소영천하석교보통화적라탄라달뢰라

마(西天大善自在佛所領天下釋教普通瓦赤喇坦喇達賴喇嘛)”에 책봉하였다. 이로써 달라이라마의 칭호는 정식으로 확정되었다.

이 활불제도는 계속 이어져 현재까지 14대째 내려오고 있다.

사원의 조직

강촌(康村)

기층조직으로 한 명 혹은 여러 명의 승려로 일반사무를 보며 길근(吉根:장로)이 모든 것을 관장한다.

찰창(紮倉:僧學院의 의미)

강촌의 상위조직으로 몇 개의 강촌으로 구성되며 감포(堪布)가 회장이며 격서(格西:종교박사)학위를 취득하고 티벳 정부가 임명한다 마여야만 될 수 있다.

납길(拉吉)

최고 관리기구로 위원회에 해당하는데 모든 찰창(紮倉)으로 구성되며 각 찰창의 감포가 모두 참석하며 전 사원의 경제나 종교사무를 담당한다.

라마승의 구성

대인사무승: 민간의 생로병사 및 길흉화복에 관한 일을 맡아 하는 승려.

학승집단: 전적으로 공부하며 상층간부가 되는 승려로 일반적으로 라마는 이들을 지칭함.

공예승: 각종 기술적인 업무, 의학, 역산(曆算) 등의 업무를 보는 승려.

잡역승 및 병승: 잡무 및 비상시의 군사업무

집사승: 행정을 맡는 승려.

활 불: 달라이라마 및 반선과 그 외 활불로 사원의 영도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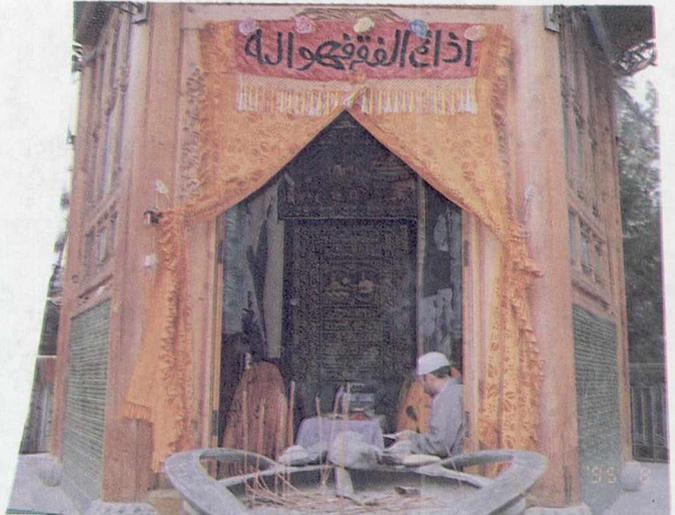
라마교가 티벳 민족에게 끼치는 영향

라마교는 티벳의 정치, 경제, 사회의 중심이다. 라마교 승려의 결혼금지 제도로 말미암아 해방 전 티벳 인구의 10%에 해당하는 12만여 명이 결혼을 하지 않아 인구와 노동력이 감소되기도 하였다.

라마교는 또한 세계관에 있어서 민중으로 하여금 종교 숙명론에 빠지게 하였다.

일생에 한 번 해야만 하는 성지순례 열풍으로, 멀리 윈난(雲南), 쓰촨(四川), 칭하이(青海), 간슈(甘肅)에 흩어져 있는 불교도들이 전 재산을 정리하여 험로를 무릅쓰고 수천 리 밖에 있는 성지 '라사'(拉薩:신령한 땅)를 찾는다. 이들은 부처에 대한 경건함을 표하기 위해서 한 걸음 움직일 때마다 고두례를 행하는데, 먼 길을 걸식하며 오다가 라사에 오기도 전에 길거리에 쓰러져 죽는 사람도 적지 않다고 한다.

음식 중에 물고기, 새우, 닭과 계란을 먹지 않는다. 활불이나 라마는 식사 전에 경을 외우며 일반 민중은 부처에게 공양하기 위해 식사 전에 식탁에 술이나 차를 세 방울 떨어뜨린다.



회교도들은 중국 전역에 퍼져 있다. 이들은 각 지역마다 청진사라는 회교사원을 중심으로 삶과 밀접한 신앙생활을 영위해가고 있다.

회교

중국의 회교

통계를 통해서 본 중국의 회교도는 중국 인구 중 10%에 달하는 9500만 명이다.)

그리고 중국 56개 민족 중 위구르, 카자크, 키르키즈, 우즈벡, 타타르, 싸라, 둥샹, 바오안, 후이, 타지크족 등 10개 민족이 신봉하고 있다. 이 외에도 회교도는 중국 전역에 퍼져 있다.

회교의 중국 전래는 581~787년 등 여러 설이 있지만 적어도 안록산의 난 이후에 유입된 것이 확실하다.

회교의 특징

민족심과 단결심이 강한데 이것은 종교적 응집력이 강하다는 의미와 같다. 민족적 자부심이 때로는 지나쳐 역반응이 생기기도 한다. 회교를 믿는 이들이 전국적으로 흩어져 살면서도 회교사원을 중심으로 집단 공동체 생활을 통해 강한 결집력과 동질감을 갖고 있다. 또한 종족과 민족의 구분 없이 '알라'가 하나님이라고 고백만 하면 곧 공동의 신앙을 소유

한 것으로 인정하여 강한 유대감을 보이고 많은 사람을 포용한다.

회교의 6대 신앙

알라: '전능하고 위대한' 유일신

경전: 알라가 내려준 114부의 경전으로 그 중에 모세오경,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서, 다윗의 시편, 모하메드의 코란이 있음.

천사: 코란에 출현하고 알라가 빛으로 창조했다는 존재.

사자(使者): 알라가 315명의 사도를 파견하였는데 코란에 28명이 출현한다. 그 중 가장 고귀한 여섯 사자로 아담, 노아, 모세, 아브라함, 예수, 모하메드 등이 있다.

말일: 말일 신앙의 내용 중에는 사후 세계와 심판 및 부활이 있다.

예정: 범사에 알라의 예정이 있다.

1) 穆瓦法格·貝尼·穆爾加 著, 簡明伊斯蘭世界百科全書(北京:旅遊教育出版社, 1991), p.12. 현재 또 다른 문헌에는 중국의 회교도를 1600여만명으로 여기고 있다. 秦惠彬, 中國的伊斯蘭教(北京:商務印書館, 1991), p.1. 이 점에 대해 정확한 자료는 보다 자료가 보강된 이후에 깊이 있는 토론이 필요하다.

회교도의 5대 제도

념(念)

회교도가 매일 소리내어 읽어야 하는 교리이다. “알라는 유일무이한 신이고 모하메드는 알라의 사자이다.”

예(禮)

매일 다섯차례의 예배를 드려야 한다. 즉 날이 밝아오는 때, 오후 1시에서 3시 사이, 오후 5시에서 6시 사이, 황혼 무렵, 밤이 된 후부터 새벽 사이 등이다. 모든 남자들은 금요일 오후 집회 때 청진사(清真寺:중국에 있는 회교 사원. 종교활동뿐 아니라 주민들의 회의나 종교학교의 수업이 진행되는 장소이다)에 가서 예배를 드려야 한다. 또한 매년 세 차례의 큰 예배인 개재(開齋)와 재생절(宰牲節), 회례(回禮)가 있다.

신도는 예배 전 반드시 자신의 죄과를 정결례를 통해서 씻어야 한다. 정결례는 소정(小淨)과 대정(大淨)이 있다. 대정은 전신을, 소정은 손발과 얼굴을 씻는 것으로 물이 없으면 흙으로 대신할 수 있다. 예배 때는 반드시 차렷, 찬송, 경례, 큰 절, 꿇어앉기 등의 동작이 행해진다. 예를 들어 ‘참되신 주(眞主)는 지극히 크시도다’라고 할 때는 남자는 귀 옆까지, 여자는 어깨까지 손을 들어 주에 대한 존경을 표현해야 한다. 아울러 ‘참되신 주는 위대하시고 만물 위에 뛰어나시다’는 것을 암시해야 한다.

예배자는 마음 속에서 탐욕을 완전히 제거하고 주님만 계시게 해야 한다. 만물이 눈앞에 있다 하여도 손을 내밀어 잡으려고 해서는 안 되며, 오히려 손을 들어 주님께 경배해야 한다. 이것은 사람이 완전히 신앞에 엎드려서 알라의 종이 된다는 의미이다.

재(齋)

환자, 여행자, 임신부와 젖먹이는 부녀를 제외한 모든 회교도는 이슬람력 9월 한 달 동안 여명부터 일몰까지 음식과 성생활을 할 수 없다. 다만 주님께만 경배하고 속념을 끊는 것으로 알라에게 참회와 속죄를 한다. 회교도들

은 이 재를 통해 굶주림과 목마름을 참고 금욕을 이겨내어 주를 경외하고 율법을 지키는 사람이 되려는 것이다.

과(課)

모든 회교도의 봉헌으로, 규정에 따라 십일조(1/10)나 사십일조(1/40)를 청진사에 내야 한다.

조(朝)

건강한 사람은 일생에 한 차례 이상 성지순례를 가야 하는데, 대개 이슬람력 12월 상순에 거행한다. 성지순례는 카바(Ka'ba: 아담이 천상의 원형에 따라 지었다는 이슬람교 성지)에 가서 그 가운데 있는 흑석을 만지고 입맞추는 것과, 모하메드가 갔었다는 작은 산에 가는 것을 포함한다. 성지순례의 마지막 날에는 소나 양, 낙타 등을 잡고 경축하는데 이로써 각지의 무슬림들을 단결시키고 그들의 신념을 강화시킨다.

이외에도 회교도들은 죽은 동물을 만지거나 피, 돼지고기를 먹는 것을 절대 금한다.

회교 절기

개재절(開齋節)

매년 9월 초승달이 뜰 때부터 다음 초승달까지로, 이 절기가 끝나 나면 청진사에 모여 예배하며 서로 방문하여 경축하고 유향(油香)이란 음식을 나눈다.

재생절(宰牲節)

아브라함 선지자가 꿈에 나타난 알라의 지시에 따라 아들 이스마엘을 바치려고 했을 때 신이 이스마엘 대신 양을 준비해주신 것을 감사하여 양을 잡아 기념하는 절기로, 개재절 70일 후인 12월 10일에 거행한다. 이 때 회교도는 우양 등의 생축을 청진사에 끌고 가서 잡아 자신의 몫을 조금 남긴 후 사제에게 주고, 나머지는 친지나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 준다.

성기절(聖紀節)

이슬람력 3월 12일로 모하메드 탄신 기념일.

회교의 종파

수니파

회교 정통파로 또 합내비파(哈乃斐派), 사비의파(沙斐儀派), 마립극파(馬立克派)와 파한백리파(派罕百里派)로 나뉜다. 중국의 회족과 등샹, 싸라, 바오안족 등은 모두 합내비파를 신봉한다.

의선파(依禪派)

아라비아에서 시작된 종파로 7세기 전후에 생겨났다. 중국의 신장 위구르 자치구 외에도 아라비아 각국, 터키, 이란, 파키스탄, 인도, 아프가니스탄, 우즈베키스탄 일대에 신도들이 있다. '의선'이란 바른 길로 이끈다는 의미의 아라비아 말이다.

인생의 모든 것을 후다(戶達:알라)의 은총으로 본다. 빈부귀천은 주가 정하는 것이니 현재에 고생하더라도 경전을 소리내어 읽고 예배를 드리며 전심으로 후다에게 접근하면, 금생에 의식(衣食)이 해결되고 사후에 천당에 갈 수 있다는 종교신념을 갖고 있다. 또 살생을 금하여 살생을 회교 성지에 불을 지르는 것보다 나쁘게 본다.

시아파

중국 내에 거의 없다.

회교의 영향

회교는 회교도들의 모든 생활과 문화의 중심이므로, 회교를 떠나서는 살 수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회교도는 태어나면서부터 이름짓고, 할례받고, 교리와 교규(教規), 교법(教法), 학교에 다니는 것, 청진사에서 예배하는 것 등 어느 하나 자기에게는 선택 권한이 없다.

예를 들어 위구르 지역에는 종교법정이 있어서 지도자가 민사 및 형사사건을 심판한다. 예를 들어 여자가 얼굴을 수건으로 가리지 않고 밖에 나오면 채찍으로 때린다. 이밖에 각종 상거래, 결혼 및 이혼, 임대나 매매계약, 성지순례 증명서 등에는 종교 지도자의 인장이 있어야 효력이 발생한다. 이 증서를 발급



중국의 회교도들. 생김새가 중동의 그들과 비슷하다.

할 때마다 종교 지도자는 수수료를 거두었다. 농민의 경우 매년 추수의 십일조를, 목축업자나 소상인 및 수공업자의 경우는 사십일조(1/40), 절기 때 잡는 양가죽, 양머리, 양내장 등을 봉헌해야 한다.

맺음말

회교와 라마교는 1949년 신중국 건립 이후 대약진 및 문화대혁명을 거치는 동안 몇 차례의 극심한 탄압을 겪었다. 해방 직후에는 백화제방, 개혁개방 시기 등을 거치면서 상대적으로 종교적 자유가 주어지기도 하였다. 그렇다고는 해도 그들이 해방 전 종교생활의 상당 부분을 잃어버린 것은 사실이다.

다만 지금도 그들의 각종 종교 활동들이 본질적으로 내적, 외적으로 존재한다고 보아야 하며, 또 자유시장 개혁정책하에서 부단히 이전의 종교생활을 회복해 가는 것으로 보인다. 지금까지도 종교지도자들이 회교와 라마교를 신봉하는 소수민족들의 정신적인 지도자로 남아 있다. 인도에 망명해 있는 달라이라마가 그 극명한 예이다.

김한성/ 인천 남동외국인교회 담임 선교사

특정 미신 조장하지 않는 한 중국 정부도 종교 규제 완화

지금 중국에서는 기독교만 번창하는 것이 아니다. 서민들은 종교의식을 그들의 일상 생활에서 부활시키고 있다. 문화혁명 때 파괴되었다가 최근 재건된 불교 사원들은 신도들이 태우는 향 냄새로 가득하다.

중국 지도자들은 현재 보이는 이러한 종교적 열기에 당황하는 듯하다. 그들은 여전히 '사회주의 문명' 건설을 외치고 있다. 그러나 중국 정부가 표방하는 순수 마르크스주의는 자유시장 개혁으로 인해 점차 퇴색해가고 있다. 경제개방에 따라 서민들은 정신적 위안을 갈구하게 되었고 그 위안을 찾는 방법도 점점 자유로워지고 있다. 중국 정부도 특정 미신을 조장하지 않는 한 전통 종교들을 후원하기 시작했다.

중국 정부의 종교 탄압 정책이 누그러진 것은 회교를 신봉하는 10개 소수민족 거주지인 중국 서부에서 발생한 분쟁이 계기가 된 듯 하다. 닝시아(寧夏) 회족 자치구에서는 '93년에 주요 회교사원의 소유권을 둘러싼 파벌 싸움으로 약 50명이 사망했다. 중국군은 가까스로 사태를 진압하고 5천여 명의 총기류를 압수했다.

최근 중국 사회과학원은 회교도 폭동에 관한 보고서에서 정부는 반(反) 이슬람적인 인상을 주지 않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결론지었고, 중국 정부는 이를 실천에 옮기고 있다. 작년엔 회교도 3천 명의 성지순례 비용을 부담하기도 했다.

그러나 중국 정부 관리들은 특히 1천5백만 위구르인들이 옛 동(東) 투르키스탄 공화국 재건을 추진하고 있는 신장성에서 이슬람 자치권 요구가 격화될 것을 우려하고 있다.

신장성 바로 남쪽 티벳 불교도들의 경우, 독립운동과 연결되지만 않는다면 얼마든지 신앙생활이 허용돼가고 있다. 티벳 수도원의 승려 수를 제한하는 정부 훈령은 조롱거리가 되기 일쑤다. 베이징의 중국 티벳학(藏學) 연구센터의 한 연구원은, "수용 인원이 20명으로 제한된 수도원에 대개 40-50명의 승려들이 있지만 정부로서도 속수무책"이라면서, 창더우(昌都) 지역의 한 수도원에는 승려가 1천 명이나 된다고 전했다.

한편 중국 정부는 중국인의 티벳 유입을 계속 권장하는 동시에 수도 라사의 유서 깊은 건물들을 철거하는 등 티벳 문화를 회색시키고 있다. 요즘 라사 강을 건너는 순례자들은 달라이라마가 전에 기거하던 포탈라 궁의 조망이 물탱크탑에 가려져 있는 것을 보게 된다. 대로에는 중국 음식점과 가라오케 바들이 즐비하다. 티벳을 자주 방문하는 한 서방 외교관은 "이제 라사에는 돈에 대한 욕망이 판을 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글은 「Newsweek」 1994년 5월 23일자에 실린 "What to Make of the Mullahs and Monks?" 를 발췌, 정리한 것이다.

미신 열풍

강성광



중국의 농촌 가정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귀신을 모시는 사당. 명절이 되면 각종 글귀를 적어 놓고 복을 빈다.

점괘 관상, 사주 등을 보는 것은 중국에서 발원한 전통적인 중국문화이다. 이러한 문화가 사회주의의 강력한 회오리 바람 속에 사히 자취를 감추는가 했는데 근래 몇 년 사이에 ‘뽀’이 일고 있다. 이것은 빠른 변혁 가운데 처한 중국인의 불안을 반영한다고 볼 수 있다.

개혁과 개방의 빠른 물결, 시장 경제로의 빠른 사회변화는 순식간에 많은 것을 변하게 했다. 어떤 투기자는 순식간에 백만장자가 되기도 하고 또 눈깜짝할 사이에 죄수가 되기도 했다.

어떤 처녀는 생각지도 않게 노인에게 시집가게 되었고, 금실이 좋던 부부가 갑자기 이혼하게 되는 등 가치관과 도덕은 꺾대 없이

흔들리고 있다.

각처에 도사리고 있는 위협으로 사람들은 정신적, 심리적 균형을 상실하고 있으며, 장래를 예측할 수 없으므로 불안해 하고 있다.

이런 상황은 사람들로 하여금 팔자나 운명의 소관에 관심을 갖게 한다.

그래서 이번에는 중국에 급속히 만연하고 있는 미신의 열풍과 그 배경이 되는 사회 심리, 그리고 각종 그릇된 미신열의 허구, 또한 거기에 수많은 중국인이 속고 있는 여러 실례들을 살펴보고자다.

각종 역술가들의 활동

현재 중국에는 각종 점, 역술, 관상열이 몰아치고 있다. 그 표현 방식도 특별할 뿐 아니라 내용도 나라 일, 가정 일 등 천하의 모든 일이 포함되어 있다.

엄격한 정치, 문화 중심지인 베이징(北京)에 근래 몇 년 사이에 기공(氣功), 역경(易經: 주역을 가리키는 것으로 제반의 점치는 행

위), 상술(相術: 관상, 보는 기술)에 정통하다는 소위 '반신반무(半神半巫: 절반은 신에 가깝고 절반은 무당에 가깝다)'하다는 '고인'(高人)이 적지 않게 출현했다. 그들은 국가의 운명을 점치기도 하는데, 예를 들어 등소평 사후의 국정, 중국 공산당 고위층의 갈등, 개혁과 개방의 전망 등을 논하기도 한다.

심지어 베이징의 국가 중앙기구 등에도 역술하는 자가 있다고 한다. 또한 광둥성(廣東省) 지역의 지방관원들도 홍콩에 오면 홍콩의 유명한 각종 귀신에게 절하며 왕대선(王大仙) 신에게 참배를 한다. 그리고 몇 년 전의 페르시아 만의 전쟁, 구 소련의 붕괴, 중미관계 등도 역술가들의 논쟁 대상이 되었다.

엄격한 정치 도시인 베이징에서 이러한 역술이 크게 성행할 정도

니, 전국의 각 지방에서 더욱더 천태만상의 모습을 보이는 것은 말할나위도 없다. 쓰촨성(四川省) 충칭(重慶)시에는 '점술가 거리'가 있고 후난성(湖南省)의 지양현(即陽縣)에는 전국에서도 유명한 '국제점술유격대(國際占術遊擊隊)'가 있다. 지양현의 지우공차오진(九公橋鎮 허예촌(荷葉村)이라는 마을은 전체 인구가 1,900명 정도 되는데 그중 점술업에 종사하는 사람이 250여 명이나 된다. 10세부터 70세까지의 남녀노소로 구성된 이 '점술유격대'는 전국에 안 가는 곳이 없고 심지어 홍콩, 마카오, 대만 및 동남아 여러 나라에까지 출장을 다닌다.

그들은 전국의 유명 관광지에 장사진을 이루고 있고 우한(武漢), 청두(成都), 쿤밍(昆明), 지난(濟南) 등 관광 명소에 자리를 잡고 앉아 관상 및 역술 행위를 한



돈을 많이 벌게 해 준다고 중국인들이 믿는 우상(관우)이 광저우의 한 음식점에 세워져 있다.



장님과 사주팔자. 거리에서 장님이 점괘 및 운수를 봐주고 돈을 받는다. 개방화에 따른 불안한 서민들의 심리를 이용한 점술이 요즘 중국에서 활기를 띠고 있다.

다. 점괘 한 번 보는 데 40~50원(한화 4천원~5천원) 정도이고, 많이 낼수록 점괘가 좋아지기도 한다.

이런 역술이나 점술에 빠지거나 종사하는 사람들 중에는 전과 달리 소위 지식인들도 많아, 그들 중에는 심리학자나 천문지리학자도 있고 문학계 인사도 있다. 그중 최근 중국의 유명한 사회소설 「폐도(廢都)」의 저자인 지아핑아오(賈平凹)는 역술이 수준급이라고 한다.

어떤 자들은 점괘나 역술 실력을 로비의 수단으로 활용하기도 한다. 베이징의 유명한 한 역술가는 정부의 고관들과 관계를 잘 맺어 친척이나 친구들을 위해 여러

이권을 얻어내기도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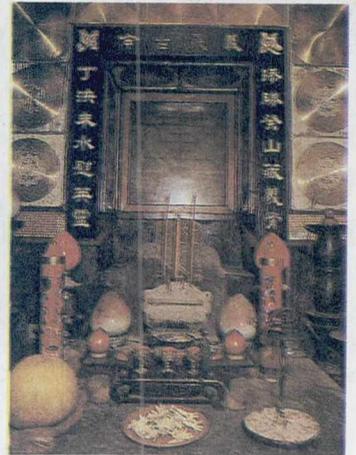
그리고 각종 운수, 점, 역술에 관한 책들도 인기가 많아 이런 책을 발간하는 출판사들이 떼돈을 벌기도 한다. 중국의 어떤 책방이든지 관상학, 운수, 점괘 등을 보는 수많은 종류의 책을 구경할 수 있고, 또한 잡지의 많은 부분이 이러한 역술이나 운수의 내용으로 채워져 있다.

여러 형태의 미신 및 우상숭배 현상

정부 통계 자료에 의하면 중국 농촌에는 180만 명의 무당이 있다. 또한 중국의 거의 전지역에 우상을 섬기는 불이 일어나고 있다. 특히 광둥성을 비롯한 남방지역에서는 개인이 경영하는 식당, 가게의 한 모퉁이나 중앙에 여러 형태의 우상 신단을 만들어 놓은 것을 쉽게 볼 수 있다. 이런 모습은 근래 들어 화둥지역이나 심지어 베이징에서도 자주 볼 수 있다.

중국 유명 관광지의 절 같은 곳에 가보면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수많은 사람이 향대를 흔들며 절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러한 행위는 이들이 불교 신자로서 신앙을 갖고 있다기보다는 막연하게 복을 비는 샤머니즘적인 행동이다.

1993년은 중국에서 모택동 불이 크게 일어난 해이다. 중국을 여행해 본 사람은 택시나 자동차 운전석 앞에 걸어 놓은 모택동 사진을 보았을 것이다. 지금도 이러한 현상은 계속되고 있으며 비단 자동차뿐만 아니라 어떤 곳에서도 흔히 볼 수 있다. 이러한 현상의 원인은 모택동 사진을 걸어 놓고 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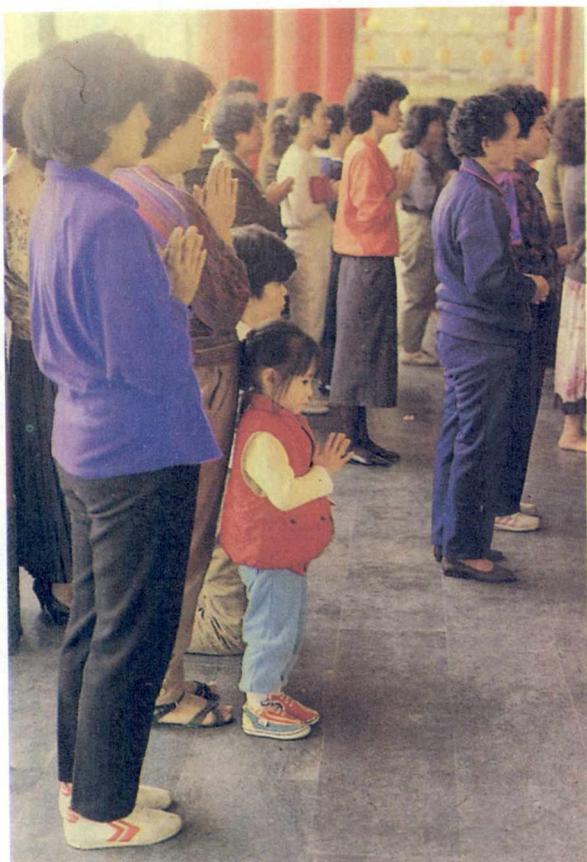


니는 상당수의 사람들이 모택동을 수호신이나 기타 자기에게 복을 주는 신으로 생각하기 때문이다.

현재 중국에서 돈을 아주 잘 버는 인쇄업이 있는데 바로 '귀폐'(鬼幣: 귀신이나 죽은 사람의 혼을 위해 태워서 바치는 가짜 지폐)를 찍어내는 사업이다. 중국에는 매년 '귀신절기'(鬼神節氣: 8월 15일경)가 되면 죽은 부모에게 귀폐를 태워 보내는 관습이 있다. 그러나 요즘 가짜 중국 돈을 태우는 것은 구식이 되었다. 외국환

귀신돈 즉 달러, 프랑, 파운드 등을 태우는 것이 유행이다.

이런 류의 귀폐는 인쇄가 정밀해 얼핏 보면 진위(眞僞)가 구별이 안 될 정도이다. 부모를 여윈 한 중년 부인은 돌아가신 부모에게 200만 달러의 귀폐를 태워 보내며 "아버지, 어머니 온갖 고생을 다하며 우리들을 기르느라 생전에 호강한 번 못하고 돌아가셨는데, 제가 이번에 달러를 보내 드리니 외국에 가서서 관광이나 원 없이 하세요" 라고 말하며 흐느꼈다고 한다.



옛부터 내려오는 미신숭배는 남녀노소 상관없이 행해진다.

그리고 죽은 혼을 숭배하는 어떤 사람들은 달리 귀신돈을 태워 보내면서 외국에 나가 영어를 못해 길을 잃어버리지 말라고 영어 회화책 몇 권도 같이 태워 저승의 부모에게 보내기도 한다.

점술, 무당 및 미신의 추종으로 인한 각종 피해 사례

전국적으로 퍼져 있는 180만 무당들로 인해 많은 중국인이 피해를 입고 있다. 이들은 전국 20여 개 성 및 자치구의 농촌지역에서 주로 활동하는데, 이들 중 71%가 문맹 및 반문맹이고, 심지어 60% 이상이 정신질환 상태에 있다.

이들의 '병 고치는 수단'은 소위 부적, 옷을 태움, 귀신을 쫓음, 안찰 등인데 이들이 이런 행위를 하는 동안 남자 무당의 60%는 여자 환자에게 간음 행위를 한다. 그리고 10% 정도는 치사 혹은 과실치사의 살인 사건에 관련된 적도 있다.

그런데 이런 무당들의 활동이 이제는 도시에서도 크게 만연하고 있다. 1993년 여름 한 도시 처녀가 광고를 보고 무의(巫醫: 각종 미신 행위로 병을 고치는 사람)를 찾아 갔다. 그 남자 무당은 처녀에게 아랫배 부분에 암 흔적이 있다며 작은 방으로 데리고 들어가 암 귀신을 쫓아 낸다면서 처녀를 강간했다.

후베이성(湖北省) 정신병원의 한 병동에 50여 명의 남녀 환자가 있는데 그 중 32명이 전에 무의(무당)를 찾아가 치료를 받은 적이 있었다고 한다. 이러한 환자 중에는 농민, 통역자, 교사 그리고 정부의 고위 간부도 있다.

중국에서 미신은 큰 시장성을 가지고 있다. 후베이성 남장현의 공안국에 잡힌 한 남자 무당은 해괴한 무당 행위를 통해 정신병자를 고친다고 병자와 가족들을 여러 번 속여 2,000원(일반 농민 3명의 1년 총수입)을 벌었다가 최교량을 찼다.

그리고 얼마 전 베이징시 교외 지역의 한 주민이 소위 '산명선생'(算命先生: 역술가)이라는 사람에게 운수를 봤는데, 운수가 나쁘다는 말에 액땀한다는 명목으로 1,700원을 사기당했다. 나중에 알고 보니 그는 안후이성에서 돈

벌려 온 농민 노동자로, 일자리도 못찾고 해마다가 피를 내어 미리 사람들의 동정을 알아본 다음 이런 일을 벌였다고 한다.

또 다른 웃지 못할 큰 사건은 쓰촨성 완시엔(萬縣)시 지우즈(九池)향 치엔훤(千活)촌의 한 살짜리 '신동(神童)' 사건이다. 아주 빈곤한 이 시골 동네에 1994년 봄 꽃이 필 무렵 갑자기 이상한 열기가 일어났다. 그것은 1993년 7월 한 부부 사이에 태어난 탕추안허(唐傳河)라는 남자 아이가 하늘에서 내려온 '신동'이라는 소문이였다. 누구든지 그 어린 고사리 같은 손을 만지기만 하면 무슨 병이든지 낫는다는 것이었다. 처음에는 일부 노인들이 탕씨 집을 방문하여 어린 아이의 손을 만졌다. 그러나 점점 소문이 퍼져 매일 수십 명씩 찾아왔고, 심지어는 후베이 사람들도 소문을 듣고 찾아와 수백미터씩 줄을 서서 기다리는 현상까지 벌어졌다. 이로 인해 전에는 누구 하나 거들떠 보지 않던 초라한 시골집에 기이한 현상이 일어났다.

몸이 허약한 사람, 중병환자들이 들것에 실려 오기도 하고, 당일 기다리다 '신동'의 손을 접촉하지 못한 사람들은 아예 근처 삼림에서 노숙하고 그 이튿날 새벽에 '신동'의 집으로 가기도 했다. 나중에는 수백 명씩 몰려와서 산골의 초라한 집에 머물며 병을 치료받았다. 어떤 사람들은 멀리 떨어진 다른 시 또는 현에서 찾아왔고, 심지어는 그 어린 아이의 목욕물, 소변까지도 '성수(聖水)'라고 하며 서로 경쟁적으로 마셔버렸다.

더욱 웃지 못할 일은 대변을 서로 가져 가려고 싸우기도 하고, 미처 집에 들어가지 못한 사람들은 집 앞의 나무 껍질과 대나무등을 '성물(聖物)'이라고 하며 벗겨가기도 했다. 오는 사람들은 각자 몇 천, 몇 원, 몇 십원씩 내기도 하여 하루만에 1,300원의 매상을 올리기도 했다.

그러나 이렇게 매일 20시간 동안 신동 노릇을 하던 한 살도 안된 아기는 그만 병이나 젖도 먹지 않고 하루 종일 울기만 했다. 그래서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돌아왔는데도 사람들이 다시 몰려와 북새통을 이루었다.

나중에 공안국에서 이 신동 사건을 조사한 바에 의하면 근처 한촌의 무지한 미신 숭배자인 덩(鄧)이라는 사람이 치엔훤에 와서, 이 집의 어린애는 예수가 다시 태어난 것이기 때문에 나중에 큰 복과 부가 있을 것이고, 만약 어린애의 손을 한 번 만지기만 하면 모든 재난이 예방되며, 만병을 치료받을 수 있다는 허무 맹랑한 말을 했는데, 그 말이 사건의 근원이 된 것이라고 한다. 그 밖에도 수많은 해괴한 미신의 폐해가 중국의 각 지역에서 일어나고 있다.

본래 중국이 공산화되기 전에 각종 미신 및 우상 숭배 현상이 심각했었다. 그러나 공산화된 후 특히 1960~1970년의 문화혁명 기간에 각종 무당, 역술 등 미신의 형태가 철저하게 타파되었다. 이때 기독교도 그들 나름대로 뿌리채 없애려고 꾀박했었다.

그러나 기독교는 중국이 1978년 이래 개방화되면서 정부 당국

의 정치적 이용과 많은 기독교인을 무마하기 위해 정부의 통제와 제한된 범위 안에서 다시 교회 문을 열게 했다.

그러나 현재 중국에서 무섭게 만연하는 각종 우상 숭배의 미신 행위는 정부의 법률적인 완화 정책 때문이 아니라 사회의 개방과 더불어 중국인 본래의 전통 문화의 흐름이 다시 거세게 표출되는 것이다.

사실 중국이 개방화되면서 기독교가 빨리 부흥하게 된 가장 큰 이유는 중국 본래의 각종 우상 숭배와 미신이 공산당으로 인해 많이 사라졌기 때문이다.

그러나 현재 중국에는 수천 만 명의 기공을 하는 사람들과 여러 형태의 미신을 추종하거나 숭배하는 수억의 사람들이 생겨나고 있다. 이것은 중국이 개방화되면서 부딪친 심각한 배금주의 현상으로 중국인들이 정신적, 영적으로 기갈 상태임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런 영적, 정신적 오염 현상의 한 결과로 중국에는 현재 1,300만 명의 정신이상자들이 있다. 이러한 이들의 정신적, 영적 오염을 막고 올바른 가치관과 세계관을 부여할 수 있는 것은 복음밖에 없다.

참고자료

- 明報, 94. 1. 3 "중국의 미신" 특별기사
- 明報, 94. 10. 15
- 明報, 94. 8. 16

변화 속에 일고 있는 종교의 새물결

펑야오(彭耀)

이 글은 중국사회과학원에서 발간하는 「世界宗教研究(세계종교연구)」지에 실린 소논문이다. 종교학자인 필자는 사회 전환기의 중국 종교계에 나타나는 여러 가지 종교발전 현상을 분석하고 원인과 장래를 예측하고 있다. 그는 중국 종교가 일정 기간 중에 급격히 증가 성장을 할지라도 장기적으로 보면 결국 하락할 것이라는 결론을 내리고 있다. 또한 종교는 반드시 사회주의에 적응해야 하고 국가법률, 법규와 방침에 적응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독자들은 이 글을 통해 사회주의 관점에서 보는 현재의 중국 종교 추세를 읽을 수 있을 것이다. <편집자 주>

근래

십수 년간 중국 사회에는 근본적인 변화가 발생했다. 수십 년이 하루 같던 전통사회의 안정 행보가 깨지고 사회는 급격하게 현대화로 접어들었다. 이에 따라 일종의 사회적 존재의 반영인 종교도 끊임없이 변화 발전하고 있다.

문화혁명 시기에 종교는 극도로 억압받아 가장 낮은 지위에 처했었다. 삼중전회(三中全會) 이후, 중앙위원회는 19호 문건을 발표하여 '종교신앙의 자유' 정책을 다시 회복시켰다. 그 후 한동안 중국 종교는 신속한 회복과 발전으로 신도수의 맹렬한 증가추세를 보였다. 이러한 '종교열기'는 사회적으로 큰 반향을 불러 일으키기도 했다. 그러나 이러한 '열기'가 결코 실질적인 것은 아니었다. 억압 받은 후에 나타나는 순간적인 현상 중의 하나에 지나지 않는다. 이러한 반동 현상은 어느 정도 지속되다가 열기가 하락되면 정상으로 회복될 것이다.

오늘날 개혁개방 이후 새로운 사회적 배경에서 대략적인 중국 종교 현황은 다음과 같다.

▷신도 수의 증가는 점차 정상적인 발전 추세를 나타내고 있다.

▷성직자의 수와 질적 수준이 비록 실질적인 요구에 만족할만하지는 않다 하더라도 몇 년 전과 비교하면 많은 향상이 있다.

▷종교계와 사회 협력이 강화되고 있다. 이것은 정치적으로 정부와 종교 이론계가 단결, 협력하고 있으며 신앙적으로 서로 존중하고 있다는 것이다.

중국 종교의 발전은 총체적으로 정상적이고 평온하다고 말할 수 있다. 그러나 새롭게 나타나는 사회와 경제 상황도 종교에 대해 어느 정도 구체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다. 즉 근래 들어 새로운 배경의 영향을 받아 중국 종교는 여러 가지 새로운 경향을 나타내고 있다.

종교발전과 경제발전의 양극성 상관 추세

현재 중국의 종교발전과 경제발전의 관계를 총괄적으로 말하자면, 양자간의 상호관계는 불확정적이고 보조가 맞는 것도 아니다. 하지

만 구체적으로 말하면 규율이 완전히 없는 것만도 아니다. 최근 행해진 조사연구에 따르면 종교발전과 그 소재지역의 경제발전은 일종의 '양극성 상관관계'로 보인다.

즉 경제발전 지역과 빈곤지역에서 모두 종교는 신속하게 발전하고 있는 것이다. 예를 들어 장쑤(江蘇), 안후이(安徽), 저장(浙江), 푸지엔(福建)성과 같이 경제가 어느 정도 발달한 지역에서 기독교와 불교의 발전이 비교적 빠르고 신도들의 숫자도 많다.

그 원인은 대부분 빠른 경제 발전이 여러 가지 심리적인 불평등을 야기시키기 때문이다. 다른 사람들은 부자가 되는 데, 자신은 부자가 되지 못하는 상황을 보며 '빨리 부자가 되도록 신의 보살핌을 간구하는' 심리가 생긴다. 반면 부유해진 사람은 자신이 계속해서 순탄하고 내내 평안하도록 신의 보살핌을 간구한다.

또한 빠른 사회변화로 생기는 불안정감 때문에 종교에 귀의하여 심리적 안정을 구한다. 사회전환 과정 중에 나타나는 도덕, 윤리의 실종에 대한 극도의 분노가 종교에서 위안을 구하는 것으로 바뀌는 것이다. 이 모든 것들은 종교를 믿음으로 심리적 평형을 얻으려는 시도이며 모두가 사회 전환에서 야기된 새로운 정신적 요구이다.

이외에 장쑤성 및 허난, 산시성 중부지역 등 낙후된 지역은 경제적으로 빈곤하고 교통도 불편하며, 문화적 수준도 저조하지만 종교는 오히려 빠른 속도로 발전하고 교인 숫자도 많다. 물론 그 원인은 앞에서 말한 것과는 다르다. 너무 가난하여 의료와 약품이 부족하기 때문에 기도도 병을 치료하려는 경우, 아니면 가정이 화목하지 않아 종교 신앙으로 화목하게 하려는 경우, 문화생활의 결핍을 해소하고자 종교문화로 보충을 하려는 경우 등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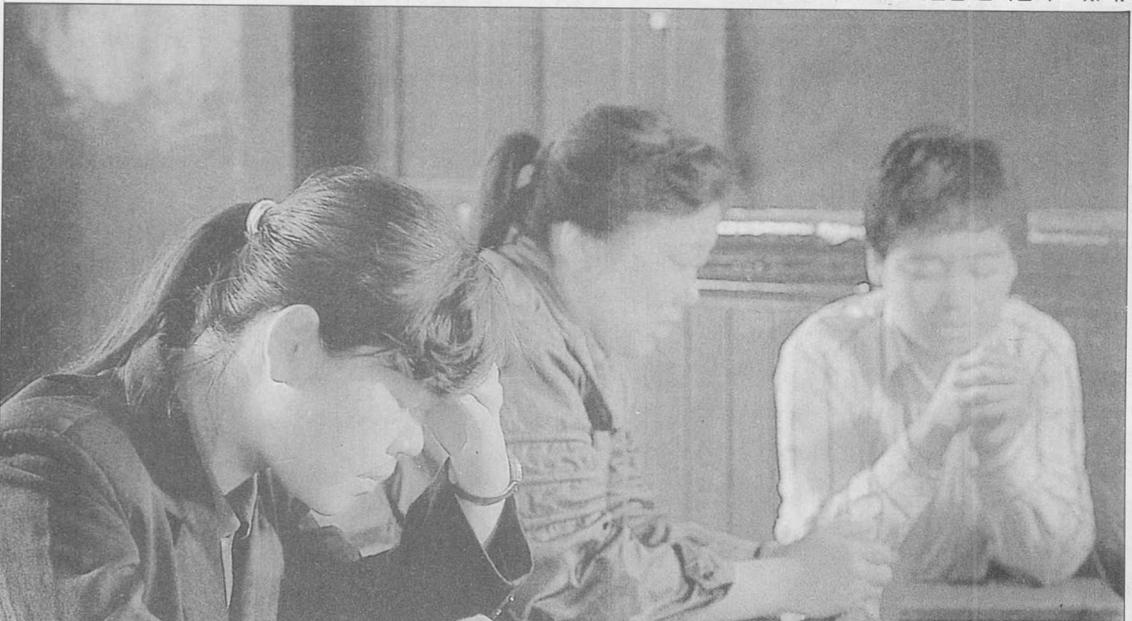
종교 열기의 이러한 상반된 추세는 결코 절대적인 것은 아니다. 다만 최근 몇 년의 연구 가운데 자주 나타나는 일종의 현상일 뿐이다. 국토가 넓고 국민적 정서도 천차만별인 중국에서 종교와 경제발전의 관계는 여러 가지 형태로 나타나므로 일률적이라 볼 수만은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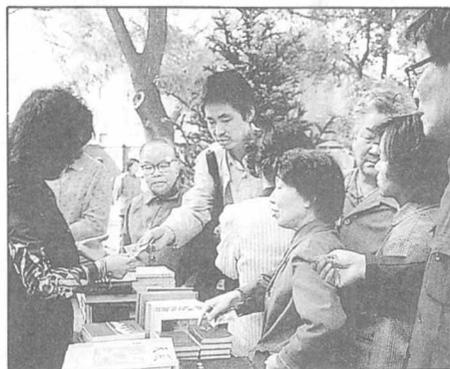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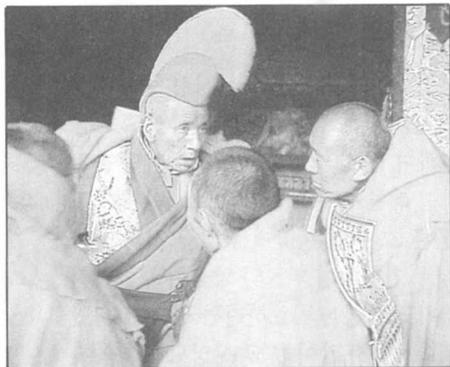
서양종교의 열기 강화 추세

경제 사회의 개혁에 따라 서방문화가 또 한 차례 대규모로 중국에 들어와 중국 사회에 전에 없던 영향을 끼치게 되었다. 서방에서 전래된 물질문화는 음식, 복장, 공업 등이지만, 정신문화 중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종교이다.

전통사회에서 현대사회로 전환되고 있는 오늘날의 중국에서, 특히 젊은이들의 마음 속에서 서방문화는 곧 현대문화의 상징으로 여

서방문화의 대표적 상징으로 여겨지는 기독교는 중국의 젊은이들을 끌어들이고 있다.





상 티베트의 불교승
하 교회에서 성경을 사고 있는 기독교인들

겨지고 있다. 또 그들은 이러한 새로운 문화를 지킬 줄 모르게 추구하고 있다. 이들이 종교를 믿는 것도 이와 같은 현상을 반영하고 있는 것이다. 현대 중국의 5대 종교 중 가장 큰 영향을 미치고 가장 빠르게 발전하고 있는 것이 기독교이다.

기독교 자체의 특징을 보면, 확실히 어느 정도 광범위한 전파의 조건을 가지고 있긴 하지만, 중요한 것은 여전히 사회전환 과정 중 일어난 서방문화 열기의 영향에 기원을 두고 있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현재의 중국 사회에서 기독교는 사람들에게 강력한 흡인력을 가지고 있다. 많은 대학생들이 교회로 발길을 돌리는 이유는 신앙의 필요에 의해서라기 보다는, 전세계에서 가장 광범위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서양종교에 대한 단순한 호기심과 숭배심리에서 나온 것이다. 그러나 좀 더 시간이 지나면 정신적으로 귀의할 가능성도 있다.

중국에서 기독교의 열기 고조 현상과 선명

하게 대비되는 것이 중국에서 생성되고 성장한 종교이다. 그 중 대표적인 종교인 도교(道敎)는 지금까지 크게 성장을 보인 적이 없다. 전통적으로 도교의 영향력이 큰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는, 그 영향력은 계속 약화되는 추세이다. 이것은 물론 도교의 '청정무위(淸靜無爲)'라는 특징과 관련이 있기도 하다. 하지만 오늘날 기독교와 비교하여 도교의 영향력이 갈수록 약화되는 것은 결코 자체적인 원인 때문만은 아니다. 사회가 현대화로 나가면서 전통을 등지는 때라, 시대조류와 부합치 않아 보이는 종교는 현대화를 추구하고 새로운 것에 매력을 느끼는 대중들, 특히 젊은층들에게 어필하기가 쉽지 않다.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서양 종교의 열기 현상은 결코 자체적 특징 때문에 나타나는 것만은 아니며, 전환기 사회 배경의 영향도 크다.

중국 종교의 다원화 경향

전통종교란 일반적으로 중국에 현존하는 5대 종교(기독교, 천주교, 불교, 도교, 회교)를 말한다. 5대 종교는 개혁개방의 새로운 경향하에서 각각 새로운 분화현상을 나타내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주로 ▷새로운 교파의 출현 ▷정규 종교단체의 지도력과 유리된 종교집단의 출현 ▷지하세력 출현 등으로 나타난다.

기독교의 경우 중국 외부에서 침투해 들어온 새로운 교파와 본토에서 자생한 교파가 동시에 출현하고 있으며, 자발적인 집회도 적지 않게 형성되고 있다. 천주교에서도 '지하세력'이 분리되고 불교, 도교에서도 불교애국협회, 도교애국협회와 유리된 사찰, 승려, 도사가 존재하며 이슬람교 중에도 교파 내부 분쟁이 발생하고 있다.

이밖에도 민간종교가 근래에 많이 회생하고 있다. 중국 역사상 각 지역마다 어느 정도는 독특한 민간종교를 가지고 있는데, 현재 5대 종교와의 구별을 위해 통칭 그것을 '민간신앙'이라 부르고 있다. 이러한 민간신앙은 1949년 해방 후 수십 년간에 걸친 '과학제창, 봉건미신 반대'라는 구호로 인해 사라졌었다.

개혁개방의 진척과 경제적 발전에 따라 중국 민간의 전통의식도 점점 희생하며 활약하기 시작했다. 마조(媽祖), 삼일교(三一敎) 등이 대표적인 예인데, 이들은 비록 민간신앙이라 불리우지만, 종교적 색채가 농후하여 특히 종교에 대해 문외한인 사람들에게는 종교와 다를 바 없이 받아들여진다. 이러한 민간신앙이 현재 일부 지역에서 광범위하게 전파되어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특히 강남지역에서 극심하다.

중국 종교에 있어 또 다른 새로운 추세가 나타나고 있는데 바로 해외의 신흥종교이다. 몇 년 전부터 적극적으로 중국에 진입해 들어와 활발히 자리잡고 세력을 발전시켜나가고 있는 이 종교들은, 바하이교(巴哈伊敎), 영선진불교(靈仙眞佛敎), 관음법문(觀音法門), 통일교(統一敎), 신약교회(新約敎會), 여호와증인(耶和華見證會), 문도회(門徒會), 영영교(靈靈敎) 등이다. 신흥종교는 일종의 국제적인 현상으로 대개 외부에서 침투해 들어온다. 다분히 정치적 목적이 있으며, 교리의 해석에 있어서도 자유롭고 신비주의와 실용주의 경향을 띤다.

중국 종교의 세속화 추세

세속화는 일반적으로 신성화(神聖化)와 상대되어 언급된다. 왜냐하면 어떤 종교든 본연적으로 신성과 관련이 있기 때문이다. 수십년 동안 전세계적으로 종교 세속화 현상은 계속 진행되어 왔고, 종교도(宗敎徒)는 신학 교리의 신앙과 열정에 대해 점차 담담해지고 있다. 종교 관념 및 세속사에 대한 태도에도 모두 큰 변화가 나타났다.

중국 종교의 세속화 추세는 근래 수년간 매우 두드러진다. 그것은 주로 종교에 대한 신앙과 열정의 변화상에 표현되지 않고 세속에 대한 태도의 변화에서 나타나고 있다. 사회주의 시장경제로 변화되면서 중국 전통의 경제 구조에도 큰 변화가 나타났다. 때문에 중국인 고유의 농업 중시, 상업 경시(重農輕商) 및 의를 중시하고 이익을 경시하는(重義輕利) 전

통적 관념이 깨어지고, 사람들로 하여금 적극적으로 시장경제 활동에 투신하도록 한다.

사회경제 생활의 변화는 중국 종교도의 경제관념에도 변화를 일으켜, 그들에게 현대사회에서 경제가 사회와 개인생활에서 차지하는 위치를 인식하게 했다. 신도들도 비교적 좋은 경제수입이 있고 빈곤을 영원히 벗어날 수 있기를 희망하며, 이러한 치부(致富)의 소망은 젊은 신도일수록 더욱 강렬하다.

종교와 민족분류 문제

이것은 결코 새로운 문제는 아니지만, 종교문제는 지금도 여전히 민족분류 문제와 얽혀 나타난다. 종교와 민족의 복잡한 교차 상황에서 우리는 구소련과 동구의 교훈을 받아들여야 할 것이다. 국제적으로 민족모순이 끊임없이 나타나고 격화되는 현실에 주목하여, 민족적 차이와 민족적 개성을 지나치게 강조, 강화하는 것은 옳지 않다. 마땅히 공통성과 각 민족의 단결을 강조하여 적극적으로 유도함으로써, 내재되어 있는 재난이 발생하는 것을 피해야 한다.

종교에 대한 사회 여론의 변화

10, 20년 전, 아니 5, 6년 전까지만 해도 중국인 대다수의 종교에 대한 인상은 부정적이었다.

▷종교는 독초이고 유물주의와 사회주의를 반대하는 반동이며

▷신도들은 사상이 낙후되고 당과 맞지 않는 인물이라고 간주하여 질시하고

▷종교는 봉건 미신이며 신도는 우매하고 낙후된 미신을 믿는 사람이라고 여겼다.

과거와 비교해 볼 때 현대 사회에서 종교에 대한 여론은 이미 많이 변화되었다. 종교에 대한 사람들의 태도는 대략 다음과 같다.

▷비록 많은 사람들이 종교를 믿진 않지만 종교에 대해서 예전 같은 적대 혹은 배척의 태도를 나타내지 않는다.

▷종교도들을 자신과 다른 사람으로 보지 않는다.

▷조사에 따르면 심지어 적지 않은 당원 간부

들이 '종교는 현재 중국사회에 실제적으로 유익하다'고 여기고 있다.

사람들의 종교에 대한 이러한 변화는 11회 삼중전회 후 당의 종교정책의 결실이 이미 민심에 깊이 영향을 미쳤다는 것을 설명한다. 또한 종교가 어느 정도 신도들에 대해 도덕적으로 긍정적인 기능을 하고 있음을 설명하고 있다. 동시에 사회 전환기에 몇몇 사회성원들이 급진적 유혹을 받고 있고, 도덕상실 현상을 초래하고 있는 것에 대해 사람들은 반감을 갖고 있으며 선을 추구하고 있다는 것을 반영하고 있다.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중국인들의 열렬한 종교심은 아시아뿐 아니라 전세계적으로 영향을 미쳤다. 하늘을 섬기는 제단인 베이징의 천단(天壇)

사회 전환기 중국 종교에 나타나는 여러가지 새로운 추세에 대한 일반적 추론은 이렇다. 중국 종교는 크게 발전할 것이다. 현실은 어찌될 것인가? 우리는 미래 중국 종교의 발전 궤도에 대해 또 어떻게 예측해야 할 것인가?

간단히 말해, 나는 장래의 중국 종교 발전에 관한 문제는 상반되는 결론이라고 생각한다. 비록 현재 중국에 종교 발전을 추진하는 요소들이 많이 존재하지만 이와 동시에 종교 발전을 억제하고 저해하는 요소들도 존재하고 있기 때문이다. 양자가 서로 맞서고 있어

종교가 앞으로 몇 년 동안에는 발전적 추세를 유지하겠지만, 결코 왕성하지는 않을 것이다 (이 점은 당연히 각 종교마다 다를 것이므로 어떤 종교의 발전은 다른 것들에 비해 훨씬 클 가능성이 있음).

구체적으로 현재 중국 종교발전을 추진하는 요소는 대략 다음과 같다.

- ▷생산력 발전수준의 제한
- ▷과학기술의 상대적 발달 미흡
- ▷사람들의 인식수준의 제한
- ▷서방문화 전입의 영향
- ▷사회생활 중에 존재하는 불공평
- ▷사회전환이 일으키는 심리적 불안정

중국종교의 급속적인 발전 억제와 저해요인은 다음과 같다.

- ▷주체의식 형태(변증유물주의) 및 교육(무신론)과 종교의 충돌
- ▷중국 전통사상, 문화와 외래 종교에 대한 내재적인 배척
- ▷전환기에 이익추구주의의 영향으로 신앙추구에 대해 담당해지는 것
- ▷중국 종교의 내향적, 보수적 성향으로 인한 외부 확충력 결핍

상술한 여러 가지 종교에 대해 유리한 요소와 불리한 요소의 종합작용으로 중국종교는 비록 어느 기간 내에 급격히 증가 성장을 하더라도 장기적으로 볼 때 결국은 다시 하락하여 다시 정상발전 상태로 회복될 것이다. 종교가 장래 어떤 지역에서 어떤 시기에 빠른 속도로 증가, 성장한다 할지라도 전체 상황은 여전히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발전으로 과도한 이상현상이 나타날 리 없다. 물론 이것은 단지 사회상태 발전하에서 중국 종교발전의 궤적에 대한 예측일 뿐이다.

‘적용’은 반드시 거쳐야 할 길

종교는 반드시 사회주의 제도에 적응해야 하고, 중국 정서에 적응해야 하고, 사회 변천에 적응해야 하고, 사회주의 현단계의 국가법률, 법규와 방침 정책에 적응해야 한다. 역사적으로 종교는 각기 다른 사회제도에 적응해왔다.

종교가 다른 사회제도, 계급이익의 변화에 적응하는 것은 종교 자체의 존재와 발전의 객관적 필연이다. 그렇지 않다면 생존할 수 없는 것이다. 종교의 사회에 대한 이러한 적응성은 종교가 재생기능을 가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종교와 사회주의 신시기가 서로 적응하는 것은 다음과 같은 근거가 있다.

▷현 단계의 중국종교는 인민들에게 일종의 사상신앙으로 존재하고 있다.

종교는 다시는 계국주의, 봉건세력 및 착취계급과 관계를 맺지 않는다. 40년 동안 엄격히 정교(政敎)분리 원칙을 이행해 왔다. 종교신앙은 하나의 인식문제인 것이다.

▷사회주의 현 단계의 의식형태는 종교의 존재를 포함하고 있다.

의식형태는 그 차례와 단계의 분류가 있다. 공산주의 세계관은 최고 순서에 속하는데, 이는 사회가 최고 단계까지 발전해야 비로소 달성할 수 있는 것이고, 사회주의 단계에서, 특히 중국은 아직 사회주의 초기 단계에 처한 상황이므로 생산력 발달 상태는 여전히 불충분하다. 사람들의 세계관은 단지 여러 종류의 관념(종교관념을 포함)과 다원화된 세계관을 포함할 수 있을 뿐이다.

▷'적응'은 양방향이다. 협조는 수단이고 '적응'은 목적이다.

현재 당과 정부는 종교신앙 자유정책을 관철하고 있고, 객관적인 규율에 순응하고 있다. 종교신앙의 자유 정책이 현실적으로 변화할 수 있도록 하고, 현 단계의 종교가 객관적 규율에 의거하여 상호적응의 요구를 갖추는 것이 바로 '적응'이 현실로 변하는 것이다. 그러나 적응은 움직이는 과정이며 결코 단번에 성공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새로운 부적응이 출현할 가능성이 있다. 일단은 협조를 거쳐야 다시 적응하는 방향으로 매진할 수 있는 것이다. 이 적응-부적응-재적응의 과정은 장차 부단히 진행되어 갈 것이다.

중국 종교인구 1억 1,000만명

현재 중국의 종교인구는 불교, 회교, 기독교, 천주교, 도교 등에서 대략 1억 1,000만 명으로 아랍되고 있다. 정부측 통계로는 이중 개신교도가 500만 명, 천주교 신도가 360만 명이 것으로 되어 있으나 교회측은 중국 전역에 교회가 4,000여 개, 신도도 신교도 합쳐 6,000만 명을 된다고 주장한다.

베이징시의 경우 7개의 불교사원, 62개의 회교사원, 14개의 천주교 성당, 10여 개의 개신교회에서 집회가 열리고 있다.

정부 통계에 따르면 '92년 현재 불교신부 141명, 회교교수 137명, 신부 70명, 목사 43명이 공식 등록되어 있다. 이들 중 87명이 시(市)·구(區) 등의 하부 행정단위의 대표위원을 겸하고 있다.

중국은 공산주의 정권이 들어서기 전에 이미 종교의 나라여서 1800년에 15만명의 천주교 신도가 있었으며 1870년에는 250여 명의 유럽인 천주교 성직자와 40여 만명의 중국인 성직자 및 신도가 있었다. 개신교의 경우 1850년경에 20여 선교회를 대표해 80여명의 선교사들이 주재했다.

한국일보(1995. 12. 20)

다시 찾은 중국, 다시 만난 양떼들

양육의 절실한 필요에 놓인 중국 교회

메이쥙쯔(梅增知)

최근

중국으로 돌아가 형제자매들을 만나 볼 기회가 있었다. 3주 남짓 되는 기간 동안 여섯 성(省)의 11개 지역을 방문하여 십여 차례 말씀을 전했다. 처음 며칠 동안은 미국에서부터 함께 동행한 몇 명의 형제자매들과 함께 다녔는데 그 중에는 목사도 있었고 장년 및 청년도 있었다. 그들도 각기 다른 장소에서 현지 신도들에게 말씀을 전하거나 간증을 함께 나눌 기회를 가졌다. 우리는 주일예배, 동역자 모임, 청년부 임원 성경공부 모임, 여신도 부흥회, 기도회 등 다양한 집회에 참석하느라 바쁜 일정을 보내었다. 태평양을 사이에 두고 떨어져 있던 지체들이 영적으로 주안에서 서로 교제할 수 있었던 시간이었다. 서로 많은 격려와 도움을 주고 받았다. 오랜 기간 세계 교회의 바깥에서 고립되었던 중국 신도들은 전세계 그리스도의 가정의 일원으로써의 따뜻함을 느낄 수 있었고, 비로소 그들 스스로가 결코 분리될 수 없는 그리스도의 지체임을 경험하였다.

미국으로 이주한 후에도 몇 차례 모국을 방문한 적이 있었지만, 이렇게 많은 형제자매들과 동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었다. 중국의 형제자매들은 늘 신앙서적을 좀 더 많이 얻기를 학수고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들 모두 전력을 다 해서 좀 더 많은 책을 갖고 가기로 작정했다. ‘천여 권이 넘는 크고 작은 책들이 무사히 세관을 통과할 수 있을까?’ 대륙에 들어 가기 전, 이 생각을 할 때마다 도저히 잠을 이룰 수 없었다. 하룻밤에도 몇 번씩 깨어나 간절히 기도했다.

‘주께서 공홀히 여기사 은혜의 손길을 펴시길...’

이렇게 간절히 구하다보니 내가 처음 중국의 지하교회를 섬기던 시절이 떠올랐다. 주님을 향해 나의 죄를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다. 미국으로 이주한 후 이렇게 주님께 매달려 간절히 기도한 것이 언제였던가? 너무나 오랫동안 그들을 위해 기도하지 않았다는 것을 주님께 고백하였다.

과연 주님께서는 우리를 공홀히 여기셨다. 우리 일행은 일이십 개

이 글의 필자는 가정교회 지도자로 사역하다 80년대 말 미국으로 이민, 현재 복음증주협회(C.C.L) 미국지부에서 활동하며 중국으로 들어가 혼련 및 양육사역을 감당하고 있다.

본지는 앞으로 몇 차례에 걸쳐 그의 양육경험기를 실을 예정이다
<편집자주>

는 죽히 되는 짐을 모두 순조롭게 통과시켰다. 우리가 숙소에 도착하자마자 제일 먼저 한 일은 함께 모여 감사의 기도를 드린 것이었다. 여러분도 우리와 함께 이 기쁜 마음을 함께 느낄 수 있으리라 믿는다.

주의 말씀은 꺾이지 않는다.

바울이 매임을 당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은 더욱 널리 전파되었다. 그리고 이 말씀은 오늘날의 중국 교회를 그대로 보여주는 말씀이기도 하다. 신도들이 신앙 때문에 구타 당하고, 벌을 받고(벌금을 내고), 묶임을 당한다(수감됨)는 안타까운 소식을 여러 차례 들었지만, 그리스도의 복음은 갈수록 왕성해지고 믿는 사람들의 숫자가 점점 증가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예수가정’ 형식의 교회들이 근래 들어 북방의 몇몇 지역에서 큰 발전을 이루고 있다. 예수가정의 신도들은 공동체 생활을 하며 함께 예배를 드린다. 최근 정부에서 불도저를 이용, 그들의 집을 밀어 버렸으며 각 지역 예수가정의 가장(책임자를 지칭)들을 체포해갔다. 그러나 복음의 사역은 불도저로 밀어도 결코 넘어지지 않고 꺾여 평평하게 되지도 않는다.

지금도 변함없이 주일이면 형제 자매들이 무너진 폐허 위에 모여 선 채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 하지만 그들이 애달프고 슬픈 심정을 품는 것은 당연하다. 내게 이러한 일들을 일러준 모 형제는 예수가정의 구성원은 아니었지만 주일날 그들을 찾아가 위로하고 함께 예배를 드렸다. 상심한 많은 형



주일예배를 드리고 있는 모습. 어린이에서부터 장년에 이르기까지 이들에게는 양육이 절실히 필요하다.

제자매들이 그에게 울며 호소했다. “우리들의 보금자리가 부서져 가루가 되었어요.”

형제는 그들을 격려하면서 “그러나 하나님의 집은 결코 부숩니다.”라고 말했다.

누가 교회의 머리인가

H형제는 Y현에서 섬긴 지 삼십여 년이 된다. 80년대에 중국 교회가 다시 공개적으로 예배당에서 집회를 시작하게 되었을 때 그는 교회 사역의 책임을 맡게 되었다. 그러자 정부의 간부는 그가 자신의 말을 잘 듣지 않는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가 나이가 많아 퇴직하여 쉬어야 한다는 구실을 삼아 그를 내쫓으려 했다. 대신 젊은 신학생을 그의 자리에 앉혔다. 그러나 그 신학생은 그 교회 신도들에게 환영받지 못하였고, 모두들 그의 신앙에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대부



분의 신도들은 모두 다른 청년 신도가 교회사역을 맡아 주기를 원했다.

어느 주일 새벽, 현의 통전부장(統戰部長)이 직접 예배당으로 찾아와 앞으로 걸어가더니 강대상 위에 앉았다. 그리고는 예배 전에 모인 신도들로 하여금 그의 지시에 따라 그 신학생을 교회의 책임자로 임명하는 것을 수락할 것을 강요하였다. 잠시 후 교회에 와서 이같은 상황을 본 신도들은 모두 분개하였다. 그들은 교회 일에 간섭하고 집회를 방해하는 통전부장

을 비난하는 의미로 모두 찬송가를 부르고 기도를 함으로써 불만을 표시했다. 통전부장은 당장 나가서 공안국의 과장, 피출소 소장을 데려왔지만 아무런 소용이 없었다.

먼저 예배를 드리고 난 후에, 과연 누가 H형제를 대신해서 교회사역을 맡을 것인가 하는 문제를 표결에 부치겠다고 신도들이 버티는 바람에 간부는 하는 수 없이 옆에서 지켜보며 기다렸다. 예배 후에 신도들이 손을 들어 표결하니 단 두 명만 그 신학생이 교회 책임자가 되는 것을 찬성했으며, 나머지 이백여 명은 모두 그들 스스로 선출한 청년을 지지했다. 이 때 통전부장이 급히 강대상 위로 뛰어 올라와서는 이 표결은 무효라고 선포하였다. 그는 또 이러한 방법이 민주적이긴 하지만 의견의 일치가 안 된다면 기어이 자기가 선출한 신학생이 그곳 교회의 책임자라고 우겼다.

신학생이 교회에서 집회를 인도하기 시작했으나 매번 참석하는 사람은 열 명도 채 안 되었고 몇 주가 지나자 더이상 집회를 지속해 나갈 방법이 없었다. 하지만 다른 형제자매들은 그 외의 시간에 따로 모여 계속 집회를 가졌다. 통전부장이 교회를 강제로 차지한 그 날로부터 일주일 후, 그의 외아들이 사고로 물에 빠져 죽었다. 다시 일주일 이 지났을 때 이번에는 그 자신이 두 다리도 더이상 걸을 수 없게 되었다. 그래서 그는 다시는 교회사역에 관여할 수 없게 되었다. H형제는 내게 이 일을 알려주면서, 지금 이와 같은 난관이 여

전히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 있다며 우리들에게 중보기도를 잊지 말아 달라고 간청했다.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이번에 중국을 방문했을 때, 나를 매우 기쁘게 한 몇 가지 일이 있었다. 그 중의 하나는 현재 각 지역의 주일학교 사역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이었다.

각 지역을 방문하였을 때 주일학



교 교재를 요청한 곳이 적어도 4-5 곳이 되었다. 비록 대부분의 지역에서 18세 이하의 청소년 및 아동에게 종교를 믿지 못하도록 강요하고 있으며, 학교 교사 중에도 그리스도인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규정이 있지만, 이러한 규정을 제대로 집행하는 경우는 별로 보지 못한 듯 했다. 오히려 더욱 많은 가정교회와 몇몇 공개교회(삼자교회) 안에서 주일학교 사역이 놀랍게 발전하고 있었다. 청소년과 어

린이들도 어른들 못지 않게 진리에 대한 갈망이 뜨겁다. 이는 중국 교회 안에 지금 새로운 세대가 자라나고 있다는 증거일 뿐 아니라, 교회사역이 온전하게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증거라 할 수 있다.

부흥하는 성경공부반

그 외에도 나에게 비교적 깊은 인상을 심어 준 것은 성경공부반이 곳곳에서 부흥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성경공부반에 참가하는 사람들의 대다수는 헌신된 청년들이다. 이것은 나이 많은 사역자가 젊은 사역자를 이끄는 가장 좋은 방법일 뿐 아니라 더욱 많은 집회 처소(聚會點)를 파악하는 이상적인 길이기도 하다.

성경공부반에 참가하는 사람들 모두가 각자 맡고 있는 처소가 있기 때문에 성경공부반은 일종의 동역자 모임의 성격을 띠고 있다. 각지에 분산되어 있는 처소를 서로 연결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다. 조금 염려스러운 점은 성경공부반을 이끄는 장년 사역자들이 서로 당파를 나누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경험이 풍부한 장년 사역자가 모임을 이끌지 않는다면 젊은 사역자들이 따르지 않고, 진리를 배우는 과정 중에 모르면서도 아는 척하고 억지해석과 억지 주장이 난무하여, 함께 모이는 귀중한 시간을 쓸모없는 말다툼에 낭비하기 쉽다. 그러므로 이러한 성경공부반이 잘 진행되기 위해서는 영적 생명의 연륜이 깊고 노련한 사역자의 지도와 각종 성경 참

고서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하다.

어려운 질문에 대답을

만약 여러분이 중국의 어느 곳을 방문하게 되면 형제 자매들은 으레 수많은 질문을 던져 여러분의 대답을 기다릴 것이다. 이러한 질문은 단편적인 지식보다는 경험과 방법론의 범주에 들어가는 것들이 대부분이다. 이런 질문에 대답할 때는, 서양의 관습이 유일한 방법인 양 함부로 대답하지 않도록 특별히 주의해야 한다. 사실 그들이 질문을 할 때에는 이미 자기 나름대로의 대답을 염두에 두고 질문하는 것이다. 다만 서양(혹은 외국에서 온) 그리스도인들의 대답이 그들의 생각과 같은지 한번 확인해 보고 싶을 따름이다. 어떤 질문들은 대답하기 매우 어렵다. 이번에도 수차례 다음과 같은 어려운 질문을 받곤 하였다.

● 한 형제가 병원에서 근무하는데, 그의 상관은 늘 상부의 지시에 따라 허위로 숫자나 병력 보고서를 작성하도록 그에게 명령했다. 형제가 거절하자 상관은 그렇게 하지 않으면 병원 전체의 장래와 그가 받게 될 상여금 수입에 큰 영향이 미칠 거라고 경고하였다. 그래도 형제가 계속 완강하게 버티자, 자신이 직접 거짓 보고서를 작성하되 형제에게는 서명만 하도록 했다. 그렇게 여러 차례 강요를 당하다 보니 형제는 무척 갈등하며 괴로워했다. 직장을 그만두는 것 외에 이 문제를 처리할 방법이 있겠는가?

사실 이것은 그리스도인들이 흔

히 부딪히는 문제이다. 허위가 가득한 사회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하면 깨끗함을 지킬 수 있는가?

● 어떤 지역에 적지 않은 신도들이 있었다. 외딴 산골이라 교회 일을 책임지는 형제는 매우 나이가 어리다. 섬기려는 뜻은 있지만 어떻게 교회를 이끌고 어떤 식으로 일들을 분배해야 할지 전혀 모른다. 그들에게 가장 절실한 문제는 지도자가 어떤 식으로 목회를 하고 여러 가지 교회 사역을 발전시키고 신도들의 신앙을 성장하게 하는가 하는 것이다.

● 평일 저녁에 있는 집회가 마침 TV 프로그램의 황금시간에 진행되기 때문에 신도들이 참석하는데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것에 대해 여러 전도인들이 내게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물어왔다.

많은 청년 사역자들이 매주 여러 번의 설교를 해야 하는 부담을 갖고 있다. 열심히 준비한다 해도 충분한 메시지를 전하기란 쉽지 않다. 신도들로 하여금 열심히 설교를 듣도록 하는 것은 더욱 어렵다고 한다. 그들이 가장 자주 묻는 질문은 바로 어떻게 설교해야 신도들이 설교를 즐겨 들을 수 있는가 하는 것이다. 어떤 사역자들은 매 집회마다 다른 메시지를 제공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카리스마적인 성격의 집회로 방향을 바꾸기도 한다.

다음호에 계속

번역/ 서울대 중국어 성경반



두란노 해외선교회 (TIM)

두란노 해외선교회(TIM)에서는 12억의 영혼이 추수를 기다리는 넓은 들판에서 주님의 마지막 명령을 함께 이루어 갈 전문인 사역자를 찾습니다.

사역내용

피아노 교사, 국어교사, 치과위생사 커피숍 봉사자, 농업, 원예전공자

기간

1년 또는 장기

문의

Tel. 796-1300(교 603)

Fax.749-5498

주소

서울 용산구 서빙고동 95번지 박림빌딩 6층 601호

중국 미전도종족 입양 및 협력사역

위취엔루이(余雋瑞)

머리말

1991년 홍콩에서 개최된 「중국선교대회」에서 중국 55개 소수민족을 향한 복음전파의 도전이 부각되었다. 동시에 ‘AAP(Adopting A People)’, 즉 ‘미전도종족 입양운동’도 제시되었다. 이 계획은 교회 또는 선교단체가 하나의 미전도종족을 목표로 삼아 장기적으로 그 종족에게 헌신하고, 현지에 교회를 조직하고 전략을 세워 그 교회가 독립적으로 복음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원칙상, 미전도종족 선교는 ‘집중적’(한 종족을 선택)이고, ‘장기적인 헌신’(일정한 기간을 설정)이 가능해야 하고, ‘임기응변’(교회와 선교가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을 때까지) 할 수 있어야 한다. 이것이 AAP의 개념이기도하다.

나는 이 전략에 흥미를 갖고 있는 많은 사람들 중의 하나로서, 이 비전을 중국복음회(CMI)와 중국 선도신학원(中國宣道神學院)에 소개하기를 원했다. 그러나 우리가 어떻게 이 입양사역을 준비할 것인지, 또 언제 이 전략을 실행에 옮길 것인지를 생각할 때 중국복음회가 중국선교단체 중의 하나이긴 하지만 소수민족 선교에 대해서는 아직 준비가 부족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

중국인으로서 우리는 중국의 주된 종족인

한족(漢族)선교 사역에 대해서는 비교적 정통하다고 자부해왔지만, 문화적 차이를 초월해야 하는 소수민족 선교사역에 있어서는 경험이 부족한 것이 사실이다. 또한 우리의 주사역들은 통신 신학교나 양육 등 특정 방면에 집중되어 있어 AAP전략과는 다소 거리가 멀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입양계획을 추진하기 전에 먼저 입양전략에 대해 충분히 이해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입양을 행동에 옮기는 데 있어서는 한 종족을 택하여 ‘그들이 입양되기를 바라는 것’보다는, ‘우리가 입양하려 가기를 자원하는 것’이 더 기본적이라는 것을 인식해야 했다.

창의적인 입양전략

입양사역을 준비하기 위해 '93년 중국선도신학원은 중국선교그룹(CMG)을 조직하여 중국에서 1년 동안 양육사역을 할 학생을 모집했다. 이 밖에도 '93년도 1년제 중국선교훈련과정(CMTI)을 개설하여 2개월마다 학생을 모집하여 중국에 보냈다. 이 두 과정의 취지는 입양계획의 준비단계라는 것이다. 중국선교그룹의 학생들이 2주마다 홍콩과 가까운 중국 국경 지역에 들어가 정기적으로 양육사역을 하는 것이다. 길게는 한 달 정도 머물며 비교적 먼 지역까지 가서 훈련장소와 선교

거점을 설정한다.

우리는 입양원칙에 의거하여 이 전략을 발전시켰고, 이 과정에서 전략상 운용할 수 있는 새로운 방향과 창의점을 발견할 수 있었다.

입양 및 거점 확보

대개 중국의 가정교회들이 농촌의 은밀한 장소를 선택하여 집회하는 것과는 달리, 우리는 남부지역의 거주지를 선택하여 사역을 하였던데 장소 선택의 조건은 다음과 같다.

우선 인근에 공장이 있는 지역이어야 한다. 일자리를 구하기 위해 시골에서 올라 온 노동자들과 접촉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 다음으로는 교통이 편리해야 한다. 이렇게 하면 오가는 시간을 절약하여 훈련하는 시간으로 사용할 수 있다. 이 밖에도 그 지역에서 살면서 일상적인 필요를 배려해 줄 동역자가 있어야 한다. 일단 안전한 거점이 확보되면 그곳을 일종의 '경배와 훈련센터'로 만들어 효과적인 지도자 양육을 진행시킬 수 있을 것이다.

입양 프로젝트

우리의 팀 훈련이 더욱 체계적이기 위해서는 훈련과정을 서로 조정해 팀원들 각자가 갖고 있는 은사를 충분히 활용하여 수업을 맡도록 해야 한다. 매번 집회 때마다 자신이 담당한 과목만 가르치면 중복을 피할 수 있고, 훈련받는 사람에게도 일정 기간 내에 일관성 있고 완전한 수업을 제공할 수 있다. 해외의 많은 헌신된 신도들이 중국 교회를 돕기 원하지만, 그들이 가르치는 것이 지나치게 자질구레하고 체계적이지 않아서, 배우는 이들에게 도움을 주기보다는 오히려 혼란을 주는 경우가 종종 있다. 만약 입양원칙을 착실히 실행한다면 이런 문제들이 해결되어 보다 체계적이고 수준 높은 교육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입양시기

주말에 정기적으로 중국 내의 기독교 성도들을 훈련하는 것 외에도, 이따금 각 성(省)에서

온 교회 지도자들에게 한 달 간의 훈련을 제공한다. 신학교 공부에 벅찬 학생들에게, 더군다나 바쁜 강의 과정 중에 이 사역을 요구한다는 것은 정말 대단한 시도였다. 하지만 우리는 강의가 없는 날 팀별로 돌아가면서 중국에 들어가 하루 내지 이틀 동안의 집중 코스를 진행시키는 것을 시험적으로 시행해 보았다. 현재 중국선도신학원의 교사와 교목(校牧)도 이 사역에 요청받아 참여하고 있는데, 그들이 매주 하루를 택해 현지에서 훈련을 담당해 주기를 희망하는 바이다.

후에 훈련받는 이들의 필요도 있고 우리 역시 경험이 쌓이기도 하여, 집중코스의 기간을 한 달에서 6개월로 연장했다.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일정 기간 동안 입양하는 전략을 잘 실행했기 때문이다. 우리들이 이러한 방향을 고수하면서, 만약 하나의 사업을 개설하여 기독교인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다면 일하는 이외의 시간을 훈련하는 시간으로 사용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물론 이 계획이 실행되려면 더 많은 팀



윈난(雲南)성 라후(拉祜)족 할머니가 열심히 수를 놓고 있다.



이슬람교를 믿는 신장의 위구르족. 예배하기 전, 주전자의 깨끗한 물로 목욕한다. 이들에게 참 진리의 복음을 전해줄 자는 누구인가?

을 개발하여 이러한 지역의 영혼들을 입양해야 할 것이다.

우리는 지금 시골, 시, 현(縣) 심지어 한 성(省)을 입양해야 할 도전을 받고 있다. 다른 환경에서는 서로 다른 입양전략이 필요하다.

소수민족 입양전략

'94년까지 소수민족 입양은 없었지만 '91년에 이미 그들과의 접촉은 시작되었다. 단기선 교팀은 신장(新疆), 윈난(雲南)과 광시 좡족 자치구(廣西壯族自治區)에 이르는 소수민족 지역을 탐방하였고, 또 중국에서 2주 동안 소수민족에 대한 학습훈련과정을 수료했다. 비록 이러한 탐사 여행이 기대만큼 큰 효과를 거두지는 못했지만, 소수민족에 대한 비전을 불러 일으키게 만드는 귀중한 경험이 된 것은 사실이다.

이 밖에도 앞서 언급한 입양경험은 소수민족 입양에 많은 도움이 되었다. 만약 우리가 이 계획을 가까운 도시에서 실행할 수 있다면, 산간벽지에 흩어져 살고 있는 소수민족에게도 가능하지 않을까? 실행 가능성을 고려해 보니 56개 소수민족 중 한 민족을 목표로 삼아 일을 진행시키는 것에는 어느 정도 한계가 있음을 느끼게 되었다. 어느 종족이나 마찬가지로

지로 그들에 대한 우리의 인식이 매우 부족한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다른 종족과 비교하여 그 중에 헌신할만한 한 종족을 선택할 수는 없는 노릇이다. 그들에 대해 잘 알지 못하므로 한 종족과의 접촉은 한계가 있으며, 효과적인 사역을 이룰 수 없다. 무엇보다 가장 큰 문제는 우리들이 이 종족들과 만나기 위해 먼 곳으로 갈 때, 그것을 받쳐 줄만한 선교적 경험이 매우 부족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기를 기다릴 때 놀라운 돌파구가 생길 것으로 기대한다.

중복입양 파트너십

기도편지와 잡지에 소수민족에 대한 연구를 이미 몇 차례 신긴 했지만 아직 소수민족에 대한 사역을 발전시키지는 못했다. 그러나 몇몇 교회와 선교단체들이 이미 이 영역에서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이 방법에 종사하는 기독교 단체들이 우리와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자료를 교환하고 함께 협력방안을 강구하는 것에 대해 감사하고 영광스럽게 생각한다.

이것을 '중복입양 파트너십' (Multi-Adoption partnership)이라 하는데 이러한 새로운 협력유형은 점차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

이 계획은 ‘한 종족 입양계획’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간 것이다. 한 종족 입양계획은 입양 대상과 입양단체가 하나이지만, ‘중복입양과 트너쉽’은 입양자의 중요성을 더욱 강조한 것으로서 다른 단체와의 긴밀한 단결과 협력을 유지하여 피입양자에 대한 복음사역을 강화하는 것이다.

중국복음회와 중국선도신학원은 '94년 7월에 다른 두 교회, 그리고 몇몇 전문인 사역자와 전략 코디네이터의 도움을 받아 중국 남부 지역의 한 종족을 입양하였다. 이것은 실로 여러 협력자들의 도움없이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이었다.

입양한 교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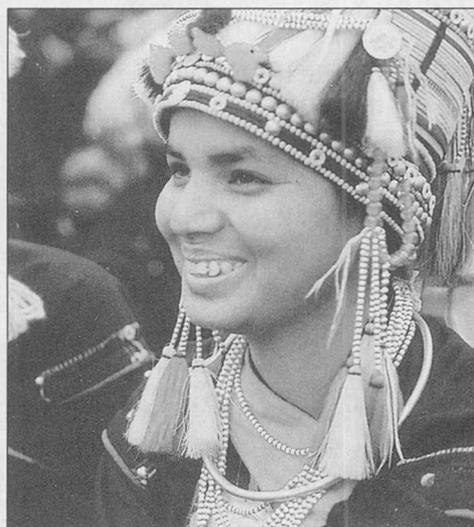
우리와 협력한 두 교회 중의 하나는 미국 교회이고 또 하나는 홍콩 교회이다. '94년 7월 우리의 첫 번째 연합팀은 중국에 도착하여 각 팀별로 서로 다른 계층의 사람을 탐방, 조사했다. 미국 팀은 현지의 학교에서 영어를 가르치면서 수업이 끝난 후에는 교수와 학생들에게 복음을 전하였고, 시골에 가서 학생들의 가족을 방문하기도 했다. 홍콩 팀은 시골로 직접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였다. 팀원 중에 의사가 한 명 있었는데, 마침 그들이 간 지역에 수재(水災)가 발생하여 그의 의료 봉사를 계기로 12명의 주민들이 예수님을 영접하였다.

우리와 협력한 두 교회 모두 든든한 선교적 기초 위에 서 있는 교회였다. 담임목사도 선교적 소명이 강한 분이라 적극적으로 종족입양 계획을 시도하고자 했다. 이 계획은 이런 순서로 진행된다.

먼저 단기선교팀을 파견해 지역을 정탐한 후, 복음회와 중국선도신학원팀이 복음전파와 훈련 사역을 지원하고, 최종적으로 홍콩 혹은 미국의 교회에서 직접 선교사를 그 지역에 파송하는 것이다. 이러한 협력사역을 통해 고정된 팀을 파견하고 탐색하는 전략을 발전시킬 수 있다.

전문인 사역자와의 협력

몇 명의 전문인 선교사들이 이 협력 사역에 참여했다. 한 기독교인 사업가 역시 비즈니스의 기회를 찾고 있었다. 예를 들어 그런 사람들이 여행지에서 호텔을 개업하면 우리 팀에게 숙식할 장소와 사역할 기회를 제공해 줄 수 있으며, 우리 선교단체는 그곳의 수공예품 수출을 대행해 줄 수 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동역할 수 있다. 이밖에도 의료 봉사로서 사역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 어떤 지역의 주민들은 3시간 동안 걸어야 가장 가까운 시에서 치료를 받을 수 있다. 이처럼 의료혜택이 절실한 지역에 진료소를 세운다면 현지 주민들의 실질적 문제를 해결하는 동시에, 외지 기독교 의사에게는 의료사역에 참여하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다.



전통의상을 입은 하니(哈尼)족 처녀.

전략 코디네이터

오늘날 선교는 경험있는 선교사를 파견해 전략 코디네이터로 만드는 추세에 있다. 그들의 사역은 가까운 종족을 목표로 삼아 장소를 탐

색하고 연구센터의 일을 담당하며, 연락자를 물색하여 각기 다른 필요에 맞추어 자원을 분배하는 일 등이다. 그들은 이러한 과정 속에서 선교사역이 미전도종족에게 닿을 수 있도록 협조하는 일을 한다. 나는 일찍이 소수민족과 각 성(省) 조사에 특별히 뛰어난 재능을 발휘했던 몇 명의 전략 코디네이터를 만날 수 있었다.

우리는 남부의 한 민족을 입양하기 전에, 2년 동안 그 소수민족을 탐색하는 데 애써왔던 한 명의 전략 코디네이터와 접촉할 수 있었다. 이 형제로 인해 그 소수민족의 상황을 더욱 분명히 알 수 있었고, 우리가 갖고 있는 자원의 효과적 운용에 대해서도 이해하게 되었다. 이 형제는 그 사역의 성격상 직접 현장에 참여하는 것은 피해야 했기 때문에, 이 소수민족이 우리에게 소개되는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했다.

이렇게 협력하면 서로의 부족한 점을 보충할 수 있다. 만약 이러한 협력사역이 없다면 소수민족을 향한 실제적인 사역의 길은 무척 험난할 것이다.

중복입양 협력사역에 있어서 복음회와 중국선도신학원의 역할

중복입양 협력사역을 하면서 중국복음회는 연구, 훈련, 파견 사역에 강한 우리의 특수성에 따라, 소수민족 선교사역에 있어서의 전략과 훈련과정을 발전시키는 역할을 하였다. 그들의 언어, 역사, 종교와 문화 등을 연구하고 또 선교적 측면에서 분석하는 데 전념했다. 훈련 방법에서는 연구 성과와 실습 경험을 토대로 훈련방식을 발전시켜, 중국선도신학원의 교과과정과 교회 팀이 이 소수민족에게 효과적으로 접촉할 수 있도록 훈련시키는 데 적용할 수 있다. 앞으로 중국선도신학원의 학생과 졸업생들이 바로 이 소수민족의 선교사가 될 것이다.



입양계획은 비교적 개방적이고 접근이 용이한 한족에게 실천한 후, 점차 소수민족에게 실천해야 한다.

우리의 대응

한 종족 입양에서 중복입양 협력사역까지 우리는 소수민족을 향한 복음전파를 위한 새로운 전략들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중국 교회와 미국 교회에게 있어서는 여전히 한족(漢族) 복음화가 우선순위가 되어야 한다. 입양계획을 우선 비교적 개방적이고 접근이 용이한 한족에게 실천한 후, 점차로 먼 곳의 소수민족에게 실천해야 하는 것이다.

교회들이 중국 복음사역에 참여하기를 원한다면 중국복음회와 중국선도신학원은 협력할 준비가 되어 있으며 우리가 경험했던 것을 함께 나누길 원한다. 만약 어떤 한 종족을 탐색하는 데 흥미를 갖고 있다면 우리 또한 그 방면으로 협력할 의향이 있다. 복음회, 중국선도신학원을 위해 기도해주기를 바라며 매년 더 많은 종족이 입양되어 의미 있는 협력 계획과 효과있는 전략이 발전되기를 기대한다.

이 글은 「中國與福音」 95. 3/4 第5期에 실린 '中國宣教的新策略, 認領一民及多層次聯合承包制'를 번역한 것입니다.

번역 / 김은희 · 본지 편집기자

하나님을 믿지 않는 ‘목사’

중국

의 일부 목회자들은 성경의 일부분의 진실성을 의심하고 심지어 신학자나 성도들의 하나님에 대한 신앙까지 부정한다. 이러한 현상은 이미 세속화 되어버린 오늘날 종종 듣게 되는 일이다. 이런 목회자들은 자신이 교회의 전통적인 교리나 신조에 불순종하는 까닭을 ‘하나님에 대한 충성’, ‘신앙에 대한 진지함’ 때문이라고 한다. 그야말로 말만 있고 믿음은 없는, 신앙과 불신앙을 구분할 줄도 모르는 직분자들인 것이다.

중국에서 어떤 사람들은 조직상의 필요에 의해 목사가 된다. 정치적으로 당의 지도를 옹호하고 사회주의 노선으로 가는 것은, 당과 정부가 교회 목회자에게 요구하는 기본적인 요구이다. 이러한 요구를 관철시키기 위해서는 전문적으로 교회 목회자들의 사상과 행동을 통제할 사람이 필요하다. 이것을 ‘법에 의거해 종교 사무를 관리한다’라고 말한다. 즉 정부가 종교에 관련된 법률, 법규와 정책의 실시를 관철하며, 행정관리와 감독을 수행하겠다는 것이다. 관리 대상은 당연히 애국적인 종교 인사와 단체들이다. 왜냐하면 관리가 미칠 수 없는 기타 종교 단체와 개인이라면 당연히 공격 대상이 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러한 관리와 감독은 비전문가가 전문가를 관리하는 것이다. 무신론의 의식형태로 종교를 관리하니 어떻게 제대로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겠는가? 더욱이 오늘날의 중

국은 아직도 법치(法治)보다는 인치(人治)의 색채가 농후한 사회이기 때문에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질 리 없다.

“많은 간부들이 월권행사, 청탁 등에 익숙해 있고 종교가 사회주의에 부응해야 하는 것을 마치 간부의 뜻과 이익에 부응해야 하는 것으로 여기는 현상이 자주 발생하고 있다.”¹⁾

중국기독교협회 덩광순(丁光訓) 주교는 일찌기 1988년에도 국무원 종교국에 편지를 띄워 ‘정부가 기독교 자체의 일을 지나치게 간섭한다’고 지적한 바 있다.

“어떤 간부는 사람을 단결시킬 수 있는 핵심 인물은 절대 기용하지 않는다. 도리어 신도들의 교회 사랑을 질책하고 그들을 다루기 어렵다고 질책한다. 대신 신앙도 약하고 사람들과 화합하지 못할 뿐 아니라 평판이 나쁜 사람을 ‘적극분자’로 내세워 정부의 간부를 대신하여 명령을 내리게 한다. 심한 경우 교회에 사람이 없다는 구실로 종교사무 부문의 공산당원을 교회 내에 들여 무신론의 교회를 만들기도 한다. 이것만으로도 부족하던 말인가?²⁾

이와 같은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종교적 수양이 없고 평판이 나쁜 교회 밖의 사람’임을 뻔히 알면서도 교회의 지도자로 삼고 있다. 왜냐하면 교회 지도자, 즉 목사를 비롯하여 여러 위원, 비서장, 사무실 주임 등의 인선(人選)은 간부들의 소관이고 교회는 발언권이 전혀 없기 때문이다.³⁾



목사를 비롯한 교회 지도자의 인선이 정부 간부들의 소관이기 때문에 일부 신앙이 없는 목사를 기용하는 예도 있다. 베이징의 한 교회에서 삼자애국운동위원 주석인 인지정(殷繼增) 목사가 설교하고 있다.

예를 들어 강남(江南)의 어떤 현에서는 문화대혁명 후 신도의 수가 매우 빠르게 증가했으나, 그 지방의 전도사 중에 신학교육을 받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다. 그 곳 교회의 신도들을 케도에 오르게 해서 정상적인 종교 생활을 하게 하려면 목사를 세워야 했다. 신도들은 당연히 목사가 그들이 잘 아는 전도인들 중에서 나오기를 바랐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의 예상을 뒤엎고, 부임한 목사는 학교 직원이었으며 모두가 알고 있던 신도도 아니었다.

그 목사가 부임한 후 그의 가장 중요한 임무는 마치 늘어나는 신도 수를 억제하고 교회의 사역과 활동에 바리케이트를 설치하는 것만 같았다. 결국 오래지 않아 교회는 분열되었고 모든 사역이 마비되었다. 그러나 그 목사의 명망(?)에는 조금도 금이 가지 않았다.

남쪽 지방의 관광 명승지에 위치한 Y교회에도 80년대 초, 모 성(省)에서 목사 안수를 받은 한 목사가 있었다. 그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는 사실에도 불구하고 정부에서 교회의 담임 목사로 갈 것을 계속 설득하자, 그는

결국 견디지 못해 하던 일을 그만두고 '목사'가 되었다. Y교회가 교회당을 반환받는 과정에서 이 목사는 시종일관 부정적인 태도를 보였다. 목사 가운을 걸친 이 사람은 품행과 덕행은 말할 것도 없고 설교 수준도 청중들을 실망시켰다. 그는 겉으로는 삼자(三自)를 표명했지만, 실제로는 교회를 파괴했다. 신도들은 고개를 저으며 탄식할 수밖에 없었다. 이것이 바로 위축형 교회의 모델인 것이다.

북쪽 지방의 한 교회 목사는 평판이 매우 좋지 않았다. 더이상 참지 못한 신도들은 그가 목사로서 합당하지 않다고 고소했다. 그러나 그 곳 간부들은 오히려 "우리가 목사라고 하는 사람은 다 목사다!"라며 고소를 일축하였다. 대체로 이런 류의 '목사' 대다수는 좌익성향이 농후하여 교회건설, 후계자 양성 및 신도양육 등의 문제에 무관심할 뿐 아니라 오히려 방해하고 저지한다.

교회의 재산을 돌려받은 다음, 이러한 '목사'들은 교회의 이익을 보호하기는 커녕 상급기관(정부)에만 굉장한 선심을 베풀다. 설이나 명절이 돌아오면 교회의 돈으로 아낌없이

손님을 초대해 잔치를 베풀고 선물을 준다. 또한, 교회 재산을 저렴한 가격으로 팔아넘겨 중간에서 이익을 챙기기도 한다.

그들은 이러한 독단적인 횡포로 오히려 관련 기관의 신임과 후원을 얻었다. 이러한 이유로 중국 교회의 재정은 거의 공개되지 않는다. 만약 누구라도 이에 대해 질문을 하면 공안을 불러 '처리'한다.

그들은, 신도들이 예수를 주(主)로 여기듯이 '목사'인 그들은 예수의 대언자이기 때문에 교회는 결코 민주적일 수 없다고 공언한다. 그들은 자주 개인 명의로 교회 명의를 대신하고 교회의 규칙과 제도를 위반하면서도 아무런 거리낌이 없다. 그러나 이것은 한 손으로 하늘을 가린 것과 같다. 왜냐하면 그들의 권력이 하나님과 신도들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목사'라는 사람은 아무 거리낌없이 "내가 목사인데 어떻게 권력이 없을 수 있어?"라고 말한다. 이런 부류의 목사는 신도를 거의 심방하지 않으며, 평소에 교회 안에서는 그림자도 찾아보기 힘들다. 그들은 외부인들을 접대하고 크고 작은 회의를 여는 데 열중한 따름이다.

교회 안에 이런 목사가 있게 되면 신도들은 무척 상심한다. 어떤 사람은 전국 양회(兩會: 기독교협회와 기독교 삼자애국운동위원회) 혹은 성 양회에 이러한 내용을 써서 고소하기도 했다. 그러나 이러한 고소장은 항상 그곳에 있는 지도자들에게 되돌려져 신도들의 곤란과 부담을 가중시킬 뿐이다. 또한 교회의 지도자들도 진상을 알고 조치를 취하려고 하지만, 관련 기관의 간부가 동의하지 않아 어쩔 수 없게 되는 경우도 있다.

어떤 성(省)의 교회들은 전국 기독교 제4차 회의(1986)의 정신에 근거하여 「건전한 교회의 관리 강화에 관한 의견」이라는 문안을 통과시켰다. 이 문안 중에는 목사의 성직을 '교회 내에서의 종신직'이라 설명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문안 중에는 "교회규칙을

위반하고 삼자원칙을 위반하여 여러 차례 주의를 받고도 개선하지 않는 모든 성직자는 그곳 교회 지(地), 시(市)와 성(省) 기독교 양회에 보고, 청원하여 그의 성직을 면하고 더 엄중히 하자면 교적에서 제해버릴 수도 있다"고 표명되어 있다. 그러나 위에 설명한 여러 가지 원인으로 인해 이 문안은 사실상 유명무실하다.

따라서 교회가 목사라 부르기에 합당하지 않은 목사를 파면할 것을 요청한다 해도, 정부 측은 오히려 평소 '눈엣가시'로 여기던 목사를 갈아 치우는 데 이 문안을 사용한다는 소식을 종종 듣게 된다.

- 1) 《橋》 64호, p. 6 중국기독교협회 덩광순(丁光訓) 주교의 신년사
- 2) 《橋》 33호, p. 6 참조
- 3) 《橋》 60호, p. 5 참조, 정협회의에서의 덩 주교의 발언



신도 수가 나날이 늘어가고 있는 중국 교회. 이들에게는 진실한 목사가 필요하다.

이 글은 <橋-中國教會動態> 69기 "牧師不信神怎麼辦?"을 번역한 것이다.

번역/ 김은희 · 본지 편집기자

삼자교회 소식

상하이 성도 성탄절 행사 참여
 성탄 전야에 상하이(上海)의 각 교회에서는 많은 성도들이 모여 '95년 성탄절을 성대하게 맞이했다. 상하이의 목은당(沐恩堂), 국제예배당(國際禮拜堂), 회은당(懷恩堂) 등 시, 구의 교회를 모두 개방하여 각 지역에서 오는 기독교인들을 맞이하였다.

현재 상하이에는 14개 구와 16개 현에 27개의 교회와 80여 개의 집회 장소가 있다. 그 중 30여 곳은 최근 10년 내에 신설된 것이다. 현재 40여 명의 목사, 120명의 장로, 전도사, 14명의 여자 목사가 있으며, 매년 5~6천 명의 새신자가 등록하고 있다.

또한 중국 기독교 소속인 화동신학원(華東神學院)은 상하이와 산둥(山東), 저장(浙江), 푸지엔(福建), 장시(江西) 등의 지역을 위해 청년 신학생을 양육하고 있다.

(明報, 95. 12. 25)

천주교 삼자애국회의 부당한 처사에 꺾기한 시아먼(廈門) 성당 신도들

시아먼 성당은 시아먼에서 배로 5분 거리에 있는 유명한 피서지 고랑도(鼓浪島)에 있다. 최근 이 아름답고 고요한 교회가 시끄러워

졌다. 천주교 삼자애교회(天主敎三自愛國會)가 교회 부속 3층 건물을 가라오케와 비디오방 등 향락업체에게 임대해 주었기 때문이다. 문제가 된 3층 건물은 예전에 사제관으로 쓰이던 건물로서 애국회가 교회 자체경비를 충당하기 위해 1986년부터 호텔로 경영해 왔다.

시아먼 성당은 문화혁명 시기에 공장으로 사용되다가 1981년 10월 1일 천주교회로 환원됐다. 당시 많은 신도들이 직접 교회의 보수에 나섰고, 그해 성탄절부터 미사를 재개할 수 있었다. 현재는 매주 수백 명의 국내외 신자들이 미사를 드리고 있다.

신도들은 애국회의 이번 처사가 부당하다고 꺾기하였다. 성당에 올 때마다 입구의 향락가를 지나쳐야 하기 때문에 자신들이 오염되는 것 같다는 것이다. '95년 12월 25일 오전 성탄미사 후, 전교우가 항의 시위를 벌였고, 베이징 국무원 종교국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그 동안 천주교 삼자애교회 인사들은 교회재산 관리라는 미명하에, 사리사욕을 채우고 신부에게 무례히 행동하여 왔다. 얼마 전에도 그들의 음모와 비행을 밝히려 했던 장(江) 신부가 쫓겨난 바 있다. 또한 최근 현지 정부가 성당수리비로 인민폐 15만 원을 지급했으나 애교회 인사가 그중 3만

원을 개인적인 교제비로 쓴 것 역시 밝혀졌다.
 (公敎報, 96. 1. 5)

온저우(溫州)시 '평신도 지도자 양육센터'와 '금릉(金陵) 성경통신반 지도센터' 설립

저장(浙江)성 온저우시에는 약 60만 명의 신도가 있으나 목회자 수는 상대적으로 부족하다. 따라서 평신도 지도자가 성직을 감당하고 있는 교회가 많다. 이에 온저우시 기독교 양회는 1995년 8월 19일 회의를 열어 '평신도 지도자 양육계획'을 통과시키고 '기독교 평신도 지도자 양육센터'와 '온저우시 난징(南京) 금릉협화신학교 성경통신반 지도센터'를 설립했다.

현재 성경연수반은 2년제, 4학기로 나뉘어 진행되고 있다. 소정의 학제를 마치고 시험에 합격해야만 수료증을 주게 되어 있다. 난징(南京) 금릉협화신학교 성경통신반은 온저우시 '금릉협화신학교 성경통신반 지도센터'의 설립에 동의하고, 매년 한 차례 금릉 성경통신반에서 온저우시로 교수를 파견해 직접 가르치고 평소에는 '지도센터'가 교육을 담당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더욱 많은 성도와 평신도 지도자들이 성경을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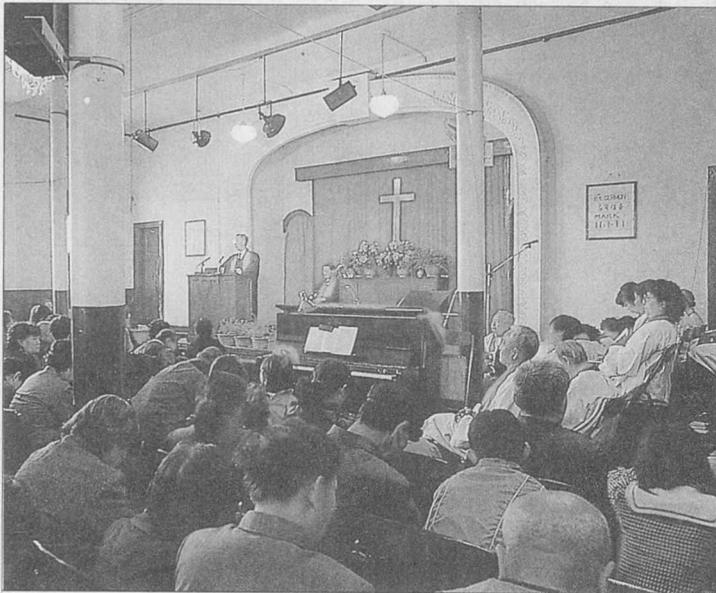
(天風, 96. 1期)

중국의 종교정책

중국의 두 번째 인권백서, 정상적인 종교활동 보호 재천명

중국 당국은 두 번째로 발표한 인권백서에서 국가 헌법이 종교의 자유를 보장할 것을 재천명했다. 그러나 외국의 세력이 중국의 종교를 지배하는 것에는 반대한다고 재삼 강조했다.

이만 삼천자에 달하는 이번 백서는 <중국 인권사업의 진전>이라 칭하였고 중국 국무원 신문사 무실이 '95년 12월 17일에 발표한 것으로 첫 번째 인권백서가 공포된 지 4년 만의 일이다.



새 인권백서는 1991년 12월 발표한 첫 번째 백서인 <중국의 인권 상황>의 반정도의 분량으로 두 백서는 서언 및 10개의 서로 다른 범주의 인권 문제 부분을 포함하고 있다.

<주민, 정치권리>의 첫장에서 국가는 헌법과 법률 규정에 근거하여 종교의 자유와 정상적인 종교활동 보장을 재천명했다. 그러나 그와 동시에 '어떠한 사람도 종교로 사회질서를 파괴하거나 국민의 안녕을 해치고 국가교육제도에 장애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명기하고 있다.

이 밖에, 진정한 종교 신앙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종교 단체와 종교 사무는 외국 세력의 지배를 받지 않는다'고 했다.

1991년의 첫 번째 백서는 종교 정책과 종교 발전에 대해 거듭 강조했다였으나 이번에 발표된 백서는 국가의 일관된 종교정책을 간

략히 표명하고 통계 숫자만 간단히 열거하였을 뿐이다.

이 백서에 의하면 현재 중국에는 4백여만 명의 천주교 신자, 2천 7백 명의 성직자, 천여 개의 천주교회가 있고, 약 6백5십만 명의 개

신교 신도, 1만 8천여 명의 목사, 8천 개의 교회, 2만여 개의 간단한 집회장소가 있다고 한다.

중국에 비교적 광범위하게 전파되어 있는 불교와 도교의 통계 숫자는 아직 없으나 이슬람 교인은 약 천7백만 명, 사원은 2만 6천여 개가 있다고 한다. 중국에는 또한 총 2천여 개의 종교 사회단체와 48개의 종교 대학교가 있다고 지적했다.

(天主教亞洲通信社, 96. 1. 10)

기독교 탄압 강화

중국 당국이 허가되지 않은 기독교 단체들에 대한 탄압의 강도를 높이고 있다. 인권단체인 '아시아 워치(Asia Watch)'에 의하면 기독교인들에 대한 박해에는 '외국인 접촉규제' 등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는 모든 종교와 사회적 이견을 상대로 지난 '94년부터 전개하기 시작한 보다 광범위한 정책의 일환이라고 지적했다.

이 단체의 미키 슈피겔씨는 중국 당국이 '종교를 가진 모든 사람, 특히 기독교인을 잠재적인 불안요소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아시아 워치는 또 중국 당국의 공식적인 입장은 '해외로부터 유입된 적대분자들이 중국의 반체제 인사들과 결탁해 동요를 일으키고 합법적 정부를 전복시키는데 종교를 이용하려 하고 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규모나 재산 또는 명성이 큰 교회들과 소속 기관은 중국 공산당이나 정부와 경쟁이 되는 것으로 간주돼 탄압을 받아왔다고 아시아 워치는 덧붙였다.

(조선일보, 95. 12. 22)

종교학습강요(宗教學習綱要)

국영 <종교문화출판사> 첫 출판물

중국 종교사무국이 '95년 2월에 설립한 <종교문화출판사>는 '95년에 그 첫 번째 출판물로 전(前) 국무원 종교사무국 국장인 장성쭈어(張聲作)가 편집한 <종교학습강요>를 발간하였다. 이 책은 종교를 가장한 국외 적대 세력의 침투를 경계하고 저지할 것을 강조하고 있다.

국외 적대 세력이 방송국 설립, 종교 선전물 밀수, 관광, 친지방문, 비지니스, 유학 등의 기회로 전도 활동을 하는 것, 일이나 학업을 이유로 해외에 나가있는 사람에게 전도하는 것, 지하세력 배양 등의 방법으로 조국을 분열시키고 민족 단결을 저해하려고 하며, 이미 일부 지역에서 이것이 불안요소로 작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중국의 각 종교 단체와 사찰, 교회 등이 홍콩·마카오·대만의 동포, 국외 종교계와 지속적으로 우호적인 교류 활동을 전개해 나가도록 권장하고 있다. 아울러 애국종교단체가 내적으로 잘 정비하고 경제적으로 자립하고, 양로원, 진료소, 장애인 보호시설 등 사회공익 사업에 더욱 힘쓸 것을 요구했다.

과거에도 국무원 종교사무국이 펴낸 '종교정책'에 관한 책은 여러 권 있었으나 각 급 간부가 학습할 수 있는 소책자 형식은 <종교학습강요>가 처음이다.

<종교학습강요>는 제1장 「종교문제에 정확히 대처해야 하는 중요 의의」, 제2장 「종교문제에 대처하는 사상-마르크스주의 종교관」, 제3장 「우리나라 사회주의 시기의 종교문제」, 제4장 「종교 신앙 자유의 존중과 보호」, 제5장 「국가의 합법적인 종교사무 관할」, 제6장 「당이 영도하는 각 종교계의 애국 통일 전선의 확대와 공고(鞏固)」, 제7장 「종교계의 합법적인 권익 보호」, 제8장 「종교적인 대외교류의 적극적 전개」, 제9장 「종교활동에 대한 당과 정부의 영도 강화」, 제10장 「종교의 신국면 모색」의 총 10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책에서는 종교가 결코 가볍게 넘길 수 없는 문제임을 강조하며 중국이 당면한 종교적 문제로 다음과 같은 것들을 지적하고 있다.

- ◇ 해외의 적대 세력이 종교를 이용하여 점진적으로 침투하는 새로운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
- ◇ 극소수의 '민족분리자'가 종교를 이용하여 혼란을 일으키고 있다.
- ◇ 극소수의 적대 분자가 불법조직을 만들어 종교의 이름하에 각종 범법 활동을 벌이고 있다.
- ◇ 종교활동 장소의 관리가 강화되어야 하고, 종교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자질이 향상되어야 한다.
- ◇ 종교의 자유 정책을 관철하기에는 아직 적지 않은 문제가 있다.

종교문제는 매우 복잡하고 민감한 문제이며 과거의 종교 선전은 실패했다고 지적했으며, 또한 중국은 현재 종교 간부의 신·구 교체기에 처해 있으므로 종교 간부들의 정치 소질을 높여 종교 업무를 잘 수행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했다.

이밖에 주목할만한 것은 공산당 간부들의 신앙 문제가 이미 베이징의 골치거리로 등장했음을 승인했다는 점이다.

(時代論壇 96. 1. 7)

시사만평



排隊排暈了

순서를 기다리다 순서대로
지쳐 쓰러지게 된다

鄧廣慶

중국에서 사람들이 아파서 병원에 가면 의사에게 진료받기 위해, 돈을 지불하고 약을 타기 위해 오랫동안 기다려야 한다. 모든 절차를 지나도록 줄을 서서 기다리고, 또 기다려야 하니 모두들 지쳐 줄줄이 현기증을 일으키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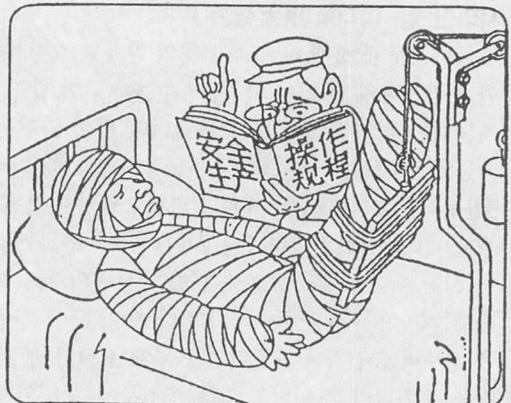
<現代中國漫畫集>

抓緊教育

안전교육 지도를 다그친다

袁新廷

한마디로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이다. 산업현장에서 안전조작 미숙으로 또는 그 방법을 잘 알지 못한 채 마구잡이로 일을 하다가 끔찍없이 변을 당하고 나서야, 아픈 사람을 다그쳐서 교육지도에 열을 쏟느라 진땀을 빼고 있다.



<現代中國漫畫集>

변화하는 중국

주 5일 근무제 好不好?



중국은 주5일 근무제를 시행함으로써 보다 많은 취업 기회를 제공하게 되고, 방대한 휴일 오락시장이 육성될 것으로 전망한다. 그러나 기업의 지출은 증가될 것이며 학교의 교과과정도 조정되어야 할 것이다.

사라진 말 '따리바이(大禮拜)'

주 5일 근무제 시행 첫날, 베이징의 란따오 쇼핑센터는 몰려드는 인파로 인산인해를 이루었다. 이 쇼핑센터의 한 판매 사원은 "휴일이 되면 밥 먹을 시간도 없을 정도로 바빠요. 하지만 하루 매출액이 적어도 30%는 오른답니다"라며 즐거운 비명을 질렀다.

중국은 1995년 5월 1일 국제 노동절을 기해 전국적으로 주 5일 근무제를 실시하였다. '94년 3월부터 주 44시간 근무제로 전환함으로써 수십년간 유지해오던 주 48시간 근무제를 폐지하였는데, 그로부터 정확히 1년 2개월 만에 주 40시간 근무를 시행하게 된 것이다.

「노동자 근로시간 규정에 관한 국무원의 개정결정」에 의거하여 모든 정부조직, 기관, 기업, 단체들은 이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만약 생산 특성상 주 5일 근무제를 시행하기 어려운 기업들은 정부의 승인하에 파트타임 근무제나 시간 계산 근무 등의 방식을 취해야 한다. 또는 유예기간을 부여받아 2년 뒤인 '97년 5월부터 주 5일제를 실시하는 방법도 있다.

따라서 '94년에 만들어졌던 '따리빠이(大禮拜)'라는 신조어는 만들어진 지 1년 만에 사라지게 됐다. '따리빠이'란 '큰 주말'이라는 뜻으로, '노는 토요일'을 말한다. 주 40시간 근무제가 시행되자 직장 대부분이 한 주의 토요일은 아예 쉬고 그 다음 토요일에는 출근해서 8시간 일하는 것을 관례화 해버렸다. 이에 따라 중국의 노동시간은 사실상 격주 5일 근무제로 바뀌었고, '95년 초에 만들어졌던 중국 달력에는 아예 '따리빠이'에 휴일 표시를 해놓은 경우까지 있었다.

주 5일 근무제 실시 이유

중국 국무원에 따르면, 생활 수준은 개선되고 있는 반면에 늘어나는 실업률과 에너지 부족, 교통 체증 때문에 이같은 조치를 취했다고 한다. 중국 관영 통신인 신화통신(新華通信)은 주 5일 근무제를 실시하게 된 이유를 우선 '국제적인 추세에 맞추기 위해서'라고 본다. 선진국의 경우 이미 지난 '70년대에 주 5일 근무제를 실시하였고, 현재 144개 국가와 지역에서 주 5일 근무제를 시행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그 다음 이유로는 '노동과 생활의 질을 함께 높이기 위한 것'을 들고 있다. 생산성 제고와 근로자의 복지 향상을 위한 것이라는 분석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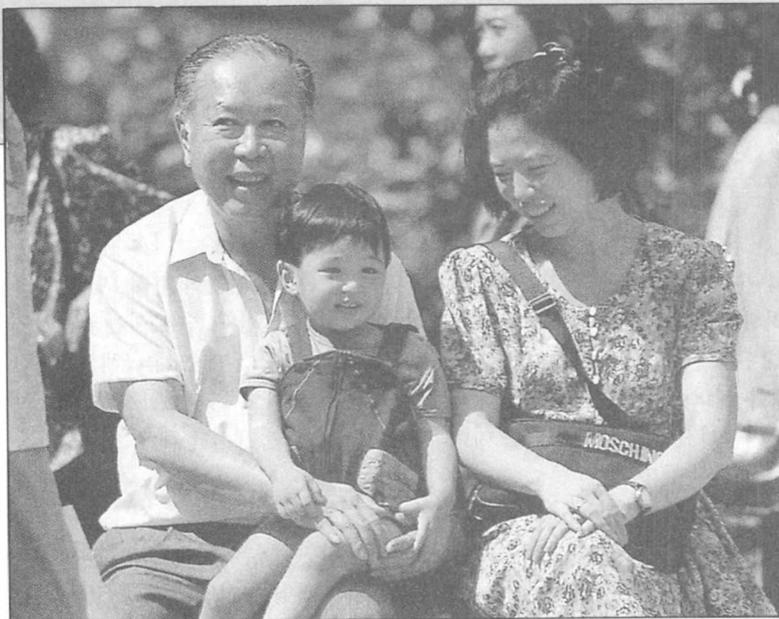
새로운 제도의 시행에 앞서 중국의 노동부는 많은 연구 조사를 거친 후 작업의 효율성 제고와 일자리 증가, 3차 산업의 발전 가능성을 들어 국무원에 주 5일 근무제를 강력히 건의한 바 있다. 현재 중국 각지의 시장 상황은 대체로 정상이지만, 경공업, 기계, 방직 산업 등은 생산 경영상의 어려움이 커서 상품의 재고량이 상승하는 추세이므로, 이런 상황에서 근무시간의 단축은 곧 수요와 공급의 균형을 맞출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또한 늘어나는 실업률의 개선책으로 주 5일 근무제를 시행함으로써 전국의 철도·교통·우편·요식업·여행업 등 서비스 산업에 백만여 명을 추가 취업시킬 수 있게 됐다.

더욱이 중국이 '94년에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격주 5일 근무제로 작업 효율성이 오히려 높아졌다고 한다. 중국 정부가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응답자의 80%가 하루 더 일하고 임금을 더 많이 받는 것보다 임금을 받지 않고 하루 쉬는 것이 더 좋다고 하는 등 주 5일 근무제는 국민들의 열렬한 지지를 받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주 5일 근무제 "땡하오(頂好)"

한산한 토요일 아침 거리. 눈에 띄게 줄어든 자동차로 인해 베이징시의 공기는 다소 맑아진 듯하다. 아침마다 전쟁을 방불케 하던 러시아워도 없고 기업마다 쓰레기 처리, 건물 경비 등에 쓰이던 안전 비용을 절감할 수 있게 되었다. 시민들은 문화·오락·학습 등의 활동을 할 수 있는 더 많은 여유가 생겼다. 충분한 휴식과 정신적 만족을 통해 그들은 더욱 의욕적으로 생산력을 창출하게 될 것이고 결국 국민경제에까지 좋은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중국 대륙의 수억의 사람들이 매주 이들의 휴일을 가진다는 것은 곧 방대한 오락 소비 시장이 형성된다는 것을 예고한다. 끊임없이 쏟아져 나오는 휴일 인파로 인해, 찬스에 민감한 상인들은 흥분과 도전을 느끼며 이 좋은 기회를 놓치려하지 않는다. 각 백화점과 쇼핑센터, 번화한 거리마다 늘어난 휴일을 겨냥하여 많은 아이디어와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손님들을 끌어 들인다.



주 5일 근무제의 가장 좋은 점은 개인 시간이 많아졌다는 것이다. 평소에 모이기 힘들었던 가족들이 쉽게 모일 수 있어 가족간의 연대가 더욱 두터워지게 되었다.

이러한 정책으로 말미암아 중국에 대부분의 휴일 인파는 전국 각지의 관광지와 각종 오락 장소로 몰린다. 한 예로 상하이(上海)시의 24개 극장에는 휴일마다 5만 명의 관중이 꽉꽉 들어 차는데, 이러한 현상은 앞으로 상하이 문화 예술계와 영화계의 발전에 있어 촉진제의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뭐니뭐니 해도 주 5일 근무제의 가장 좋은 점은 개인 시간이 많아졌다는 것이다. 떨어져 살아 평소에 만나기 어려웠던 가족들이 쉽게 모일 수 있어 가족간의 연대가 더욱 두터워지게 되었다.

또한 어떤 사람들은 늘어난 개인 시간을 자신의 발전에 투자한다. 대학교수인 시엔(戚) 씨는 “사람들이 더 많아진 휴식 시간으로 자신의 체력을 관리하고 지식을 습득하며 생활 방식에 변화를 가지게 되었다”라고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외자기업에 근무하는 우(吳)씨도, 연휴를 통해 많은 책을 읽고 나름대로 전문적인 능력을 향상시키고 싶다고 한다.

이런 사람들을 위하여 학원들은 휴일 특별반을 개설하기도 한다. 컴퓨터 속성반, 세일즈맨 양성반, 영어회화반 등을 토요일 오후와 일요일 오전에 별도로 개설하는 것이다. 이런 휴일특별반이 항상 초만원을 이루는 것은 더 말할 필요도 없다.

출판업계 또한 지식욕이 강한 사람들을 겨냥하여 휴일에 도서 전시 판매를 한다. 서점들은 쉬면서 책을 읽을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기도 하고 문화 살롱을 개최하는 등 새로운 아이템들을 끊임없이 창출하고 있다.

주 5일 근무제 “부hao(不好)”

주 5일 근무제가 나무랄 데 없이 완벽한 제도는 물론 아니다. 현재 중국의 경제인구 중 반수 이상의 사람들이 제2의 직업(본래 직업 이외의 돈벌이)을 갖고자 한다. 특히 이러한 경향은 중소도시와 지방 대도시의 근로자에게서 더욱 뚜렷이 나타난다. 따라서 이런 추세에 편승하여 실업률의 감소는 기대치를 못 미치게 될 것이라는 예측이다.

또한 근로자들의 근무시간만 감소하고 임금은 감소하지 않는다면 기업의 지출은 자연히

증가될 것이고 거기다 시간의 초과 근무 수당에 대한 부담까지 감당함으로 그렇지 않아도 어려운 국유기업들의 허리가 더욱 휘게 될 것이다. 특히 생산형 기업들은 노동시간과 이윤이 비례하기 때문에 매주 이틀을 쉬게 되면 근로시간이 4시간씩 줄어드는 셈이어서 월 생산액은 필연적으로 감소하게 된다.

중국에서 고소득자에 속하는 택시기사들의 원성도 만만치 않다. 출근하는 날이 하루 줄게 되면 택시 타는 사람들도 줄게 된다는 것이 그들의 이야기이다. 일반 사람들 중에 택시를 타고 자기 일을 보는 사람은 거의 없기 때문이다. 결국 토요일과 일요일이 되면 자신들도 덩달아 운전대를 놓아야 할 형편이라는 것이다.

베이징에 진출해 있는 외국 기업인들도 많은 불만을 표시했다. 현재 중국의 경제 상황은 노동력이 남아돌아 격일 교대 근무제가 일반화되어 있는 상태이므로 주5일 근무제를 실시한다고 해서 특별히 노동력 공급의 흐름에 변화가 올 상황이 아니라는 분석이다. “전체 노동력 공급의 흐름에 큰 변화가 없는 상황 아래서, 노동자들에게 선진국 수준에 가까워지고 있다는 착각을 줌으로써 복지가 향상된 듯한 느낌을 갖게 하기 위해 취해진 조치”라고 악평하고 있다. 중국이 아직 경제적으로 충분히 발달하지도 않았고 일자리 자체도 부족한 상황인데 현실을 무시하고 노동자들에게 관대하게 대한다는 것은 외국 기업들의 투자 의욕을 크게 꺾을 것이라는 우려이다.

이미 중국에 진출했거나 앞으로 투자할 기업들에게 주5일 근무제는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것은 중국이 값싼 노동력만을 제공하던 단계에서 서서히 벗어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실례이기도 하다.

주 5일 수업

주 5일 수업에 대한 교육계의 의견은 분분하다. 베이징 사범대학 부속 국민학교에서 2학기 동안 주5일 수업제를 시범적으로 시행했는데 교사와 학생들 모두 긍정적인 반응을 나타냈다.

그러나 경험많은 한 교사는, 교육의 분량은 줄지 않고 시간만 줄게 되면 자연히 교육의 질이 떨어질 것이라고 우려를 나타냈다. 즉 학생들의 사고력을 개발시킬 수 있는 교과과정의 경우 시간이 많이 요구되기 때문에 주 5일제 수업을 하면 생략될 가능성이 많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교과과정에 있어 균형있는 안배는 필수적인 것이다.

일부 열성과 학부모들은 벌써부터 가정교사를 두고 토요일과 일요일에 과외지도를 하고 있는데 이것은 앞으로 시대적 풍조로 자리잡게 될 것이다. 한 중학교 1학년짜리 학생은 주 5일 수업에 대해 “연휴 때는 숙제가 특히 많아요. 만약 주 5일 수업으로 바뀐다면 숙제는 더욱 늘어날 거예요”라며 난색을 표한다. 그럴 바에야 토요일에도 학교에 가는 편이 낫겠다고 한다.

초·중·고등학교가 5일 등교제로 바뀌게 된다면 수업시간은 1년 간 3600시간에서 2600~3,200시간으로 줄어들게 된다. 그러나 한 교육공무원은 수업시간의 단축이 수업의 질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단언한다. 그것은 9년 의무교육의 실시로 교과과정이 연결되어 학생들의 학습 부담이 줄어들 것이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참고: 『亞洲週刊』 1995. 5. 14. 조선일보(94. 2. 8, 95. 3. 25.), 국민일보(95. 3. 25.)

장강 유역의 경제개발 중심지 호북성 · 호남성 · 강서성

장강(長江:양자강) 중하류에 위치하고 있는 강서, 호북, 호남의 3개 성으로 이루어진 지역을 통상 화중(華中)지역이라 한다. 중국 국가계획위원회의 제8차 5개년 계획상 10대 경제구 중 양자강 중류 경제구로 지정되어 있다. 화중지역은 연해지역인 북경, 광둥, 절강, 섬서성과 붙어있어 연해와 내륙지역의 경제적 이점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으며, 경제특구 및 연해개발구의 발전을 내륙지역으로 확산시키는 데 가교역할을 할 수 있는 지역이다. 이 지역은 경제발전, 인구나 노동력, 자원 등은 모두 중간 정도 수준이나 지세, 기후 등 자연환경 면에서는 우수한 지역이다.

중국은 '92년에 개혁, 개방 정책의 열기 속에서 대외개방을 연안에서 내륙으로 확산시키는 정책을 제시하고, 장강 연안 5개 도시(무호, 구강, 무한, 악양, 중경시)를 개발하였다. 이 5개 도시 중 무한, 중경, 무호의 3개 도시는 이미 경제기술 개발구로 지정되어 개발이 한창이다.

호북성(湖北, 鄂, Hubei)



위치: 양자강 중류에 위치하고 있으며 서쪽은 사천, 북쪽은 하남, 동쪽은 안휘, 남쪽은 호남, 동남쪽은 강서성과 접하고 있다.

면적: 187,400만km²

인구: 5,580만 명('92년 현재)

인구밀도: 3,071명/km²

민족: 대부분 한족이나 토족, 회족, 만족, 미아오족, 몽고족 등 다양한 소수민족(3%)이 거주.

1인당 생산액: 3,242원(元)('92년 현재)

행정구역: · 성도(省都)-무한(武漢:Wuhan)

· 8개 지급시-무한(武漢), 황석(黃石), 양번(襄樊), 십언(十堰), 사시(沙市), 의창(宜昌), 형문(荊門), 악주(鄂州)시

· 6개 지구-효감(孝感), 황강(黃岡), 함령(咸寧), 형주(荊州), 의창(宜昌), 소양(鄖陽)지구

· 1개 자치구-악서 토가·묘족 자치구(鄂西土家族自治區)

· 그 밖에 22개 현급시, 46개 현, 2개 자치현으로 나뉘어 있다.

기후: 사계절이 뚜렷하며 연평균 기온은 15℃~17℃이다. 1월 중에는 22℃~4℃, 7월 중에는 27℃~30℃이나 무한 지역은 40℃ 이상 되기도 하는 혹서 지역 중의 하나이다. 연 강수량은 800~1,500mm

동정

호(洞庭湖) 북쪽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호북(湖北)'이라 불리우며, 중국에서 가장 호수가 많은 성이기도 하여 '천호(千湖)의 성'이라 불리우기도 한다.

기원 전 1천년 전부터 호북성은 한족의 영역에 포함되어 왔다. 그러나 호북성의 서부 지역은 동쪽과 달리 산악지대로 형성된 사천성 산악지대에 접해 있으므로 지금도 개발되지 않은 채 중국의 오지로 남아 있다.

경제적으로 볼 때 11세기 부터 쌀 생산이 정착되었다. 또한 19세기 이후에는 중국의 가장 대표적인 공업 지역의 하나로, 지금까지 중국의 과학기술을 이끌어 오는 무한대학이 있다. 호북성은 또한 1911년 청조 멸망과 공화정의 탄생이 있게 한 신해혁명(辛亥革命)의 봉기지역으로 주목할 만한 곳이다. 이후 장개석의 국민당 우파 정권인 상해 정권과 맞서 송경령(宋慶齡) 여사 등 국민당 좌파가 수도로 삼았던 곳이기도 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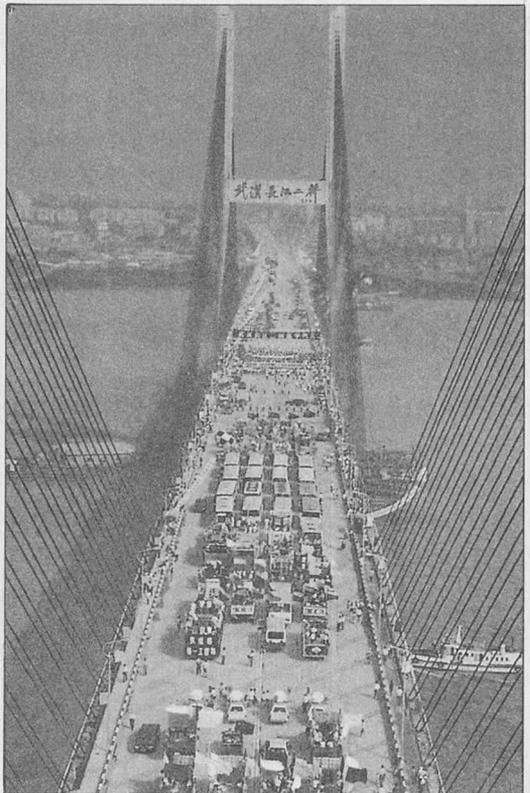
호북인들의 성격과 특성은 주로 농업에 종사하는 데서 많은 영향을 받았다. 소박하고 투박하며 잔꾀를 부리지 않는 성격의 사람들이다.

중국 과학기술의 산실 무한(武漢)

성도 무한(武漢)은 장강 중류 물줄기와 한수(漢水)가 교차하는 지점에 위치한 인구 375백만의 상공업 도시이다. 옛부터 수륙교통의 요충지였는데, 무한대교의 완성으로 다시 그 역할이 높아졌다. 명대 이후부터 일찍이 '무한삼진(武漢三津)'이라고 하여 장강과 그 지류인 한수로 갈라지는 무창(武昌), 한구(漢口), 한양(漢陽)이 각각 별개의 도시였으나 지금은 이 세 지역을 합쳐 무한이라고 부른다. 양자강 유역의 남경, 중경과 함께 중국의 '3대 화덕'이라고 불리울 정도로 무더운 지역인데 그 중에서도 가장 더운 도시이다.

명대 이후부터 중국의 4대 행정도시 중의 하나로, 5대 통상 항구의 하나로 꼽히기도 하였다. 20세기 초에는 대외무역액이 상해에 이어 중국 전체에서 제2위를 차지하여 '동방의 시카고'라는 별칭을 얻은 적도 있다. 신중국 성립 이전, 외국의 조계지였기 때문에 지금도 서양식 건물이 많이 남아 있다.

중화인민공화국이 성립된 이후 줄곧 국가의 투자 중점지구로 중요시 되어온 무한은 이제 중국 3대 철



최근 개통된 무한 '장강2교' 기념식에 몰려 든 차량 행렬.

강 공업지대의 하나로 자리를 굳히고 있다. 호북성 정부 소재지일 뿐 아니라 성 전체의 정치, 경제, 과학 기술, 문화의 중심지이기도 하다. 더구나 화중지구에서 특대형의 중심도시에 속하는 무한은 그 우월한 투자환경으로 해외 기업가들의 관심을 끌고 있다.

화중의 중심 유통시장 한구(漢口)

한구는 인구 120만의 도시로 화중 3성(호북, 호남, 강서) 지역의 중심 유통지이다. 중국의 양자 수륙 운수선의 교차지점에 위치, 수로 무역이 발달한 세계적인 항구로 8개 성의 산물 유통시장을 형성하고 있다.

함풍(咸豐) 8년, 천진 조약 이후 개항과 함께 발전하기 시작하였다.

삼협(三峽)의 출입구 의창(宜昌)

호북성 서부, 상하이에서 장강을 1,850km쯤 거슬러 올라간 곳에 발전한 지역으로, 그 유명한 관광지인 장강삼협(長江三峽)의 출입구이다. 또한 장강 연안

의 중요한 항구 도시로 10여 년 만에 급속한 발전을 이룩한 신흥도시이기도 하다. 1970년부터 갈주패댐 건설이 시작되어 48억 원(元)의 자금과 18년의 세월이 걸려 이 공사가 1988년에 완공되었다. 이 갈주패댐 상류 40km지점에 저수량, 출력 다 함께 세계 제일인 삼협댐 건설이 결정되었다. 이러한 댐들이 완공되면 상해, 남경, 항주와 북경, 천진, 당산, 그리고 광주항 및 마카오 등에도 전기가 공급된다고 한다.

토가족, 묘족의 근거지 은시(恩施)

호북성의 이웃 사천성으로 넘어가는 중계지역이다. 호북성 서부 방향의 오지인데 이곳을 지나가면 과거 사천성으로 향했던 유비와 관우, 장비, 그리고 제갈공명의 계략이 맞아 떨어졌다는 것을 느낄 수 있다. 이 같은 지리적인 오지로 인해서 이곳은 항일 전쟁 중 호북성의 임시 성도가 되었다. 현재 호북성 남서부에 위치한 토가족(土家族), 묘족(苗族) 자치주의 도움이기도 하다.

기독교 역사

1949년 공산화 이전 중국내지선교회(CIM)는 호북성에서 선교사들뿐만 아니라 많은 중국인 사역자를 통하여 그 사역을 개척하였다. 이러한 교회의 토착화는 호북성에 많은 수의 기독교인을 배출할 수 있었다.

중국의 대부분의 지역에서처럼 최근에 제한조치들이 완화되면서 몇몇의 가정교회는 다른 가정교회들이 여전히 지하에 있는 것과 반대로 공개적으로 모이기 시작했다. 많은 삼자교회들이 다시 열리고 규칙적으로 모인다. 그러나 여전히 모든 교회의 기독교인들은 성경을 원하고 있다.

호북성 무한의 삼자애국운동위원회와 중국 기독교협회 지도자들이 그 지역을 방문한 방문객에게 1988년에 전한 바에 따르면 호북성의 그리스도인은 8만 명이다.

호남성(湖南, 湘, Hunan)



위치: 양자강 중류 남부에 위치하고 있으며, 동쪽으로는 강서, 서쪽으로는 귀주, 남쪽으로는 광서, 광둥성, 북쪽으로는 호북성에 접경하고 있다. 산지가 64.6%, 평원이 6.6%, 구릉이 28.7%를 차지하는 복잡한 지형을 구성하고 있다.

면적: 212,000km²

인구: 6,627만 명('92년 현재)

인구밀도: 352명/km²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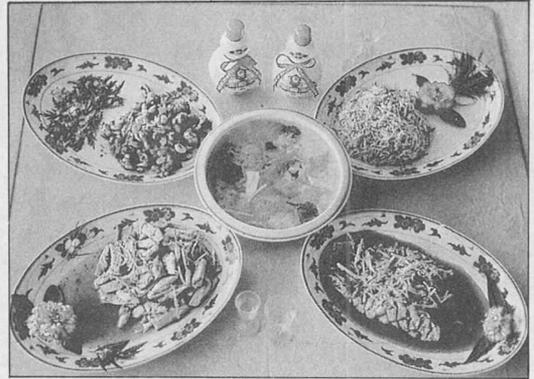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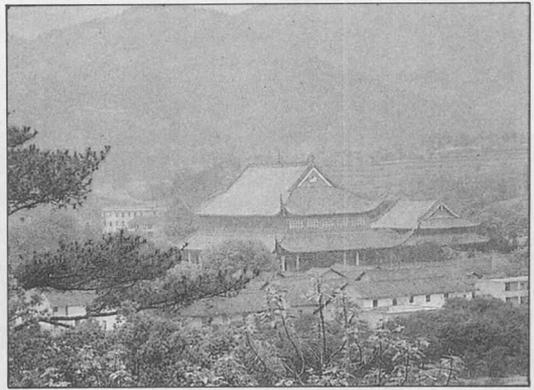
민족: 한족이 대다수이고 회족, 만족, 묘족, 토족, 위구르 족 등 소수민족은 5.95%이다. 대부분 상강(湘江) 서쪽과 남쪽 산지에 거주한다.

1인당 생산액: 2,350원(元)('92년 현재)

행정구역: ·성도(省都)-장사(長沙:Changsha)

- 8개 지급시-장사(長沙), 주주(株州), 상담(湘潭), 충양(衡陽), 소양(邵陽), 악양(岳陽), 상덕(常德), 대용(大庸)시
- 5개 지구 - 치주(郴州), 영능(零陵), 류저(類底), 회화(懷化), 익양(益陽)
- 1개 자치주-상서 토가·묘족 자치주(湘西土家族苗族自治州)
- 그밖에 71개 현, 7개 자치현으로 구성되어 있다.

기후: 겨울이 짧아 식물 생장기가 긴 것이 특징이며 연평균 기온은 15℃~19℃(1월 중에는 3~8℃, 7월 중에는 27℃~30℃)이다. 장사(長沙), 위양(衡陽) 등지는 40℃까지 올라가는 혹서로 유명하다.



◀ 장사에 있는 모택동의 생가
 ▲ 형산(衡山)의 사원
 ▲ 상강(湘江) 유역에서 나는 신선한 재료로 만들어진 호남 요리

동정

호남쪽에 위치해 ‘호남’이라 부르게 되었다. 성내 최대의 강인 상강(湘江)이 전성을 관통하고 있기 때문에 ‘상(湘)’이라는 지명으로 불리우기도 한다.

호남성은 무릉도원으로 유명한 무릉원(武陵院)과 동정호가 있는 악양호(岳陽湖)로 유명하다. 또한 역사적으로는 중국 공산주의의 고향으로도 유명하다. 모택동을 비롯해 이대교, 유소기, 호요방 등 중국의 역대 지도자들이 이곳 출신이다.

호남성은 8세기 이래로 중국의 대표적인 미곡 생산지이다. 농업의 집약도가 높아 70년대 이래 벼의 파종 면적 및 생산량이 전국에서 으뜸을 차지하여 왔다. 벼를 포함한 식량 총생산량은 2,260만 톤(1992)이며 1인당 평균 식량 보유량은 418kg으로 전국 3위이다. 그러나 상강수의 생산물이 가공도가 낮아 총생산액이 적으며 농민 1인당 소득 역시 저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호남성은 광물자원이 비교적 풍부한 지역이기도 하다. 현재 이미 탐사된 광물로는 동, 철, 망간, 안티몬, 아연, 석탄 등 90여 종이 있다. 그 중에서 유색금속의 매장량이 풍부하여 사람들은 호남을 ‘유색금속의 고향’이라고 부른다.

호남성은 중국 군인들의 고향이자 많은 관원들의 출생지이기도 하다. 충실하고 정직하며 강렬한 자아의식과 거친 반항정신은 이곳 주민들의 특성이다. 중국 군대의 주요한 인력 공급처이지만 반대로 금융업, 상업계에서는 호남 사람을 찾아볼 수 없다. 이 밖에 성내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향해 운수업에 종사하는데 성 밖으로 나가서 향해 운수업에 종사하는 사람은 극히 적다.

공산주의의 고향 장사(長沙)

호남성의 성도인 장사는 ‘담(潭)’이라는 간략한 명칭으로 불리우며 동정호의 남쪽에 위치한 인구 약 133만 명의 도시이다. 2천년의 역사를 간직한, 자연풍경이 수려한 고도의 도시로 호남성의 정치, 경제, 문화 중심지이다. 또한 모택동, 유소기, 주은래 등이 일찍이 이곳에서 공산정부를 조직하는 등 혁명가를 배출한 혁명 투쟁의 고향이기도 하다.

호남성 내 산물 집산 시장이며 상업 중심지로도 유명하다. 상업지구는 상강의 동쪽에 집중되어 있으며 상강의 서쪽은 문화, 과학 연구 및 관광지구, 동서 양안은 새로 세워진 상강대교에 의해 연결되고 있다. 1904년 개항 이래 무역이 활발해졌고 한구(漢口) 상업권의 종속관계로부터 협조관계로 변화되었다. 현재는 경공업, 방직, 기계계를 주로 하는 종합 공업도시로 점점 발전하고 있다.

‘등악양루’로 유명한 악양(岳陽)시

호남성 최북단 동정호 호반의 도시로, 동정호와 장강

의 지류가 합쳐지는 지점에 경광선(京廣線)이 지난다. 인구 44만에 지나지 않는 지방 도시이지만 2천년의 역사가 흐르는 그윽한 도시이다. 옛날에는 악주(岳州), 혹은 파릉(巴陵)이라고 불리웠다. 성당(盛唐)의 시인 시성 두보(杜甫)의 시 '등악양루(登岳陽樓)'로 인해 중국은 물론 세계적으로 유명한 관광지가 되었다. 예로부터 호남, 호북의 수운을 연결하는 중심점이다. 현재 쌀, 차, 면화 등의 산물을 배로 장사와 한구까지 운송하는 지점이기도 하다.

호남성의 문호(門戶) 충양(衝陽)시

호남성 남부의 주요 도시로 예로부터 '호남문호(湖南門戶)'라 불리웠다. 광업, 유색금속, 야금공업이 비교적 발달하였다. 또한 유구한 역사를 간직한 도시로 명승고적이 많다. 이백(李白), 두보, 유종원(柳宗元) 등이 일찍이 이 지역을 유람하고 유명한 문학작품을 많이 남겼다.

기독교 상황

전세계 약 9개국의 선교회와 20개국의 교파들이 이곳에 파견되어 있었다. 1949년 공산혁명 이후 공산 정부

는 기독교인들을 도시와 마을에서 완전히 추방했다. 수십 명의 기독교인들이 처형당하거나 노동 수용소로 보내졌다. 중국의 가장 위대한 선교사 중 하나인 허드슨 테일러는 1905년 73세의 나이로 장사에서 세상을 떠났다.

한때 호남성 교회는 영은파(靈恩派) 및 일부 극단적인 신비주의 종파의 도전을 받아 허다한 논쟁이 야기되기도 하였다. 현재 신학교육과 목회자 양성의 결핍, 성경과 신앙서적이 부족이 이들의 가장 큰 어려움이다. 도시의 성도들은 물질과 금전의 시험을 받고 있고 농촌의 신도는 정부의 감시를 받고 있다.

호남성은 참예수교회의 발전이 매우 신속하며 영향력도 비교적 크다. 일부 신도들은 자기 교파의 구원관을 견지하여 쟁론을 야기함으로써 여타 신도들에게 상처를 주기도 한다.

장사시에는 반 공개적인 맹인교회도 있어 여러 명이 참석하고 있다. 신도들은 대다수 농촌에 있으므로 통상 소교회라고 불리워지는 곳에 모인다. 호남성의 기독교회는 사회사업에 열심히 참여하고 있다. 예를 들면 시 교회에서 벌이는 노인 및 병자 가정사역 등이 그것이다.

강서성(江西, 贛, Jiangxi)



위치: 중국 중남부에 있는 성으로 북으로는 호북성과 안휘성, 동으로는 절강성과 복건성, 남으로는 광둥성 그리고 서쪽은 호남성과 경계를 이루고 있다.

면적: 166,600km²

인구: 3,913만명('92년 현재)

인구밀도: 235명/km²

민족: 대부분 한족이며, 소수의 묘족, 요족, 회족 등이 있다.

1인당 생산액: 2,415원(元)('92년 현재)

행정구역: · 성도-남창(南昌:Nanchang)

- 5개 지구-상요(上饒), 의춘(宜春), 무주(無州), 길안(吉安), 무주(撫州)지구
- 6개 지급시-남창(南昌), 경덕진(景德鎮), 평향(萍鄉), 신여(新余), 구강(九江), 응담(應潭)시
- 이 외 10개 현급시, 74개 현으로 구성되어 있다.

기후: 아열대 지방에 위치하고 있어 온난 다습하나 4계절이 뚜렷하고 봄 가을이 짧으며 여름과 겨울이 길다. 연평균 기온은 17~20℃ 정도이나 분지이기 때문에 연교차가 커서 겨울은 6℃이하 여름은 29℃ 이상에 달한다. 강우량은 1,200 ~1,700mm로 풍부한 편이다.

강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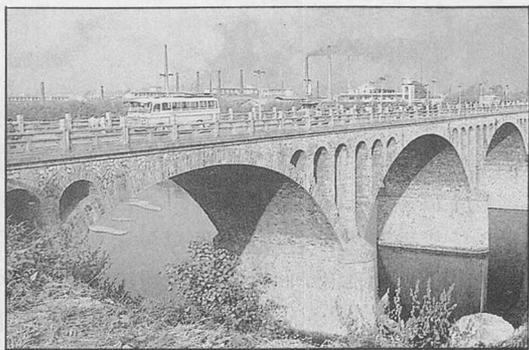
성은 일찍이 중국의 황하 문명권에 포함되었다. 그러나 8세기에 이르러 한족의 대량 이주가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산발적인 지역에서만 주거가 이루어졌을 뿐이다. 강서성에 한족 이주가 시작된 것은 광동성이 개발되면서부터이다. 이후 강서성은 인근 동부 연안의 성처럼 비단과 차 재배로 인해 부를 축적하기도 했다.

“강서 라이비아오(江西老表)”는 강서인들이 타향에서 서로 만나게 될 때 형제애를 표현하는 말로 성실하고 꾸준한 강서인의 성격을 나타내는 방언이다. 산과 구릉이 많은 지역적 특성으로 강서인들은 검소하고 꾸준하며 서두름이 없다. 인접한 호남 사람과 뚜렷하게 다르다. 기본적으로 군사적 기질이 없고 소상업 면에서 아주 훌륭한 소질이 있어 장강 중, 하류 지역의 소규모 상권을 장악하고 있다. 산서, 광둥 사람과 마찬가지로 계산에 능하지만 소상업에만 국한되어 있다. 호남사람처럼 굳세지 못하며, 사람들에게 좋은 느낌을 주는 부드러움도 결핍되어 있다.

이 지역은 중국 현대사에 있어 찬란한 혁명 역사를 지니고 있다. 2만 5천리 대장정의 시발지역인 모택동과 주덕의 정강산(井崗山) 소비에트 지구, 남창, 서금, 안원 등 역사적 사건이 일어났던 지역이 있기 때문이다.



인근 유조선과 석유화학 공장을 연결하는 구강의 정유공장 파이프 라인.



▲연기나는 굴뚝이 숲을 이루고 있는 경덕진. 창강(昌江)과 호전강(湖田河)이 만나는 지점이다.

▲길가에 길게 늘어놓은 각종 각색의 도자기들.

혁명의 역사가 흐르는 남창(南昌)

강서성의 성도로 정치, 경제, 교통, 문화 중심지이다. 면적은 617km², 인구는 135만 명이며 시는 강과 호수로 둘러싸여 있다. 도시의 동쪽은 유명한 청산호수가 공강을 관통하고 있고 시내에는 동호, 서호, 남호, 북호 네 개의 호수가 있다. 1927년 8월 1일, 주은래(周恩來), 주덕(朱德), 하룡(賀龍) 등이 지도하는 3만의 공산군과 국민당군 사이에 벌어졌던 격렬한 전쟁인 ‘81 남창기의’가 일어난 곳이기도 하다. 이 사건으로 중국 공산당이 영도하는 혁명전쟁과 혁명군대를 창건하는 신시기가 시작되었다.

남창은 유명한 수산물 생산지로 ‘봄에는 메기, 여름에는 잉어, 가을에는 연어, 겨울에는 모살치’가 많이 난다. 이외에 방직품, 토산품, 경공업품, 공예품, 광산품, 화공의약, 기계 등 99개 수출상품을 60여 개 국가와 지역으로 판매한다.

항구와 강의 도시 구강(九江)

여산의 입구가 되는 구강은 장강 중류 남안의 주요 항구도시 중의 하나이다. 많은 강물이 모여 드는 곳으로 옛날 사람들이 9를 많은 수로 생각했기 때문에 구강이라는 이름이 붙여진 것이다.

옛 도시 구강은 기원전 221년 진시황이 구강군을

설립한 후부터 지금까지 이미 2000여 년의 역사를 자랑하고 있다. 구강은 강과 호수를 끼고 있고 지세가 험악하여 역대 병술가들이 앞을 다투어 쟁취하고자 하는 땅이었다. 청대 태평천국 시기에는 태평천국의 3대 거점중의 하나로 '천경(天京)'을 시수하는 주요 병풍이었다.

구강은 옛부터 상업이 발달하여 '일급 성의 관문'이란 별명이 있고 특히 남북교통의 축으로 쌀, 차, 도자기의 집산지이다. 방직업이 전 시의 공업 주도권을 차지하고 있다. 주요 상품으로 휘발유, 석유, 채유, 연료유 등이 있다.

여산진면목(廬山眞面目)

세계적인 관광지 여산은 최고봉인 대한양봉(大漢陽峰)을 중심으로 고립된 산계이다. 깎아지른 듯한 바위, 절벽과 맑은 샘, 폭포 등 수려한 경치를 자랑하는데, 특히 폭포는 천하에 이름이 날려 예로부터 그 기이함과 수려함은 천하제일이라 칭송되었다. 사계절 내내 좋은 날씨, 온천 등으로 관광객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고 있다. 특히 소동파가 노래한 시귀 중 "여산진면목(廬山眞面目)"이란 말은 여산을 더욱 유명하게 하였다.

여름의 휴서로 유명한 장강 중류 지역에 해당하면 서도, 7월의 평균기온이 22.6℃로 서늘하여 옛부터 유명한 피서지 겸 명승지이다. 실제로 토맥동도 여산을 좋아하여 자주 방문했다. 매년 여름 여산에는 매일 평균 2만 명에 달하는 국내외 관광객을 유치하고 있다.

도자기 도시 경덕진(景德鎮)

강서성의 두 번째 도시이며 역사문화의 고도이다. 2000여 년의 도자기 역사를 지니고 있어 '도자기 도시'라는 영예를 가지고 있다. 이곳에서 생산되는 도자기는 품질이 우수하여 '회기는 옥과 같고, 맑기는 거울 같고, 얇기는 종이 같으며 소리는 풍경소리 같다'고 한다. 특히 송(宋) 경덕 연간(1004-1007년)에 생산되었던 도자기는 너무 아름답고 영롱한 광채를 지녔다. 이것이 당시 세계적으로 유명한 '경청자기(景靑瓷器)'로, 그 밑에 '경덕년제(景德年制)'라고 썼기 때문에 진(鎭)의 이름이 '경덕진'이 되어 오늘날까지 쓰이고 있다.

도자기외에 경덕진의 전력, 건축, 전자, 화공, 의약, 기계, 방직 등 공업도 비교적 큰 발전이 있었다. 현재 인구는 약 50만 명이며 절반 가량이 요업에 종사한다.

시내의 서편을 흐르는 창강을 북쪽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고령산이 있다. 예로부터 이곳에서 채취되는 점토가 고령토라고 불리는 것도 이 때문이다.

약(藥)의 도시 장주(章州)

장주시의 약업은 유구한 역사를 갖고 있다. 삼국시대부터 전문적인 약내 노점이 출현하였다. 동한(東漢)의 갈현이란 사람이 장주에 와서 약초를 캐어 단약을 만들기 시작하면서부터 역대의 명의들은 이곳을 끊임없이 찾았다.

장주의 약업은 약재가 헤아릴 수 없이 많고 그 제조술도 다양하다. 또한 장주의 약제 경영망은 장강 이남에 널리 분포되어 전국과 연결되어 있는데다 장주 자체가 수륙교통이 편리하여 각종 약재를 거의 모두 수집, 구매할 수 있으므로 사람들은 '장주가 아니면 약종이 완전치 못하다'고 말하고 있다. 유구한 역사는 또한 장주의 약업이 조제술에서 특이하고 완벽한 체계를 이루게 하여 독특한 방법을 사용하고 있다.

매년 가을이면 각지의 약제 종사자들이 장주에 모여 1년에 한 번씩 열리는 전국약재교류회를 갖는다. 대외개방정책이 실시되면서 약제시장도 확장됨에 따라 약재교류회의 규모는 날로 확대되고 있다.

기독교 상황

1949년에 전 성(省)을 통틀어 900개가 넘는 교회들이 알려져 있었다. 이 가운데 많은 수가 워치만 니에 의해 설립된 소군파(小群派: Little Flock) 교회들이었다. 제칠일 안식교, 감리교, 성공회, 중국내지선교회, 그리고 형제단 등 모두가 이 지역에서 교회와 기독교인들의 집회 장소뿐 아니라 학교와 병원들을 운영하면서 실질적인 사역을 수행해왔다. 문화대혁명 동안 몇몇 유명한 중국의 복음 전도자들이 강서성에서 처형되었으나 교회는 소멸되지 않았다. 여기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매우 굽주려 있으며 복음사역을 위해 기꺼이 희생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사실이 보고되고 있다.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

시슈에(茜雪)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마 5: 11-12)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버린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마 19: 29)

우리

들은 주님의 보혈로 사신 바 된 존재이니 마땅히 주를 위해 살아야 한다. 우리의 몸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산 제사로 드리는 것이 우리의 드릴 영적예배라고 사도 바울은 말했다. 하나님의 특별한 부르심이 없다면 우리는 지금 있는 위치에서 하나님을 섬겨야 할 것이며, 만약 하나님이 우리들을 기도하는 것과 말씀 전하는 것에 전념하라고 부르셨다면 우리들은 마땅히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라야 할 것이다.

내 몸은 악하나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은 그가 나를 부르셔서 전심을 다해 기도하고 전도하는 일꾼으로 삼으신 것이다. 나는 몸이 몹시 허약한 사람이었다. 선천적으로 허약한 체질을 타고난 데다가 영양실조가 겹쳐 더욱 그러하였다.

내가 모태 중에 있을 때 어머니의 건강상태는 무척 좋지 않았다. 피골이 상절할 정도로 매우 여위었던 어머니는, 보통 임신한 부인들이 대략 2, 3개월 입덧을 하는데 비해 나를 낳을 때까지 계속 입덧을 했다고 한다.

조산아로 태어난 나는 좋은 모유로 양육받지 못했고, 좀 더 자라 밥을 먹을 시기가 되었는데도 전혀 먹지 못했다. 나는 어려서부터 허약하고 병치레가 잦았다.

국민학교 6학년 때 학교에서 신체검사를 했는데 같은 반 친구들의 체중이 평균 30kg 가량이었는데 비해 나는 25kg 밖에 되지 않았다.

대학교에 진학하여 기숙사에서 생활하게 되었다. 학교 규정상 저녁식사 1시간 전에는 학생들 모

두 단체 레크레이션 활동에 참가해야 하는데, 만약 참가하지 못할 사정이 생기면 반드시 학교의 허락을 받아야 했다. 나는 레크레이션 시간마다 장기 병가를 신청했다. 몸이 너무 약하여 도저히 다른 이들과처럼 활동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그때 나는 처음 주님을 알게 되었고 그분을 믿게 되었다. 주님은 나로 끊임없이 기도하는 것을 배우게 하셨다. 다른 학생들이 밖에서 레크레이션 활동을 할 때 나는 침대에 누워 휴식하면서 조용히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을 가졌다.

졸업 후 난 어떤 현(縣)의 중학교 교사가 되었다. 중학생을 가르치는 것은 비교적 수월해서 별다른 수업준비를 할 필요가 없었다. 학교측에서는 내 건강을 고려하여, 매주 22시간의 수업을 해야 하는 다른 교사들과 달리 매주 15시간만 수업을 하도록 조절해주었다. 그대신 월급은 다른 교사들보다 적게 주었다. 커리큘럼에 있어서도 수업시간이 2시간 연달아 있지 않게 배려해 주었다.

학교에서 근무한 지 6개월이 지난 후 하나님의 부르심이 분명하여 나는 전심으로 기도와 전도를 하는 사역자의 길을 걷게 되었다.

리에게 고난을 이길 수 있는 은사를 주시는 것 같다.”라는 말을 들은 적이 있다. 나는 이 말을 내 삶 속에서 직접 경험하였다.

“제 자신을 철저히 당신께 드리길 원합니다. 희생제물의 가족을 벗기고 각을 떠서 결국은 불살라 재가 되는 것처럼 그렇게 저를 드리겠습니다.”

식사기도는 기독교인들의 가장 기본적인 신앙생활의 표현이다. 만약 내가 이것조차 지킬 수 없다면, 내가 살아가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나는 누가 뭐라 해도 식사기도하는 것을 계속 고수하기로 마음먹었다.

조장은 내가 식사 전에 기도하는 것을 보면 내 밥을 가져가 먹지 못하게 했다. 나와 한방을 쓰는 십여 명의 사람들이 있었는데, 조장은 누군가 자기와 한 통속이 되어 나를 꺾박하지 않으면, 그 사람에게 가서 입장을 분명하게 하라고 다그치곤 했다. 그렇기 때문에 몇몇 사람만 나를 동정하고 대다수는 그녀와 한패가 되어 나를 괴롭혔다.

조장은 매우 오만했고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자주 했다. 어떤 때는 소그룹 학습을 하면서 나에게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있으면 어디 좀 보여달라”고 했다. 그녀는 끝까지 나를 몰고 늘어졌다. “이건 너가 죽고 내가 사는 투쟁이니 우리 둘은 끝장을 봐야 한다”

누가 죽고 사는 것은 하나님이 결정하는 것이다. 만약 내가 죽는다면 세상을 떠나 주와 함께 살게 되니 비할 바 없이 행복할 것이다. 만약 내가 산다면 하나님은 나의 약한 몸을 책임지실 것이다. 그렇지만 그때 나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는 사람이 측량할 수 없을 정도로 크고 놀랍다는 것을 온전히 믿



장승원 그림

농장에서 받은 고난

내가 노동개조하러 가게 되었을 때 어떤 지체들은 나같이 허약한 사람은 반드시 그곳에서 죽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처음 농장에 도착했을 때는 가장 가벼운 노동만 할 수 있을 따름이었다. 그것은 작은 의자에 앉아서 하는 일이었다. 그렇게 쉬운 일을 하는데도 여전히 병가를 요청해야 했다. 왜냐하면 그때 내가 심장병을 앓고 있어, 어떤 때는 계속 앉아 있을 수 없을 정도로 심장이 뛰었기 때문이었다. 농장의 의료 종사자는 “당신 심장병은 고질병이라 완치될 수 없다.”고 했다.

나는 이전에 어느 형제로부터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그를 위해 고난받는 것을 허락하실 때 우

우리 농장에서는 매일 저녁 조별로 모여 학습을 해야 했다. 내가 속한 학습조 조장의 침대가 내 침대 옆에 있었는데, 그녀는 늘 나를 꺾박했고 내가 식사기도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다. 이 사실을 안 어떤 사람이, 나에게 눈을 감지 말고 은밀히 기도해도 되지 않겠느냐고 조심스럽게 권민한 적이 있다. 나는 내가 만약 그런 상황에서 굴복한다면 이것은 주님과와의 관계를 끊는 것이며 더이상 주님께 속하지 않음을 인정하는 것과 똑같다고 생각했다. 그것은 주의 이름을 부인하는 것과 다를 바 없는 행위라고 여겼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미 현명한 사실을 떠올렸다. 나는 이미 하나님 앞에서 결단한 바 있다.

을 만큼 신앙이 굳건하지 못하였다.

주의 은혜가 족하여

그 때 나는 형편없이 말랐었다. 사람들은 조장과 나의 관계에 대해 의견이 분분하였다. 어떤 이들은 내가 곧 그녀 손에 죽을 거라고 말했다. 어떤 사람은 이 상황을 책임자에게 보고하여 조장으로 하여금 더이상 나를 괴롭히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도 말했다. 그러나 그녀는 듣지 않았다. 그녀는 반드시 나를 짓눌러야만 체면이 서는 줄로 알고 있었다. 그녀는 종종 비꼬는 어투로 내게 시비를 걸어왔다.

“너는 하나님을 믿지만 여전히 이렇게 말라깽이잖아? 봐. 하나님을 믿지 않는 내가 너보다 훨씬 살이 쪼고 건강하다. 그러니 하나님이란 없는거야!”

그녀는 정말로 건강해서 한 번도 병에 걸린 적이 없었다. 그런데 그녀가 나에게 그런 말을 하고 나서 며칠 못 가 쓰러져 버렸다. 심장이 심하게 뛰고 고혈압이 높아졌다. 나의 심장병은 그 때부터 도리어 좋아지기 시작했다. 내가 앓던 병이 그녀에게 간 것이었다. 그 와중에서도 그녀는 매우 강박하여 두 차례나 혈압이 올라 위독한 상태까지 갔으나 여전히 회개하지 않았다. 병세가 조금 호전되자 또 나를 핍박하려 했다. 얼마 후 그녀는 물에 빠져 익사했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롬 2:6)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뇨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



장승원 그림

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고전 3:16-17)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틀림이 없다. 그분은 말씀대로 그 약속을 실행하신다.

병든 내 몸이 튼튼하며

보통, 사람이 큰 병을 앓고 난 후에는 반드시 어느 정도 잘 보양해야만 신체가 원래 상태로 회복될 수 있다고 한다. 내가 농장에서 받은 고통은 몇 차례 큰 병을 치른 것과 다를 바가 없었다. 농장의 식사는 매우 열악했다. 쌀은 동물에게 먹이는 사료쌀이고, 반찬은 아침, 저녁 모두 찌지뽕이었다. 아무런 영양가, 기름기도 없는 음식만을 먹었다. 나는 몇 년 동안 하루 세 끼 그런 식사만 하였고 영양가 있는 음식은 입에도 대지 못했다. 하지만 몸은 오히려 많이 좋아지는 것을 느꼈다.

어떤 사람은 나를 핍박하던 조장이 내가 가지고 있던 병을 가지고 갔다고 말했다. 하나님을 모르는 그들의 생각에도 악인은 벌을 받는다는 사실이 명백한 진리였

나보다. 어떤 천주교 신자는 농장 책임자에게 “핍박하는 자는 죽었고, 핍박받던 사람은 오히려 좋아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이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다. 책임자도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

“하나님이 어디 계시나? 어디 좀 보여달라”고 비꼬며 나를 괴롭혔던 그 조장을 통해 하나님은 당신의 크신 능력을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주셨다. 우리 모두가 그걸 직접 눈으로 보았다. 하나님은 확실히 공의의 심판으로 그 자신을 나타내 보이셨다.

말로 다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한다. 나의 생애가 끝나는 그 순간까지 주님을 찬양하며 살아갈 것이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알게 하사 심판을 행하셨음이여 악인은 그 손으로 행한 일에 스스로 엮혔도다”(시 9:16)

나의 위치

방지일

**“김린서 장로의 ‘중국 사람되랴’는 말씀이 좋은 교훈되고
가난한 주민 손발 노릇… 간격 없어져,
서양 선교사는 고문되어 달라 부탁도”**

이런 제목하에서 글을 쓰기가 조심스럽다. 자기 자랑이 되기 쉬울까 두려워서다. 어떤 위치에서 일하다가 왔는가 나를 보낸 모교회에서 혹 알고 싶기도 할성 싶어 한번 적어보기로 한다.

내 자신이 처한 위치

이미 진술한 대로 내가 일하는데 있어 가친의 후광이 컸던 것을 잘 알고 있다. 그 때문에 중국 사람들과 쉽게 익숙해질 수 있었고 또 많은 존대를 받았다. 이런 위치에서 나는 내 몸을 아끼지 아니하였다. 시간적으로 밤이요 낮이요, 일기 순불순의 관계없이 내 할 일을 솔선하여 감당하며 영세민을 돌보는 데 전력을 다하였다. 직장을 알선해 주는 일, 자전거에 같이 태우



고 다니면서 직장을 구해준 일 등, 저들의 생활을 돌보는 데 최선을 다한 것이다.

때때로 그들과 같이 먹고 같이 자곤 하였다. 피차에 아무 간격이 없었다. 저들도 무슨 일이든지 작고 큰일을 가리지 않고 내게 다 의논하고 보고하였다. 여행을 하면서 내게 보고하지 않고 길을 떠나는 교인이 없었다. 자신의 일이나 집안 일, 사업의 일 등을 일일이 보고하곤 하였다. 그들의 사정을 나는 다 알게 되었다. 내가 알고 도울 일은 힘껏 도와주었다. 젊은 사람은 거의 ‘아버지’의 칭호를 하였다. 혹 ‘영의 아버지’ 이렇게 부르곤 하였다. 밤중이라도 나를 찾는 때가 많았다.

수십리 백리 밖에서라도 찾아온다. 의논하려고 해서이다. 같이 먹고 같은 자리에 간격없이 앉고 같이 사는 일, 특히 가난한 이들과 이렇게 같이하기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다. 무슨 내 지위가 다르다 해서가 아니라 본시 저들의 생



활이 곤궁하다보니 웬만하면 저들이 자기 안방에 나를 청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저들이 먹는 대로 같이 먹자고도 못하게 되었다. 가난한 저들은 파 한 뿌리가 반찬이었다. 밥에서 뿔어서 껌질을 벗겨 그대로 굵은 떡과 같이 더운 물을 마시면서 먹는다. 나는 그들과 같이 먹었다.

방 목사는 생과를 좋아한다고 소문이 났다. 먹는 데서 간격이 없어졌다. 그 후부터 다 통하게 된 것이다. 참으로 이들과는 한 몸이 되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같이 나눌 수 있었던 것이 나의 흐뭇한 자랑이다. 목사로서 이 이상 바랄 게 없다고 보았다. 무슨 상담이든 지 내외 간의 일이나, 친자간의 일이나, 고부간의 일이나 저들의 모든 문제는 다 가지고 오곤 했다. 오전에 시어머니가 오면 오후엔 며느리가 오는 것이다. 이렇게 고부간의 문제도 좋도록 화해로 이끌어 보기도 했다.

김린서 장로(후에 목사 되심)께서 필자가 떠날 때 “중국 사람이 되라”, 이런 말을 주셨는데 나

는 내 생활도 내 마음도 저들과 하나되어 사는 데 큰 맛을 보았다.

다른 이가 보여주는 나

다른 이들이 내 앞에서 나를 칭찬해서 하는 말을 그대로 받음은 약간 어리석은 일일 것이다. 이도 함부로 표현하지 않는 것이 옳을 것이다. 그러나 진지한 심정으로 말하여 주는 것을 나는 느끼는 바이다. 서구 선교사들이 내게 대해서 “방 목사는 어떻게 중국 사람의 마음을 다 잡았는가?” 그들의 마음을 다 빼앗았다는 말을 하곤 하였다. 몰간이라는 목사가 가끔 나를 찾아왔는데, 와서는 중국 사람의 마음을 그렇게 얻는 비결을 말해 달란다. 내 고문이 되어 달라고 몇 번이나 와서 하는 말이었다.

중국 목사들에게 정중한 대접을 받았다. 산동대회(山東大會)로 보든지 전국총회로 보든지 전국총회 위치에서 지도자로 있던 왕덕윤(王德潤) 목사 같은 분은 어떤 회의장소에서 자기가 사회를 하고 내가 말을 하게 될 때 나를 소개하기를 “방목사 목회유

방 강도유근(方牧師 牧會有方 講道有筋)”, 즉 방 목사는 목회에는 방향이 있고 설교에는 힘이 있는 분이라는 소개를 늘 하곤 했다.

나와 같이 친히 일하는 동역자들은 나 없는 자리에서 “방목사적 희생정신 수야일불상(方牧師的 犧牲精神 誰也一不上)”, 즉 그의 희생정신은 누구도 못 따른다고 하였다는 말을 들었다. 좀 어리석은 글을 쓴 듯하다. 내가 본국을 떠나올 때까지 나를 위해 기도해주신 분이 계심을 본국 도처에서 만나보며 알게 되었다.

이런 내 배경이 되어 주신 분들에겐 이런 소개는 흐뭇함이 더하리라 믿는다. 아니 우리 온 교회가 배경이 돼 주었기에 이런 존경을 받았고 어려웠던 시국이 몇 번 있었으나 다 통과해서 돌아올 수 있었다고 믿어 감사함을 다시 드린다.

《福音歷史半百年》중에서
방지일/목사, 전 중국 산동성 선교사.



참으로 너를 도우리라

허드슨 테일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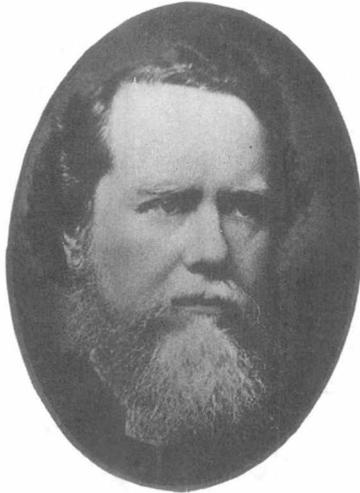
8월 6일

어제

밤길을 잘못 인도했던 그 청년이 갑자기 나를 깨웠다. 그는 어제와는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변해있었다. 강제로 나를 일으켜 세우고는 자기가 어제 수고한 대가를 달라고 하였다. 심지어 폭력까지 행사하려 들었다.

아무 준비 없이 수모를 당하게 된 나는 그에게 벌떡 화를 내면서, 한 손으로 그의 팔을 붙잡고 절대로 나를 건드리지 못할 거라고 경고하였다. 내가 이렇게 나를 줄은 예상하지 못했는지, 화내는 모습을 보자 그의 태도가 조금 수그러 들었다. 그때서야 비로소 안도의 한숨이 나왔다.

포성이 울리고 성문이 열렸다. 그는 내게 아편 살 돈 몇 푼만 달라며 애걸하기 시작하였다. 당연히 거절했지만, 양초 두 개 값만큼은 주지 않을 수 없었다. 어젯밤 나를 데리고 다니느라 양초 두 개를 썼다고 했기 때문이었다. 그 이상은 주지 않았다. 후에 안 사실이지만 이 사람은 전에 우리를 쫓아



다니며 괴롭히던 관리와 관련된 사람이었다.

서둘러 죽과 차로 아침 식사를 때우고, 잃어버린 짐이 어떻게 됐는지 알아보기 위해 밖에 나갔다. 몇 시간 동안 알아보았지만 아무런 소득도 얻지 못했다. 이젠 더 이상 찾을 방법이 없었다. 되돌아가는 수밖에... 은갖 고생과 피곤을 경험한 며칠이었다.

오후에 창안(長安)으로 돌아왔지만 여기서도 전혀 소식을 알 길이 없었다. 찻집에서 점심을 먹고 빨강개 부어오른 두 발을 따듯한

물에 담갔다. 그리고 나서 오후 4시까지 잠이 들었다. 잠을 자고 나니 몸이 많이 회복된 것 같았다. 다시, 이틀 전 하인과 쿨리와 헤어진 남문으로 가보았다.

가는 길에 그 동안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를 선하게 인도해 주셨는지 곰곰이 생각해 보았다. 그리고 나를 돌이켜보니 회개하지 않을 수 없었다. 사소한 물건 때문에 마음이 조급하여서, 주위의 많은 귀중한 영혼들을 그냥 지나쳤던 것이다. 나는 나의 죄를 고백하며 주 앞에 나와 예수님의 보혈로 나를 깨끗이 해주시기를 구했다. 주님이 이미 나를 용서하시고 깨끗하게 하시며 거룩하게 하신 것을 알게 되었다.

아! 주님의 측량할 수 없는 사랑은 얼마나 높고 깊은지! 이제 나는 주님께서 멸시받고 버림받고 머리 둘 곳이 없다하신 말씀의 의미를 이전보다 더욱 깨닫게 되었다. 그리고 주님께서 천상의 영광을 떠나 우리를 위해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 위에서 죽으시기까지 보이신 그 위대한 사랑을 더

육 깊이 체험하게 되었다. ‘그는 멸시를 받아서 사람에게 싫어 버린바 되었으며 간고(艱苦)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疾苦)를 아는 자라.’

예수님은 야곱의 우물 곁에서 피곤하고 주리고 목마름의 고통을 경험하시면서도 변함없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준행하였다. 그와 반대로 나의 사랑은 얼마나 보잘 것 없는가? 나는 기도드렸다. 과거에 범한 죄를 사해주시고 은혜와 능력을 더해주시도록, 그리고 내가 더욱 주님의 뜻에 순종하고 더 가까이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가서 완전히 그분께 속하기

원한다고 기도했다.

또한 나 자신, 그리고 영국에 있는 동역자와 친구들을 위해 기도했다. 눈물이 끊임없이 흘렀고 슬픔과 기쁨의 감정이 뒤범벅이 되었다. 눈물이 나로 하여금 그동안의 고달팠던 긴 여정을 잊어버리도록 만드는 사이, 벌써 목적지에 도착했다. 잃어버린 짐을 찾아다니면서 한편으로는 부근에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였다.

그 후 시내에 들어가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쿨리와 내 짐의 행방에 대해 수소문했다. 하지만 아무런 소문도 얻지 못하여, 그냥 북문

으로 나갈 수밖에 없었다.

길을 걸으면서 나누는 주님과 의 교제는 피곤한 내 몸과 정신을 모두 맑게 했다. 오늘 해지기 전에 남은 여정을 마치고 드디어 스먼만으로 돌아갈 수 있으리라는 희망이 생겼다. 길을 떠나기 전, 찻집에 들러 빵을 먹고 있는데 아빨싸! 바로 잃어버린 짐꾼 중의 한 명이 들어오는 것이 아닌가!

그를 만나고 나서 우리가 헤어지게 된 상황을 드디어 알게 되었다. 짐을 남문으로 옮기고 나서 하인이 잠시 어딜 다녀온 사이에 내가 이미 떠나버렸다는 것이다. 그러나 친구집에서 하룻밤 지내고 싶었던 하인은, 여기서 하룻밤을 보낸 후 내일 주인인 나와 다시 만나자며 물건을 자기 친구집까지 메고 가서 그곳에 보관해두었다는 것이다.

나는 짐꾼과 함께 하인의 친구집을 찾아갔는데, 하인은 거기서 하룻밤을 보낸 뒤 다른 쿨리를 불러서 항저우로 떠났다고 한다. 이것이 내가 아는 전부였다. 이제는 다른 방법이 없다. 다시 창안을 떠나 어서 상하이로 돌아가는 수밖에... 그 때는 이미 날이 어두워 스먼만으로 갈 수가 없었다. 나는 모든 필요를 공급해주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고 의뢰한 뒤 다시 한번 그의 무한한 사랑과 돌보심을 체험하였다.

얇은 강바닥에 세워 놓는 행선(行船: 손님을 태우는 배-역자 주)에서 나에게 손짓을 하여 올라와 설 수 있도록 해주었다. 밤에는 매우 춥고 모기도 많았지만 나는 잠시라도 설 수 있는 것이 감사했다.



장승원 그림

날이 밝아오자 곧 일어나 갈 길을 향해 계속 나아갔다.

8월 7일

몸이 불편하고 목도 대단히 아팠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를 선하게 인도하신 것을 생각하니, 한낮의 맹렬한 더위와 어둔 밤의 싸늘함도 넉넉히 감당할 수 있을 것 같았다. 마음속의 무거운 짐은 이미 사라졌다. 나 자신과 사역에 대한 모든 짐을 주님께 맡겼다. 내게 유익한 것은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니, 잃어버린 물건은 반드시 찾게 되리라는 생각이 들었다. 설사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거기에는 또한 주님의 뜻이 반드시 있을 것이다. 나는 이 여행의 가장 고통스런 시간이 거의 끝나가기를 바랐다. 이 조그만 희망 때문에 피곤한 몸과 빨갛게 부어오른 두 발을 가지고도 계속 전진할 수 있었던 것이다.

스먼만에 도착해서 아침을 먹고 아직 810문(門)이 남아있는 것을 발견했다. 지아싱(嘉興)으로 가는 배표가 120문이고 지아싱에서 상하이로 가는 것은 360문이니 그래도 330문이나 남는다. 그것으로 나흘간의 식비를 삼으면 될 것 같았다. 나는 곧바로 배표 파는 곳으로 달려갔다. 그런데 배가 떠나기에는 물이 너무 얇고 또 물건을 아직 내려놓지 못했기 때문에 오늘은 떠날 계획이 없고, 내일도 떠날 가능성은 극히 희박하다고 하여 나를 크게 실망시켰다.

지아싱으로 가는 우편선도 없느냐고 물었더니 그 배는 이미 떠났다고 한다. 이제 남은 방법은 선

주(船主)에게 찾아가 부탁하는 것뿐이었다. 그러나 역시 이것도 실패했다. 상하이로 가는 배를 구할 수 없어 정말 말 그대로 산길도 물길도 다 끊긴 처지에 놓이게 된 것이다.

바로 이 순간, 운하가 꺾어지는 곳에서 우편선 한 척이 지아싱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을 보았다. 나는 그 배가 시간을 어긴 것이라 생각되어 몸의 피곤함과 통통 부어오른 두 발의 고통도 잊어버린 채 다급하게 우편선을 쫓아갔다.

“지아싱으로 가는 배입니까?” 큰 소리로 물어보았다.

“아니요.” 간단한 대답이었다.

“지아싱 방향으로도 안 갑니까?”

“안 가요.”

“그럼, 제가 가는 방향까지 조금만 탈 수 있을까요?”

“안 돼요.”

계속 “안 돼다”는 말 외에는 들을 수가 없었다. 나는 완전히 기진맥진하여 풀밭에 쓰러져 정신을 잃었다. 깨어나 보니 사람들의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알고 보니 나에 대해 얘기하고 있는 것이었다. 말투를 들으니 그들은 상하이 사람들이었다. 나는 일어나 앉아서 큰 행선 위에 타고 있는 그들을 보았다. 그 배는 운하의 맞은편 언덕에 있었다. 몇 마디를 나눈 뒤 그들은 작은 배로 와서 나를 싣고 큰 배로 옮겨주었다. 그들은 내게 너무 잘 해주었다. 차를 마시게 하고는, 내가 정신이 좀 들어 밥을 먹을 수 있게 되자 또 다시 먹을 것을 가져다주었다. 그런 후 내가

신발과 양말을 벗어 두 발을 좀 더 편하게 하였더니, 사공이 세심하게도 발을 씻도록 뜨거운 물을 가져다주는 것이 아닌가!

그들은 내 이야기를 듣고, 또 내 발의 화농된 물집을 보고는 자기들도 모르는 사이에 내게 동정심을 품었던 것이다. 그래서 매번 다른 배가 지나갈 때마다 큰 소리로 지아싱까지 가느냐고 물어봐 주었다. 그러나 아쉽게도 모두 다른 방향으로 가는 배였다. 시간이 하염없이 지나는 사이, 난 몇 시간 잠을 청하였고 일어난 후에는 선장과 함께 언덕에 올라 관제묘(關帝廟)에 가서 모인 사람들을 향해 설교를 하였다.

“저는 지금 저 자신을 의지할 수 없는 형편입니다. 지아싱까지 갈 기력도 없습니다. 만약 오늘 배를 타지 못한다면 우편선을 탈 수도 부족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 제가 섬기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를 도우실지 잘 모르겠지만 저는 조금도 의심하지 않습니다. 그분은 반드시 구원의 팔로 도움을 베푸실 것입니다. 지금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다만 제가 있는 이곳에서 주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또한 그들에게 내가 오늘 그들의 도움을 받은 것이 바로 나와 상하이에 있는 다른 선교사들이 전하는 복음이 얼마나 믿을 만한 것인지 증명하는 사건이라고 말했다.

시내로 가는 길에 선주와 대화를 나누면서 우리는 우편선 하나가 다가오는 것을 보았다. 선주가 잠깐 기다려 보라고 했는데, 나는 그에게 내가 뱃삿을 충분히 가지



장승원 그림

고 있지 않다는 사실을 다시 일깨워주었다. 그는 아랑곳하지 않고 배에 탄 선원들과 큰 소리로 이야기를 주고받았다. 그리고는 이 배가 상하이에서 약 9마일 떨어진 곳으로 간다는 것과 배가 닿으면 선원 하나가 우편물을 육로를 통해 시내로 배달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는 계속해서 그 선원에게 말했다.

“이분은 상하이에서 오신 외국인인데 길에서 강도를 만나 상하이로 돌아갈 수 없게 되었어요. 그래서 부탁드리는데 이분을 당신들이 가는 목적지까지 데리고 간 후 가마를 하나 빌려 대까지 모실 수 있겠습니까? 상하이에 도착하면 이분이 돈을 드릴 겁니다. 내 배는 멀리 있는데, 물이 불어나기 전에는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지금 내가 이 분을 보충하겠습니다. 만일 이 선생님이 상하이에 가서 당신에게 돈을 주지 않는다면 저에게 돌아와서 내게 받으면 됩니

다.”

중국인의 성격을 조금이라도 아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중국인이 얼마나 돈에 대해 조심하고 신중한지 알 것이다. 한 중국인이 낮은 외국인에게 이토록 호의를 베푸는 것을 보면서 나는 감동하지 않을 수 없었다.

우편선의 선원은 그의 제의를 수락하였고 나는 배까지 배웅을 받았다. 드디어 나는 그 배의 승객이 되었다. 아! 진실로 나를 끝까지 인도하시고 지켜주셔서 나로 하여금 다시 상하이로 돌아가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린다.

우편선은 길고 폭이 좁은 편이어서, 행동반경이 매우 제한되어 있었다. 그나마 배가 움직일 때는 사람은 누워서 움직이지 말아야 했는데, 조금이라도 움직이면 배가 옆으로 기울어지기 때문이다. 그러나 나로서는 이러한 것이 조금도 불편하게 느껴지지 않았다. 오히려 조용히 누워있을 수 있어

서 좋았다. 그 동안 내가 바라고 바라던 바가 이런 것이었다. 이 배는 지금까지 내가 중국에서 본 것 중에 가장 빠른 것이었다. 배마다 두 명의 사공이 있어 주야로 교대하며 노를 저었다. 그들은 손과 발을 다 사용해서 노를 저었다. 바람이 적당히 불면 발로 노를 짓고 한 손으로는 돛을 제어하였고, 다른 손으로 배의 키를 잡았다.

이러한 주님의 도우심으로 나는 즐겁고 빠른 항해를 마치고, 8월 9일 무사히 상하이에 도착했다. 주님께서는 ‘너를 버리지 않으며 잊지 않는다.’고 말씀하셨다. “주님! 언제나 주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세상 끝날 까지...”

다음 호에 계속

이 글은 홍콩 선도출판사에서 발간한 『헌신중화(獻身中華)』에서 발췌하여 번역한 것으로 선도출판사의 승인을 받은 것이다.

번역: 차이나(본지 편집 기자)

중화민국 조선선교사 자녀학교 교사 조소임 (1922~1924, 중국 산둥)



김교철/ 총신대학 신학대학원 졸업

중국선교연구협회 상임총무, 연구원
대한예수교장로회 부개동교회 외국인예배담당
교역자
중국선교연구협회 인준 재한중국인 선교사
인천 외국인근로자 선교협의회 운영위원장

서론

1. 연구의 목적

한국 교회는 1912년 실질적인 타문화권 선교를 시작기로 결의하여 그 다음 해인 1913년부터 실행에 옮겨 3인의 목사 선교사를 중화민국 산둥성 래양으로 파견하였다.

초기 3인의 선교사는 몇 년간 어려운 조건 가운데 사역을 하다가 박태로 목사는 질병으로 그 가족과 함께 먼저 귀국하였고, 1917년에 이르러서는 나머지 2명도 선교지를 철수하게 되었던 것이다.

한국 교회는 1913년 부터 선교사를 타민족에 파송하기 시작하였으나 선교사 자녀교육에 대한 배려에 있어서는 자녀비를 지불하기 시작한 것이 전부였다. 그러다가 1922년에 이르러 조소임 씨가 '선교사 자녀 교사' 라는 처음으로 초빙을 받게 된다. 1919년에 선교사 아동학교가 병설되고 첫 교원에 임명된 박희복 씨가 수교하였으나 고국에서 첫 초빙된 이는 바로 조소임이다.

조소임씨는 어떤 인물이었는가? 조소임 씨는 선교사 자녀 교사로 첫 초빙된 한국 교회 여성이 되었다. 조소임이라는 인물을 통하여 선교사 자녀교육 문제에 대하여 미력하나마 접근해 보고 대안을 제시해 보고자 함이 본 연구의 목적이다.

그리고 선교 현장에는 목사 선교사만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협력사역하여야 한다는 것과 특히 여성의 참여와 역할의 중요성을 부각시키고자 한다. 그러면서도 그 일이 단순하지 않다는 사실과 선교사 자녀 교사로써 일하고자 하는 꿈을 가진 이들과 선교사를 파송하는 교단, 선교단체들이 이 문제에 대하여 더 깊이 생각하고 연구, 준비하여 효과적이고도 총체적인 선교가 이루어지도록 제도적이며 실질적인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2. 연구의 자료와 범위 및 방법

조선예수교 장로회 제11회 총회록에 다음과 같은 기록이 남아 있다.

“대구에 계시든 도소임시를 선교사의 자녀교사로 연방하여 금년 4월에 기학교수호며”¹⁾

중국선교를 이야기하고 관심을 가진 사람들이 많이 있지만 조소임이라는 여성인물을 기억하는 이들은 별로 없다고 본다. 지금까지 그에 대한 기록은 총회록에 한두 줄 정도와 1923년도 기독교신보에 이름 나온 것이 전부여서 조소임을 더 알 수 있는 길이 없었다.

그러나 그가 대구에 있었던 사람이라는 역사적 사실에서 힌트를 얻었고, 그가 초빙받았다는 사실에서 중국 선교사와 조소임이 모종의 관계가 있었을 것이라고 가정을 하게 되었다.

조소임이 대구에 있었다면 대구와 관계된 선교사가 누구인가? 바로 1917년에 중화민국 산둥으로 파송되었던 흥승한 목사가 아닌가. 흥승한 목사는 1917년 조선예수교장로회

1) 조선예수교장로회총회 제11회록, (1922), p. 91. 이하 “총회록”이라 약칭함.

총회 부회장이자 대구 지방의 모교회라 할 수 있는 남성정교회(현 대구제일교회)의 목사였다.²⁾

선교사의 자녀교사로 초빙을 받게 된 조소임은 분명히 기독교적인 고등교육을 받은 인물이었을 것이고, 당시에 그가 교육을 받을 수 있었던 미션계통의 학교는 대구 신명여학교였을 것이다. 그래서 신명여고에 문의한 결과 그의 학적부를 찾게 되었고 대구제일교회에서 그의 이름을 찾아 교적부를 발견하게 되어 그의 출생부터 그가 중국에까지 가게 된 경위를 모두 알 수 있게 된 것이다.

그러나 조소임 교사가 1926년 중국 산둥 래양 선교사 자녀 학교 교사를 사면하고 난 이후에 대해서는 더욱 알 길이 막연해지고 말았다. 조소임을 알고 있는 사람이 없을까? 그의 자손이 있을 터인데 어디에 사는지, 어떻게 만날 수 있을 지 쉬운 일이 아니었다. 바로 그러한 고민 중에 있을 때 방지일 목사님을 통해 그 이후에 관한 결정적인 연결점을 찾게 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먼저 그의 출생에서부터 중국에 선교사 자녀교사로 초빙을 받게 된 기간과 선교사 자녀 교사로 일한 1922년부터 1924년까지를 중점적으로 다루고 그 이후는 그의 남편되는 김진수 목사를 통하여 간접적으로 살펴보고 한다.

조소임이 남긴 글도 없고 그에 관한 기록도 거의 없는 상태에서 진행하는 본 연구는 여러모로 한계를 가지고 있음을 부인치 못한다. 그러면서도 몇몇 자료를 통하여 그리고 중국선교 역사와 연결, 자녀교육 문제에 직접 관여했던 인물이나 한국 교회 선교역사에 있어서 선교사 자녀교육 문제에 처음으로 초빙된 여성인물로 연구하되, 사건의 내면과 외면을 구분하면서 총체적으로 재구성되도록 하는 연구의 방법을 채택하려고 한다.

선교사들의 자녀교육을 위해 고국을 떠나 중국 산둥성에 가서 사역하였던 조소임 자녀교사. 선교사들의 가장 어려운 점인 자녀교육 문제를 위해 처음으로 초빙받아 수고하였던 그를 우리는 잊지 말고 기억하여야 할 것이다.

제1편 출생과 성장기(1900~1921)

제1장 시대적, 지역적 배경

조소임은 1900년 6월 7일 대구에서 태어났다.³⁾ 그녀가 태어나기 17년 전인 1883년에 복음이 북쪽에서부터 전파되기 시작하였고 15년 전인 1885년에는 제물포를 통해 언더우드와 아펜젤러가 한국땅에 도착, 복음사역을 시작하면서 이 땅에 주님의 나라가 확장되기 시작하였다. 조소임이 태어나던 시기를 전후하여 대한제국은 열국의 각축장으로 변하였고 마침내 1905년에는 일방적인 을사조약의 체결로 주권을 박탈당하였으며, 1910년에는 한일합방으로 나라를 빼앗기고 말았다.

그녀가 태어난 1900년 한국땅에는 서양선교사 외에 한국인 목사는 한 명도 없던 시기였다.⁴⁾ 1900년에는 조직교회가

전국적으로 2처, 장로가 없는 미조직 교회가 287처였으며 한국인 장로 2명, 남자 조사 28명, 완전한 세례교인이 3,710명, 세례교인 포함 신자총수는 9,364명에 이르고 있었다.⁵⁾

조소임이 태어난 대구의 옛 이름은 달구불(達句火), 또는 달구벌(達句伐)이라 하였다.⁶⁾ 대구지방에 최초로 개신교 선교사인 배위량 선교사가 방문한 날은 1883년 4월 22일이라고 전한다.⁷⁾ 그녀가 태어나기 7년 전이다.

1883년 대구를 초도 순시한 배위량 선교사는 부산의 선교 기지로 돌아갔고 그후 1896년 봄 부산에서 대구로 이사했으나 결국 대구 선교업무를 그의 처남인 안의와 선교사에게 인계하고 임지를 옮기게 된다. 배위량 선교사의 뒤를 이어 대구에 부임한 선교사 안의와는 배위량의 처남이 된다.

안의와 선교사는 대구지역 선교사업의 개척자요 경북의 모교회라 할 수 있는 대구제일교회의 창설자로서, 그가 정식으로 부임한 것은 1897년으로 그 때 안의와 목사는 그를 도와주는 김재수 씨와 함께 대구에 왔다고 한다.⁸⁾ 현 대구제일교회의 부지는 1896년 1월경 구입하게 되었고 대지 420평에 초가 5동과 와가를 포함하여 대금으로 435원 50전을 지불하였다고 한다.⁹⁾

1897년부터 안의와 선교사는 그의 조수 김재수 씨와 본격적으로 선교사업에 착수하게 된다. 그리고 의사 장인차(W. O. Johnson, M. D.)씨의 내구를 맞이하여 안의와 목사는 교회를 조직하였다.

1898년 12월 18일 제1회 당회로 모여 서자명, 정완식 2명에게 학습문답하여 믿음과 결심한 증거 만족으로 학습인으로 세우기로 결정하게 된다.¹⁰⁾ 1899년에 부해리 선교사가 대구하게 되고 11월에는 사이추(Rev. R. H. Sidebotham) 선교사가 와서 선교사 3명, 의사 1명, 세례교인(서자명 씨) 1명, 학습교인이 9명이었으며 교인 총수는 25명, 주일헌금은 10원 46전이었다.

조소임이 태어나던 시기에 경북지역은 기독교가 막 그 첫 걸음들을 옮기고 있었던 때였다. 그녀가 태어나기 1년 전에는 교인 25명이 전부였다.¹¹⁾ 당시 미국 북장로회 선교부의 삼대 선교거점은 대구와 경성, 평양이었으며 그 대표적인 선교사는 안의와, 언더우드, 마포삼열이라 할 수 있었다.¹²⁾

경상도 지방에 기독교의 복음이 전파되기 시작하던 바로 그 시기에 선교거점의 하나인 대구에서 조소임은 출생하였

3) 사립 신명학교 학적부 "조소임". 이하 "조소임 학적부"라 약칭함.

4) 장로교의 경우를 말한다.

5) 광안련, "한국 교회와 네비우스 선교정책", 박용규, 김춘섭 옮김,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1994) pp. 375~385

6) 이상근, "대구제일교회 90년사", (대구, 대구제일교회 90년사 출판위원회, 1983), p. 51.

7) IBID., p. 60.

8) IBID., pp. 60~6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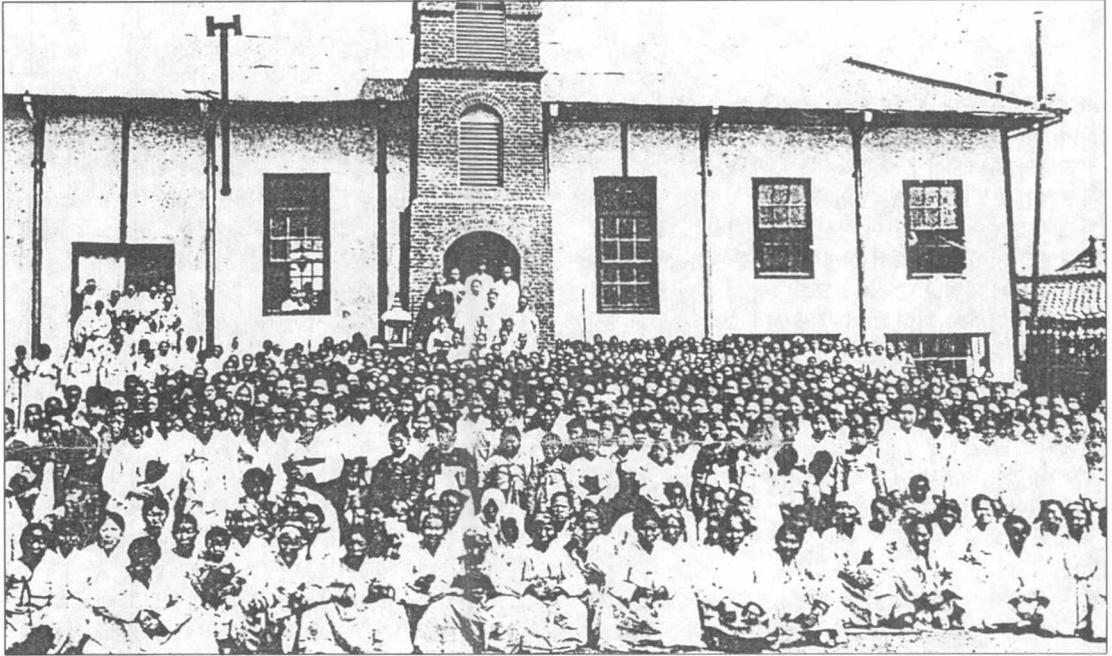
9) IBID., p. 62. 장로교의 대구 전래와 대구제일교회의 시작에 관하여서는 다음 글을 참조하라. 이재원, "개신교 대구전래사의 그 문제점", 창조, 1985년 봄. 창간호, pp. 83~99.

10) IBID., p. 63. 제1회 당회록

11) IBID., p. 64.

12) IBID., p. 62.

2) 참고, "홍승한 목사와 산동성선교", 중국선교연구협회 제10회 중국선교역사세미나(1985년 5월 30일) 발표연구 논문 참조.



조소임이 출석하던 남성정교회

다.

제2장 입신과 가정 환경

조소임은 1907년부터 신앙생활을 시작하게 되었다. 그녀가 믿음의 길을 걷기 시작한 1907년은 한국 교회사에 있어서 의미가 깊은 해이다. 평양에서 시작된 대부흥의 물결은 장장 6개월 간 전국을 휩쓸었던 것이다.¹³⁾ 조소임의 부친은 조순홍, 모친은 김씨라고만 기록되어 있다.¹⁴⁾

부친 조순홍은 세례를 받은 신자였고 모친 김씨도 학습을 받은 신앙의 가정에서 조소임은 성장하였다. 그녀의 부모는 일찍이 기독교의 신앙을 받아들인 것으로 보인다. 조소임의 가정은 본래부터 대구에 거주하였던 것 같다. 원적과 당시 주소가 동일하였다. 즉 대구부 남성정 52번지이다. 조소임이 출석하기 시작한 교회는 역시 집에서 매우 가까운 남성정교회(대구 남문안)였다.¹⁵⁾

조소임은 1914년 7월 19일 남성정교회에서 세례를 받게 되었다.¹⁶⁾ 세례를 베푸는 사람은 당시 위임목사이자 1917년 중화민국 선교사로 가게 된 홍승한 목사였다. 조소임은 그녀의 나이 15세 되던 해에 세례를 받고 완전한 교인이 되었다.

그녀가 세례를 받은 남성정교회의 당시 주소는 대구부 남성정 43번지였고¹⁷⁾ 그녀의 집은 남성정 52번지였다. 조소임은 1911년 가을 부임한 홍승한 목사에게서 1917년까지 많은 신앙적인 감화와 지도를 받았던 것이고 그녀가 세례를 받았던 1914년 당시에 남성정교회는 이미 대 교회로 성장하

여 1912년경에도 매주일 천여 명이 모이는 대 교회였다.¹⁸⁾

성경을 생명의 말씀으로 믿고 받아들이는 신도의 수가 점점 증가하여 남성정교회 당회는 그들에게 '신앙고백문답'을 하고 세례를 주는 일에 힘썼는데 세례는 수시로 매월 한 차례 이상 시행하였고 문답은 거의 매주 하였던 것이다.

1913년 남성정교회 당회록에 의하면 "전의 작정에 의하여 학습인 41명을 세우고, 39인을 세례주고 성례를 행하다"라고 기록되어 당시 교회의 부흥상을 알게 해 준다.¹⁹⁾ 조소임의 부친 조순홍은 직업란에 '장사'로 기록되어 상업에 종사한 것으로 보여진다.

가정적 형편이 비교적 여유롭고 신앙적인 분위기에서 자랐으며 모친 김씨는 가사에 충실하면서 신앙생활과 자녀교육에 힘썼던 것으로 볼 수 있겠다. 부친 조순홍 성도는 딸 조소임보다 먼저 세례를 받았다고 보여진다.²⁰⁾ 조소임은 기독교 가정에서 신식교육을 받으면서 성장하였던 것이다.

제3장 조소임이 받은 교육과 학교들

1. 신명소학교

14) 조소임 학적부

15) IBID. 대구교회, 대구남문안, 남성정교회 등은 모두 동일 교회를 말한다.

16) 남성정교회 교적부(1914). 신명학교 학적부에는 조소임의 신급란에 1914년 11월에 세례 받은 것으로 기록되어 있으나 남성정교회 교적부에는 조소임과 같이 세례를 받은 사람들 조옥남, 정복린, 허형이 등의 세례일이 모두 1914년 7월 19일로 기록되어 있다.

17) 김진경, "영계 김선주 목사 유고선집(제1집)",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1968), p. 299.

18) 이상근, OP. CIT., p. 87.

19) IBID., pp. 84~85.

20) 조소임 학적부

13) 대한예수교장로회 한국교회 백주년 준비위원회 사료분과위원회, "대한예수교장로회백년사", (서울: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교육부, 1984), p. 216.

조소임은 북장로교 선교사 부헤리 선교사의 부인 부루엔(Bruen)에 의해 설립, 개교한 신명소학교에서 5년 간 교육을 받았다.²¹⁾

신명여자소학교는 경북지방에 있어서 신교육 이념에 입각하여 세워진 최초의 학교이다.²²⁾ 선교사에 의해 설립된 학교인 신명소학교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라”는 교육이념에서 출발한 학교였다.²³⁾ 선교사들과 기독교인 교사들에게서 교육을 받으며 자랐고 주일에는 역시 교회에서 신앙교육을 받으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장하였다.

“신명”이란 교명은 부루엔 여사와 안의와 목사 및 제일에 배당(남성정교회)의 박덕일 씨와의 연석회의에서 결정되었다. “信”은 글자 그대로 믿음의 토대 위에 학교를 세운다는 것이고 “明”은 빛을 뜻하는 것으로 어두움을 깨뜨리는 학문의 횃불을 말한다.²⁴⁾ 이러한 교육이념을 가진 학교에서 교육을 받은 조소임은 후에 조선선교사 자녀교사로 초빙되어 중화민국 산둥에서 1922년부터 1924년까지 일하게 된 역사적인 인물이 된 것이다.

2. 신명여자학교

소학교를 설립하고 1907년 3월에 제1회 졸업생을 낸 신명여자소학교로서는 졸업생들의 향학열을 충족시키기 위하여 중학교를 창설하기로 작정하였다. 그리하여 1907년 10월 23일에 신명여자중학교가 생기게 되었다.²⁵⁾

조소임은 1913년 3월 29일, 그녀의 나이 14세에 신명여자학교에 입학하였다.²⁶⁾ 당시 신명중학교에 입학하려면 무엇보다도 먼저 입교원(入敎願)이 필요하였다. 기독교 신자라야만 입학할 허가를 받았던 것이다. 이 수속이 끝난 다음에야 입학원서를 받아 가게 되었다. 입학원서에는 본인 및 학부형의 인(印)이 필요했다. 원서가 접수되면 그 측석에서 간단한 성구를 받아 읽는 것이었다. 성경구절은 때에 따라 다르나 대개는 요한일서 4장 7절-8절이었다. 받아 읽기가 끝나면 입학허가가 끝나는 셈이다.²⁷⁾

조소임이 입학하던 해에 본관이 낙성되었다. 신명여자학교의 첫 졸업식은 1912년에 3명의 졸업생을 대상으로 거행되었다.²⁸⁾ 제1회 졸업생을 내놓을 때까지(1912년 5월 31일)는 교명을 ‘신명여자중학교’라 했다. 이것은 부루엔 여사의 대한정부에 대한 충성에서 온 발로라고 기록하고 있다.²⁹⁾ 그러나 빨라드 교장이 온 다음부터는 ‘신명여자학교’로 고쳤다고 한다. 빨라드 교장은 1912년 5월부터 1939년 5월까지 젊은 시절을 한국 여성 교육을 위해 수고를 많이 한 여성이다.³⁰⁾

1913년 그녀가 입학하던 해인 1913년 4월 신명여자학교 본관, 기숙사 등 3채의 낙성식을 성대하게 거행하였는데 이때 학생 수는 벌써 103명에 이르렀다. 학생들은 만국기를 식장인 남성정교회에 달았으나 일본기는 빼놓았고 달지 말도록 되어 있는 태극기가 오색이 영롱한 깃발 속에서 더욱 빛났다고 한다. 이 낙성식 설교는 홍승한 목사가 하였다.³¹⁾ 그녀가 출석하는 교회 담임목사였다.

신명여자학교 초창기에는 월사금이 없었으나 1913년 4월

부터 받기 시작하였고 조소임이 입학한 1913년부터 2년간은 70전씩이었다.³²⁾ 1917년부터 4년간은 1원씩이었고 별도로 한 학기마다 10전씩 용지대 및 위생비를 받았다.³³⁾ 초창기의 제복은 흰 저고리 하늘빛 치마였는데 1913년부터는 흰저고리에 검정치마를 입게 되었다.³⁴⁾ 조소임은 재학기간 4년 동안 흰 저고리에 검정치마를 입고 다녔던 것이다.

조소임은 재학시절, 후에 이대영 목사(중국 선교사로 1922년 파송됨)의 부인이 된 김성에³⁵⁾ 사모와도 알고 지냈을 것이며, 1922년 이대영 목사와 김성에 사모가 중국 산둥에 도착하기 이전에 먼저 중국에 들어가서 선교사 자녀교사로 활동을 시작하였다.

조소임이 4년간 배운 과목은 다음과 같다. 성경, 한문과 조선어, 국어(일어), 수학, 역사, 이과, 도화(미술), 공업학 등등이었다. 평균 4년간 77점에서 82점을 받았다.³⁶⁾ 조소임은 1917년 3월에 신명여자학교를 제5회로 졸업하였다.³⁷⁾

조소임이 신명여자학교를 졸업하던 그해 가을에, 남성정교회 위임목사였던 홍승한 목사 가족이 중화민국 산둥성 선교사로 피택되어 중국으로 가게 되었다. 그리고 신명여자학교에서 교사로 근무한 경험이 있던 박희복 여사가 남편 김윤식 의사와 함께 중국으로 자원, 들어가게 되었다.³⁸⁾ 1918년 11월의 일이다.

신명여자학교를 졸업하고 중국으로 가게 되기까지 조소임씨가 한 일에 대해서는 아는 바 없지만, 조소임은 당시 여성들 중에 많지 않게 현대식 교육을 받은 인물이라 할 수 있다.

제2편 중화민국 조선선교사 자녀교사 활동 시기(1922~1924)

제1장 중국 산둥선교사와 자녀교육문제

1913년부터 조선선교사들이 중화민국 산둥성 래양에서 언

22) 신명 50년사 편찬위원회, “신명 50년사”, (대구: 경북인쇄소, 1957), p. 25. 이하 “신명 50년사”로 약칭함.

23) 이상근, OP. CIT., p. 72.

24) 신명 50년사, pp. 24~25.

25) IBID., pp. 25~26.

26) 조소임 학적부

27) 신명 50년사, pp. 32~33.

28) IBID., p. 46.

29) IBID., p. 70.

30) IBID., p. 71.

31) IBID., p. 72.

32) IBID., p. 76.

33) IBID.

34) IBID., p. 77.

35) IBID., pp. 139~140.

36) 조소임 학적부

37) 조삼도 장로의 1995. 5. 16일자 편지
조소임 학적부 전면에는 졸업일이 3월 28일로 되어있고 후면에는 1917년만 나오고 졸업일이 기록되어 있지 않다. 조삼도 장로 편지에는 3월 15일로 기록되어 있다. 좀 더 연구가 필요하다. 그리고 졸업생 사진 중에 누가 조소임인지 아직까지 모르는 상태이다.

38) 줄고, “한국장로교회의 중국선교역사 연구”, 중국선교 3, (인천: 침심당, 1994), p. 54.

21) IBID., 이상근, OP. CIT., p. 72.

어를 배우면서 선교활동에 착수하였다. 선교사들은 본국 교회의 명령에 순종하여 선교지에 나오기는 하였으나 여러가지 어려움에 대비할 만한 충분한 시간과 준비가 부족하였고, 선교사들에게 있어서 가장 어려운 문제인 자녀교육에 대한 방안이 전무하였다.

1915년 9월 잠시 귀국케 된 김영훈 목사가 선교사 자녀 문제에 대하여 언급하였으나 아무런 방안도 마련되지 못하였다.³⁹⁾

초기 3인의 선교사가 모두 철수한 후 1917년 대구의 홍승한 목사, 평북의 방효원 목사, 그리고 1918년 평양 박상순 목사가 선교사로 파송되었고 의사 김윤식 가정이 평신도로 자원하여 선교지로 건너가 선교사들을 도우며 의료활동을 통해 복음의 빛을 발하기 시작하였다.

그리하여 1919년 1월에 중국 산둥 레양에 선교사 아동학교를 병설하면서 교장에 박상순 목사, 교원에 박희복 여사를 임명하게 된다.⁴⁰⁾ 대구 신명여학교에서 교사로 근무한 경험이 있던 김윤식 의사의 부인 박희복 여사는 조선선교사의 자녀들을 자기 집에 모아서 가르치기 시작하였다.⁴¹⁾ 그러나 교실도 없고 교사가 없어서 계속하기 어려운 상태에 이르게 된다. 김의사 부인이 그 일에만 전무하기에도 어려움이 있었던 것이다. 방효원 목사도 난감한 일들에 관하여 열거하면서 “자녀교육이 난감이요”라고 보고하였다.⁴²⁾

대부분의 선교사들은 자녀들을 등한히 하지 않고 여러 상황 가운데서 최선을 다한다. 그러나 다른 어떤 이유보다 자녀 교육에 만족할 만한 길을 찾지 못한 이유로 선교지를 떠나는 선교사들이 가장 많은 것 같다고 허버트 케인은 말한다.⁴³⁾

선교사역이 훌륭하게 지속되고 결실을 얻기 위해서는 선교사 자녀들을 위한 적당한 교육 시설을 제공해야 한다. 여기에는 일정한 재산, 적당한 건물, 유능한 교사, 능력있는 부모, 강력한 교과과정, 높은 학과수준, 과외활동, 그리고 필요한 재정이 포함된다. 그러면서도 가장 큰 문제는 자격 있는 교사를 구하는 일이다.

능력이 있고 헌신된 그리스도인 교사를 구하기는 쉽지 않다. 대부분의 선교사들은 교회개혁 사역에 참여하기 원하지, 학교에서 선교사 자녀를 가르치기는 원하지 않는다. 이런 일에 자원하는 사람은 아주 적다. 선교사 자녀학교의 교사들은 학구적인 자격을 갖춘 위에 영적인 자격도 갖추어야 한다. 이들은 선교사역에 있어서 진정한 선교사로 인정받아야 마땅하다.⁴⁴⁾

1921년 11월 산둥선교지 시찰위원 3인 중의 한 명이었던 마로티 선교사는 다음과 같이 선교사의 자녀교육 문제에 대하여 보고하였다.

“2~3년간 우리 선교사 등의 자녀교육에 대하여 염려량이 한 것은 선교사의 자녀들을 마땅히 고국 방언으로 교육하여야 될 터인데, 선교사 부인 중에 교수할만한 이가 무할 뿐더러 어학하여 선교하기에 구애도 되고 유아들인고로 본국으로 보내어 기숙하며 공부시키기도 난하며 또한 따로

교사를 초빙하기는 경비에 불능이라. 본 시찰원들의 생각에는 전도국에서 선교사 자녀 양성할 교사를 파송하되 래왕 로비를 담당(擔當)하고 월봉을 반만 담당하는 것이 좋을 줄로 지하나이다”⁴⁵⁾

선교사들의 어린 자녀들을 마땅히 교육시킬 교사가 간절히 요청되었던 것이다. 드디어 선교사 자녀 교사를 찾기에 이르렀고 이에 대하여 기독교신보는 다음과 같이 보도하였다. “선교사의 자녀를 교육하기 위하여 녀교사 한 사람도 같이 갈 터이다”⁴⁶⁾

조소임 씨가 적임자로 선정되어 선교사의 자녀교사로서 처음 연방되어 고국을 떠나 중화민국 산둥성 레양으로 가게 되었고 1922년 4월에 드디어 개학, 선교사 자녀들을 가르치기 시작하였던 것이다.⁴⁷⁾

조소임 씨는 비록 선교사로 파송된 것은 아니지만 선교사의 자녀교사로 정식, 연방된 한국 교회 최초의 여성이 된 것이다. 오늘날로 말하자면 전문인 교사 선교사라 하겠으나 당시에는 선교사로 파송된 것은 아니었다.⁴⁸⁾

1922년 6월 이후에 중국 산둥 선교지에는 방효원, 홍승한, 박상순, 이대영 목사 네 가족과 자녀들이 있었고 김윤식 의사 가족도 있었다. 조소임 교사는 선교사들의 자녀들을 가르치기 시작하였다.

제2장 조소임 교사의 활동과 사임

1922년 4월 이전에 중국 산둥에 도착하여 4월부터 교수를 시작하였고 1922년 7월 27일부터 29일까지 레양성 남문의 방효원 목사택에서 모인 산둥 레양 총선교사회에 참석하게 된다.

선교사회의 정식회원은 아니었으나 김윤식 의사와 그의 부인, 선교사의 아동교사 조소임이 방청으로 참석을 하였던 것이다.⁴⁹⁾ 선교지에 목사 선교사, 평신도 의사, 선교사 자녀 교사 등이 탐사역을 시작할 수 있게 되었던 것이다.

1922년 9월 1일자로 선교지방이 두 곳으로 분립되었고, 1922년 12월 25일 성탄절에는 오전 11시에 레양 남관교회에서 성탄 축하식을 거행하였는데 조소임 교사도 독창을 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도 하였다.⁵⁰⁾

40) 박상순, “산둥선교의 과거와 현재”, 신학지남, (1935), 제17권 제6호, p. 339.

41) 조선예수교장로회 대8회회록, (1919), pp. 32~33. 이하 “총회록”이라 약칭함.

42) 방효원, “중화민국 산둥성 레양선교사 방효원씨 보고”, (경성: 조선예수교서회, 1920), p. 15.

43) 허버트 케인, “Life and Work on the Mission Field”, 백인숙 옮김, (서울: 두란노서원, 1989), p. 267.

44) IBID., pp. 263~264.

45) 마로티, “조선 예수교장로회 중국선교사업 시찰사황”, 신학지남, (1922), 제4권 제3호, p. 506.

46) 기독교신보, 1922년 1월 25일자.

47) 총회록, 제11회, (1922), p. 91.

48) 김활영 선교사는 그의 박사논문에서 조소임을 “Missionaries Worked in Shantung”에 포함시켰는데 잘못되었다.

김활영, “From Asia to Asia”, p. 50.

49) 기독교신보, 1922년 9월 13일자.

50) 기독교신보, 1923년 2월 28일자.

39) 참고, “중국선교사 김영훈 목사의 생애”, 중국선교연구협회 제7회 중국선교역사세미나(1995년 2월 21일) 발표 연구논문 참조.

조소임 교사는 1924년 봄까지 산동에서 선교사의 자녀들을 가르치고 선교사 자녀 교사직을 사면하게 된다. 만 2년 정도 사역한 셈이다.⁵¹⁾

중국 산동성 레양에 조선선교사 자녀들을 위한 아동학교가 설립되어 소아들이 교육을 받도록 하고 청소년기의 자녀들은 본국(조선) 학교나 중국인 현지 학교, 청도 아메리카 중학교, 중국 내에 설립된 일본인 학교 등에서 중등교육을, 대학교육은 본국이나 일본에서 받도록 하였다.

조선선교사들의 자녀교육은 다음과 같은 형태로 이루어졌다(1919~1957).

- 1) 본국에서 아동학교 교사를 초빙하여 소아들은 선교사 아동학교에서 교육을 받도록 하였다.
- 2) 소학교 취학 연령 자녀들은 본국 소학교, 중국내 일본인 소학교, 중국 소학교 등에서 교육을 받도록 하였다.
- 3) 중등과정의 자녀들의 경우 중국 중학교, 청도 아메리카 중학교, 본국 중등교육기관, 상해여고 등에서 교육을 받았다.
- 4) 전문학교, 대학교육의 경우 본국(숭실전문), 동경 양재전문, 일본 동지사신대, 동경 입교대학 등 본국과 일본에서 교육을 받았다.
- 5) 격변기에 방지일 목사는 자녀들을 직접 집에서 가르쳐야 했다.

조소임 교사는 조선선교사 아동들을 교육시키기 위해 단기간 헌신하였던 여성이다.

조소임 교사가 사임하면서 평양 숭의여학교 출신 이영애 씨가 1924년 6월부터 대신 사역케 된다.⁵²⁾

제3편 목회자 사모 조소임

제1장 결혼과 그의 남편 김진수

중국에 다녀온 후 조소임은 당시대 상황에서 볼 때 나이든 처녀였는데 평북 선천군 신부면에서 출생한 사람 김진수와 결혼하게 된다.

조소임은 평양에 살면서 시어머니를 모시며 비교적 여유롭지 못한 형편 가운데 살았고 남편 김진수가 숭실전문학교에서 공부하는 동안 내조에 힘썼다고 한다.⁵³⁾

남편 김진수는 1921년 평북 선천 신성학교 졸업과 3·1운동시위로 6개월 옥고를 치루었다고 한다. 평양 숭실과 평양 신학교를 졸업하였으며 중국으로 건너가 석가장 교회에서 목회도 하였다. 또한 1940년 선천동교회 위임목사로, 사회의 지도자로, 웅변가로 많은 동포의 가슴에 복음과 항일투지를 심어주었다고 '신성학교사'에 기록되어 있다.⁵⁴⁾

그러나 일제말기 그의 개명한 이름은 “金城珍洙”였으며 평북노회장으로 “참된 일본기독교 樹立運動考案”이라는 글을 발표하기도 하였다.⁵⁵⁾ 일제말기 신사참배와 일제에 순응적인 글을 쓰기도 하였다.⁵⁶⁾

김진수 목사는 6·25 사변시 패주하던 공산군이 소위 반동분자로 요시찰 인물을 먼저 처치하고 도주할 때 총살당하고 말았다.⁵⁷⁾

제4편 결론

조소임씨는 경북출신으로 대구에서 성장하여 단기간이었으나 선교사 자녀학교 교사로 초빙되어 수고하였던 한국 교회 최초의 여성이었다.

조소임 교사는 중국에서 단기간 사역 후에 귀국, 김진수 씨와 결혼하여 목회자 사모로 내조하였다. 그녀의 큰 아들이 있는데 대광학교를 졸업하고 미국 시카고에서 산다고 한다.⁵⁸⁾

선교사 파송에 힘쓰고 있는 한국 교회는 선교사 자녀교육 문제에 대하여 더욱 관심을 가져야 하겠으며 체계적인 대책과 지원에 힘써야만 하겠다. 목사 선교사 파송뿐만 아니라 의사, 선교사 자녀 교사, 전문인 등 틈선교가 이루어져 효과적인 선교사역이 되도록 해야 하겠다.

선교는 종합적, 총체적이어야 한다. 선교사 자녀교육문제가 선교사들의 가장 큰 어려움 중의 하나라는 점에 있어서는 오늘날도 변함이 없는 현실이다.

선교사 자녀 교육에 처음으로 초빙, 사역케 된 조소임 교사의 헌신을 기억하여야 할 것이고 단기사역으로 끝나지 않도록 하는 제도적인 배려가 있었어야 했다는 점을 생각케 한다.

한국 교회가 해외선교사 파송에 너도나도 참여하지만 실질적인 문제들에 관하여서는 너무 무관심하지나 아니한가 돌아보아야 하겠다.

단기간이었으나 1920년대 초 한국여성으로 선교사 자녀 교육에 참여한 조소임씨를 기억하여야 하겠다.

끝으로 이러한 사역에 더욱 많은 좋은 교사들이 일어나고 헌신되기를 기대하며 짧은 연구를 마무리하려 한다.

편집자 주

지난 호에 이어지는 「1917년 중화민국 선교사 홍승한 목사(III)」는 필자의 사정으로 다음 호(1996. 5/6)에 연재될 예정입니다. ※정정-지난 호 p. 76에 '홍승환'으로 인쇄된 것을 '홍승한'으로 정정합니다.

52) 총회록, 제 13회, (1924), p. 78.

조선선교사 자녀교육 문제에 관하여서는 좋고, “중화민국 조선선교사 자녀교육 문제 역사적 고찰(1913~1957)”, 중국선교연구협회 제16회 중국선교역사 세미나 (1995. 12. 29) 강의안을 참조하라.

53) 방지일 목사의 증언, 1995년 6월 3일.

54) 신성학교 동창회 교사편찬위원회, “신성학교사”, (신성학교 동창회, 1980), pp. 442~443.

55) 기독교신문, 소화 18년 9월 22일자, 29일자.

56) 한국 교회 순교자의 한사람인 김진수 목사에 관해서는 다음 문헌을 참조하라.

김춘배, “한국기독교수난사화”, (서울: 성문학사, 1979), pp. 278~279. 신성학교사, 기독교대백과사전(제3권, 기독교문사, 1985), 한국 교회 순교자(이형근) 순교자 김진수 목사의 일제말기 활동에 대하여서는 연구가 필요하다.

57) 김춘배, “한국기독교수난사화”, pp. 278~279.

58) 방지일 목사의 증언, 1995년 6월 3일.

51) 총회록, 제13회, (1924), p. 78.

선교 백년의 신앙을 이어온 묘족

주애화



묘족들은 기독교 선교 백년을 지나오는 동안 선조들의 신앙이 면면이 흘러왔던 소수민족으로 유명합니다. 이들은 특히 공산주의 하에서 심한 핍박을 받아왔습니다.

우리는 그들이 신앙을 지키느라고 깊은 산속으로 들어가 살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길은 무척이나 험하고 산에는 나무하나 없는 황토길임에도 불구하고, 작년에 어렵게 묘족의 부활 주일 행사를 보고 온 이후로 그들의 아름다운 모습이 뇌리를 떠나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다시 한번 묘족을 찾아갈 기회가 있었습니다.

10월 초순경, 우리가 묘족을 방문하기로 되어있는 주간에 비가 많이 와서, 갈까말까 망설이다가 비가 오는데도 불구하고 묘족을 방문했습니다. 이 길은 포장되어있지 않은데다 황토 흙으로 되어진 산길이며, 마침내 계속된 비로 인해 사람이 보행하기에 너무나 힘든 험악한 길로 변해 버렸습니다.

두 시간 반 정도면 갈 수 있는 길을 무려 네 시간이나 걸려서 가야 했습니다. 진흙 구덩이에 발이 푹 빠져 걸음을 옮길 때마다 진흙이 한 짐씩 달라붙어, 누가 뒤에서 장단지를 자꾸만 잡아당기는 듯 다리가 무거웠습니다. 장단지가 얼마나 맵고 아프던지, 과연 마을까지 갈 수 있을까 의심스러울 정도였습니다.

너무나 힘들어 되돌아가고픈 마음이 굴뚝같았으나, '주님은 이보다 더한 골고다 언덕길을 나를 위해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가셨는데 이까짓 어려움쯤이야'라고 생각하니 마음이 한결 가벼웠습니다. 우리의 차림은 진흙으로 범벅이 되어서 그야말로 엉망진창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곳에 도착하자 성도들이 우리를 얼마나 반갑게 맞아주던지 피로와 다리의 통증이 순식간

에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그날 저녁에 성도들과 대화하는 가운데 진흙 구덩이에 빠져가면서 우리를 이곳까지 오게 하신 하나님의 뜻을 알고 나서는 더욱 기뻐했습니다.

묘족 찬양단원은 60~70명 쯤 됩니다. 이들이 다음 주일에는 시내에 있는 교회에 가서 찬양으로 영광을 돌리기로 되어 있었는데, 교통비가 없어서 기도하던 중이었다고 합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교통비를 채워 주시지 않으면 단원 전체가 가지 못하고 소수의 사람만이 갈 것이라고 안타까운 마음을 갖고 기도하고 있던 차에, 때마침 저희들을 보내 주셔서 특별현금을 하게 하셨습니다. 저희들의 정성어린 헌금으로 그들은 그다음 주간에 60~70명 모두가 시내 교회에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우리가 있는 곳에서 가까운 교회가기에 우리도 함께 그곳에 가서 그들의 찬양을 들으면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찬양을 들으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이 묘족을 사랑하시는가를 새삼 느꼈습니다. 이들의 찬양은 그야말로 영혼깊은 곳에서 울려나오는 찬양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팀 중에 한 선교사님은 이들 모두를 한국에 초청해서 한국 교회와 교류를 갖고 찬양으로 영광을 돌렸으면 하는 안타까운 마음을 갖고 기도하고 있답니다.

지난 번에도 소식을 전했듯이 이곳 마을은 물이 아주 귀한 곳이라서 물을 아주 멀리 가서 길에다 먹어야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한국의 모 선교사님께서 고장난 양수기를 7천 원(한국돈 70만 원)이라는 돈을 들여 완전히 수리해 주셨고, 또한 사료를 만드는 기계를 사라고 천 원을 주었다고 합니다. 이 일은 그 마을에서 아주 큰 경사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촌장과 마을의 모든 사람들이 학교에 모여서 한국 교회에 대해서 감사의 마음을 표했다고 합니다. 그들로서는 8천 원이라는 돈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큰돈입니다.

또한, 묘족은 교육 수준이 낮아서 지도자다운 지도자가 배출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지도자 부족으로 인해 믿는 사람 가운데도 가면 갈수록 믿음을 떠나는 경우가 많이 일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묘족의 교육수준을 높여서 지도자를 많이 배출해 믿음에서 떠나는 일을 방지하고 저들의 신앙 수준을 높여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들 가운데 장학생 제도를 마련해서 일꾼을 키워가려고 합니다. 이들 장학생들 가운데는 불신자도 포함할 것입니다. 교회에 대한 좋은 인식을 심어 줄 뿐 아니라 이를 통해서 더더욱 복음이 확장되어지길 바라는 마음에서입니다. 한국돈 15만 원이면 중, 고등학생 한 명을 1년동안 교육시킬 수 있습니다. 이들 가운데 고등학생은 아직 없습니다. 여러분들의 기도와 후원만이 지도자를 길러낼 수 있습니다.

또한, 지난 학기에 저희들이 방문했을 때 중국어로 된 관주 성경책을 요청해서 다음엔 꼭 구해서 갔다주마 했는데, 생각보다 구하기가 어려웠습니다. 제가 살고 있는 시내의 큰 교회에서도 책을 구할 수 없어, 난징(南京)에서 출판된 것이라 난징엔 있을 것이라 생각했는데 그곳에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상하이에 있는 삼자교회에 들렀는데, 다행히 몇 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권밖에 살 수 없다고 해서 한 권만 사고 나머지는 헌금으로 전달했습니다. 그러면 다음에 다시 출판되어 나올 때 본인들이 구입하기가 쉽다고 하더군요. 이 성경책 구입을 위해서 후원해 주신 동역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다음 소식을 전할 때까지 여러분의 교회와 가정과 사업위에 주님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기원합니다.

중국 여성들에게 사랑받는 옷 치파오(旗袍)

장충광 (張瓊方)



청조(清朝)시대의 예복

60, 70세 된 노부인이 생각하기에 치파오는 역시 최고의 예복이다. 크고 작은 연회장에 참석해 보면 이것을 확인할 수 있다.

50대의 중년 여성에게 치파오는 사라진 젊은 나날들을 떠올리며 추억에 젖게 만든다.

20, 30대 젊은 여성의 인상 속에 떠올려지는 치파오는, 어릴 적 엄마의 ‘립스틱’이라든지 ‘하이힐’과 같은 것으로서 아득히 먼 꿈 속의 유물일 뿐 지금은 현실적으로 전혀 어울리지 않는 옷이라고 생각된다.

중국의 전통의상인 치파오는 참으로 사라졌는가? 이 시대의 중국여성들은, 장차 어디가서 그녀들의 아름다움을 나타낼 ‘구름같은 치마와 날개같은 옷’을 찾아 볼 수 있겠는가?

치파오란 이름 그대로 청나라 기인(旗人:만주인, 일반적으로 한족이 만주 사람을 지칭하는 말-역자주)의 복장을 말한다. 청나라 때의 고전인 「청비류초(淸裨類鈔)」에는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다.

“부녀자들의 의상은 위아래가 나눔이 없이 연결되어 있다.”

외조부가 청정 대신으로, 어릴 때부터 줄곧 환관

세가에서 자랐고 중국 오페라에서 명연기를 펼친 마위치(馬玉琪)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치파오는 청대의 예복으로 초기의 치파오는 소박하고 품이 넓어 유목민족의 풍미를 보유하고 있었다. 청조 이후에야 비로소 소매, 허리 등 신체 각 부분에 맞게 허리 구분은 생략되고 축소되었다.”

전통의상으로 제정되기까지

그러나 그 당시에 치파오를 중국 전통의상으로 삼는 데는 논쟁이 많았다. 60여 년이 흐른 지금도,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여전하다. 30여 년 전에 중국복장사(中國服裝史) 과정이 개설된 보인대학교(輔仁大學) 왕위청(王宇清) 교수는 국복(國服) 제정에 특수한 배경이 있다고 설명한다.

1928년(민국 17년), 혁명군이 북벌에 성공하여 난징(南京)에 수도를 정할 당시, 국가의 모든 일을 재정립해야 했다. 국부의 장례식에 정부 관원들이 참가해야 했는데 적당한 예복이 없었다. 그리하여 1925년 4월 정부는 재빨리 국복 제정 조례를 공포했다.

당시 사회의 사람들의 복식은 크게 두 종류로 나뉘었다. 하나는 서구 문물을 숭배하는 소수의 무리들과 유학생들이 입고 있던 서양식의복이고, 또 다른 것은 대다수의 사람들이 입고 있던 청나라식 관복과 마고자였다.

국복을 정하면서, 만주의 의복을 국복으로 제정하기에는 대표성이 갖춰지지 않는다고 여기는 일부 사람들이 있었던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중국이 만족의 통치를 받은 지 이미 268년이나 되어 복장은 이미 송, 명 시기의 그것과는 상이하게 달라져 있었다. 현재의 풍속을 파괴하고 복고풍의 옷을 제정한다는 것은 실로 어려운 일이었다. 그로 인해, 수십 차례의 토론을 거쳐 마지막으로 당시 백성들의 의복 관습을 따르기로 했던 것이다.

“그 때 우리들이 입었던 치파오는 몸에 연결된 소매와 바로 앞뒤 양편을 꿰매어 아주 여유 있게 만들어진 단청색의 의상으로, 활동하기

에 아주 편리하였다.”

화가인 량단평(梁丹豐)은 1945년 당시 항주에서 공부할 때 입었던 치파오를 회상하며 이렇게 말했다.

변하고 또 변하여

1940년대는 치파오의 변화가 가장 심했던 시기로 서양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 영화배우들의 세련된 차림새에 이끌려, 여유있고 완만한 모양의 치파오는 신체의 허리선을 따라 몸에 붙도록 개조되어 여성의 곡선미를 강조하였다. 목, 소매, 옷 길이, 색깔, 여밈 장식 등 여러 방면에 걸쳐 다양하게 변화되었다.

유행에 따라 한 때 옷깃이 높아지기도 하였다. 비록 한창 더운 여름일지라도 세련된 여성은 귀부리까지 높이 세운 치파오를 입기도 했다. 그리 머지않아 다시 낮은 옷깃이 유행되기 시작하더니, 심지어 옷깃이 생략되어 없어져 버린 적도 있었다. 유행에 따라 소매도 길게 또는 짧게 변하다가 아예 소매가 없어져 버린 때도 있었다. 그러나 당시 사회 상황에서는 매우 대담하며 반항적인 성격을 가진 여자들만이 소매없는 치파오를 입을 수 있었다.

그 후 치파오는 서서히 간편하고 입기에 편리한 옷으로 변형되었다. 몸길이, 팔길이가 짧아지고 목도 깊이 파였으며, 다시 서양의상의 앞뒤와 가슴선 등 입체적인 봉제를 도입하였다. 이렇게 치파오의 형태가 현대적 양식을 띠게 되자 청조 때 만주인들이 입던 치파오와는 매우 달라지게 되었다. 재미있는 것은 비록 치파오의 기원이 동북쪽에서 비롯되었지만 전국적으로 퍼져갔다는 것이다. 중화민국 정부가 대만으로 옮긴 후 대만의 부녀자들도 점차 치파오를 입기 시작했다. 한편, 기나긴 일본 통치 말기에는 조국에 대한 향수를 의상에 나타내기도 하였다. 다른 한편으로 치파오는 당시에 고귀한 복장이었으므로 부잣집 마님들이 입기 시작하여 결국 해마다 특별한 절기를 맞이하면 치파오를 만들어 입는 풍속이 생겨났다.



최근 들어 현대화된 스타일의 치파오가 유행되고 있다(대만).

중국미를 나타내는 치파오

치파오는 왜 그렇게 중국여성들에게 매혹적이며 일생동안 귀하게 다루어지는가?

‘우아미와 정제미’가 극치에 달한다며 치파오를 매우 선호하는 량단핑(梁丹豊)은, 치파오가 중국 여성의 부드럽고 아름다운 선의 조화와 전아한 기질을 가장 잘 표현하는 옷이라고 말한다.

그녀에 따르면, 1988년 타이페이에서 열린 국제 미인대회 때 우아하고 아름다운 각국의 아가씨들이 대회 주최측인 중국을 대표하는 의상 치파오를 입었으나, 사람들이 느낄 때 그리 아름답게 보이지 않았다고 한다. 외국 여성들의 신체건강한 아름다움은 중국 여성의 부드럽고 세밀한 아름다움과는 완전히 다르기 때문이었다. 그래서 치파오를 입은 서양 미인들의 모습은 비키니 수영복을 입은 중국 여성들과 마찬가지로 별로 어울리지 않았던 것이다.

치파오는 과연 우아하고 중국여성에게 잘

어울리는 옷이다. 그러나 치파오의 좋은 점은 상공업이 발달된 지금에 와서는 오히려 결점이 되기도 한다. 이를테면 정갈하고 세미한 수공이 그러하다. 숙련된 기술자가 하루에 많이 만들면 한 두 벌 정도 만드는데, 공임은 옷감에 따라 다르다. 3,4천 원(한화 9만원~12만원)에서 5,6천 원까지 다양한데, 다양한 무늬, 구름 모양의 자수나 여러 가지 무늬의 꽃모양 등을 첨가하면 만 원(한화 30만 원)을 웃돈다. 대량으로 제조하여 값도 싸고 편리하게 입을 수 있는 기성복과 경쟁하니 자연히 도태될 수밖에 없다.

현대 중국의 여성들이 치파오에 대해 느끼는 가장 큰 결점은 행동하기에 불편하다는 것이다. 남성이 주로 집 밖에서, 여성이 주로 집 안에서 일하던 시대의 여성은 치파오를 입고 삼륜차에 앉아서 우아한 모습을 나타낼 수 있었다. 하지만 오늘날 출퇴근하는 여성들이 만일 치파오를 입고 밀리는 공공버스를 타거나 큰 거리에서 분주히 돌아다닌다면 그 모습은 결코 아름답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이러한 까닭에 요즘 매일 치파오를 입는 사람들은 서비스업에 종사하는 종업원이거나 항공사 요원, 예술품 센터의 안내원 정도일 것이다.

그리고 원래 가장 단정하고 예절바른 복장으로 생각되었던 치파오가 오늘날에 이르러서는 여성미의 특징이 가장 잘 나타나는 옷이 되었다. 지금은 몸에 더 달라붙도록 치파오를 고쳐서 두드러진 곡선미가 더 드러나게 되었다. 이렇게 변해버린 치파오에 예트임이 점점 높아져서 변화한 유흥업소나 술집에서 볼 수 있는 그렇게 야한 치파오가 유행되어 버린 것이다.

번역/이민선·본지 편집기자
위 글은 대만 「光華雜誌社」에서 발간한 <中國人的註冊商標>의 “中國女性最好的「包裝」旗袍”를 번역한 것이다.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항상 있도록

사랑은 언제까지든지 떨어지지 아니하나...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폐하리라(고전 13:8~10)

전도자가 가장 피해야 할 것은 '설교를 위한 설교'를 하는 것이다. 은사를 발휘하기 위한 설교는 가장 위험한 것이다. 이러한 태도는 우리로 하여금 기만당하게 하며 다른 사람들에게 도를 전하고 나서 마침내 자신은 버림을 받게 되기 쉽다.

우리가 은사를 발휘하게 될 때 스스로 대단하게 여길 뿐 아니라, 대단히 영적이며 고상하게 여기기 쉽다. 그러나 우리의 생명과 은사는 전혀 다른 별개의 것이다. 말할 줄 아는 나귀도 역시 나귀에 불과하다. 그가 확실히 하나님의 뜻을 알고 주의 뜻을 행하기는 매우 어려운 일이다.

주님이 사용한 나귀는 당시에는 매우 영광스러웠다. 그러나 이후에도 그는 여전히 한 마리의 나귀에 불과하지 않은가? 그것은 단지 주께서 사용하실 때 비로소 은사가 나타난 것일 뿐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마땅히 주를 경외하는 마음을 갖고 하나님 앞에서 생활하도록 해야 한다. 항상 주의 말씀으로 우리의 사람됨을 바르게 고치며 우리 자신이 주께 향하도록 전환해야 한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것이다.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자신을 피조물의 자리에 놓아야만 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 그리하여 피조물의 자리에서 자신의 은사가 발휘될 때, 비로소 항상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머물러 있는 자기를 지킬 수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복음을 전하는 은사가 있는 사람은 마땅히 주를 사랑하고, 죄인의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갖는 것이 자기의 은사를 지키는 것보다 더욱 중요하다. 교회를 섬기는 자는 자신의 마음을 지키는 것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것보다 중요하다.

성경은 말한다.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고전 8:1).

편집자 주: 이 글은 중국 교회 지도자들이 저술한 홍콩 CMI(中國福音會)에서 출판한 묵상집 「晨光」 중에서 한 문장을 발췌하여 번역한 것으로 홍콩 CMI의 승인을 받은 것이다.

번역: 이민선 / 본지 편집기자

애정만세 (愛情萬歲)

조일래

현대 인을 표상하는 두가지 단어가 있다면 그것은 '광기'와 '고립'일 것이다. 영화 속에서 광기는 폭력으로 나타나며 고립은 자살로 이어진다. 오늘날의 세계를 제대로 반영한 영화라면, 그리고 그런 일상의 모습을 정확하게 전달하기 위해 고민하는 감독이라면 틀림없이 그의 영화는 앞서 제시한 두 단어 사이의 어딘가로 무게 중심이 기울어져 있을 것이다.

작가의 관심이 어디에 더 가있느냐에 따라 '작가의 추'는 '심리적인 무게 중심'으로 이동하기 마련이다. 광기 쪽으로 기울어지든가, 고립으로 치닫든가.

채명량(蔡明亮)의 「애정만세」는 현대 소비 사회 속에서 고립된 '개인의 원자화'를 묘사한 수작(秀作)이다. 이 영화의 특기할 만한

점은 음향효과인데, 채 감독은 대사의 부재를 통해 현대인의 단절과 일상의 황폐함을 보여주고 있다.

영화 속에서 등장하는 소리는 차단된 벽 바깥으로부터 들려오는 도심을 가로지르는 차량의 소음, 차가운 콘크리트 계단을 밟는 구두 뒷굽 소리, 욕조 속에서 경련을 일으키는 물방울 소리가 대부분이다. 뚝뚝 떠다니는 모든 죽어있는 것들 속에서 그나마 살아있는 것은 살아있는 사람들의 숨소리이다. 그것은 '우연'과 '애정없는 성관계' 속에 매개된, 자신의 정체성을 확인하려는 고통스런 몸부림인 것이다.

이 영화 속에는 '메이'라는 한 젊은 여자와 '아정'과 '소강'이라는 두 젊은 남자가 등장하지만 그들이 어디에 사는지, 식구가 몇인

지, 어떻게 해서 거기에 있게 되었는지 아무도 알 수 없다. 그들은 작위적인 상황설정에 의해 도시 속에 내던져진 존재들이다.

영화는 납골당 세일즈맨인 소강이 우연히 메이의 아파트 문에 꽂힌 열쇠를 훔침으로 시작된다. 이어 어떤 카페테리아에서 메이를 결눈질하는 어떤 남자(아정)가 등장하고 아정이 메이의 뒤를 밟는다. 이름을 알 필요도 없이, 누군지도 모른 채 다만 '살아있음'의 체취에 목말라하는 메이와 아정의 육체관계가 진행되는 동안 벽 바깥에는 삶의 의미를 상실한 채 자살을 시도하는 심약한 성품의 소강이 그들을 응시하고 있다.

날이 밝고 그들은 다시 남남인 채로 일상으로 돌아가고, 메이는 어디론가 이민을 떠나기 위해 아파트와 가게를 판다는 내용의 전단을 길거리에 붙인다. 여기저기서 전화가 걸려오고 집을 보러 사람들이 찾아오지만 계약하는 사람은 없다. 소강은 아파트 문에서, 아정은 메이의 핸드백에서 각각 훔친 메이의 집 열쇠로 메이의 집에 잠입한다. 이때 서로의 인기척에 놀란 아정과 소강은 그것이 메이인 줄 알고 조바심 하던 끝에 각자의 존재를 알게 된다. 뚜렷한 목적없이 동행하게 되는 아정과 소강 앞에 다시 메이가 찾아오고, 메이와 아정이 다시 애정없는 성관계를 갖는 동안 소강은 침대 밑에서 그들의 소리를 엿들으며 고통스러워한다.

날이 밝고 다시 메이는 떠나고, 침대에서 곤히 자고있는 아정을 물끄러미 바라보던 소강은 아정의 곤한 숨소리에 '살아있음'에 대

한 애정을 느끼고 아정에게 입맞춘다. 여기서 소강의 다소 동성애적인 성향이 드러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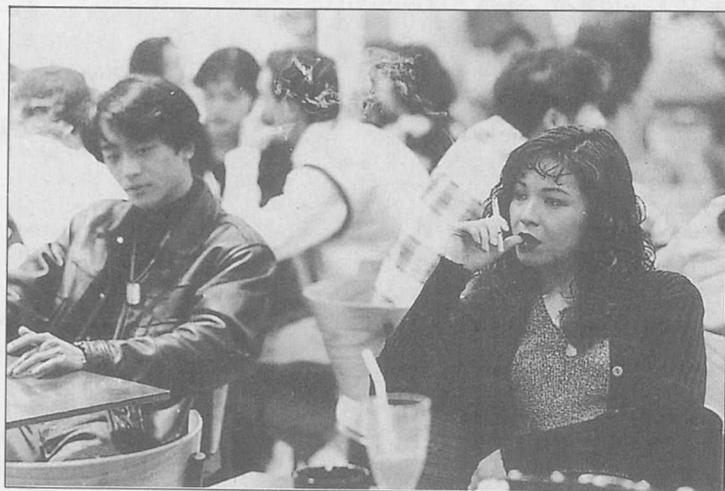
메이는 다시 근처 공원을 한참 동안 배회하다 인적이 드문 한적한 벤치에 앉는다. 메이의 눈에서 눈물이 흐르기 시작한다. 메이는 한참 운다. 이브생 로랑 한 개피를 꺼내물던 메이는 다시 울기 시작한다. 담배연기와 메이의 흐느낌을 뒤로하고 영화는 끝이 난다. 그리고 베니스 영화제는 대만에게 '94년 황금사자상을 안겨준다. 단조로운 화면구성, 이야기 없는 이야기, 그것은 지켜보는 사람을 장시간 동안 질식하게 만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카콜라와 담배연기가 자욱한, 대화가 단절된 화면을 통해 채명량 감독이 말

에 실로 오늘날 우리 삶이 주저앉도록 프로그램화된 인간의 모습이다. 채명량 감독은 우리 시대 인간의 딜레마를 아주 정확하게 그려냈다. 진실로 오늘날 우리 삶의 현상이 어떤 지점에 맞닥뜨려져 있는지 이해하는 사람은, 또한 스쳐지나가는 '관계의 피상성'에 좌절해 본 사람이라면 메이의 눈물로 채워지는 마지막 장면에 다다를 즈음 그녀와의 일체감을 느끼게 된다. 그럴 때면 우물가의 사마리아 여인 메이를 힘껏 안아주고 싶어질 것이다. 그리고 그녀에게 그녀가 누구인지를, 그녀가 어떤 존재로 지음 받았는지를 알려주고 싶어질 것이다.

우리가 살고있는 오늘날은 낯설음이 익숙함을, 비상식이 상식



「靑少年哪吒」, 「愛情萬歲」 등을 만들어 온 채명량 감독은 변화가 가속화되는 대만에서 창작 소재를 충분히 찾을 수 있다고 말한다.



외로운 한 쌍의 남녀가 변화한 도시 속에서, 낯선 타인을 향해 순간에 지나지 않을 애정을 갈구한다.

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일까? 그것은 대중 속에서 익명으로 살아가도록 분절되고 원자화된 개인, 아무도 서로의 이름을 불러주지 않은 채 방치하는 또 방치당하는 인간, 그 무의미, 무목적의 범주속

을 압도하는 세상이다. 우리가 알거니와, 포스트 모던적 세계에서 객체는 부활하고 주체는 해체된다. '절대'는 배척되며 따라서 '절대자의 이름'도 감금당한다.

가부장적 질서 내에서 자행되

던 일체의 억압은 페미니즘의 이름으로 도전받으며 그런 와중에 '간 큰 남자가 발 디딜 틈은 없다.

현재 대만이 제공하는 물질적 풍요 속에서 존재의 의미와 목적을 상실한 채 고뇌하는 영혼들, 메이와 아정과 소강. 이들은 우리가 끌어안아야 할 우리시대의 '땅끝 사람들'이다.

누가 이들에게 진정한 아버지의 이름을 되돌려 줄 것인가?

잃어버린 아들의 이름을 애타게 부르며 찾고 찾을 즈음, 아버지로부터 분리되고 단절되었던 그 아들이 영경귀 수풀 사이에서 갇힌 모습으로 발견되는 순간, 달려가 끌어 안고 입맞추며 감격의 눈물을 흘리실 그 아버지의 이름, 아바 아버지를!

조일래 / IVP 영상제작팀

你讀過幾遍聖經?

성경을 몇 번 읽어 보셨습니까?

청년부 모임 때, 청년부 담임 전도사와 임원들의 대화이다.

權傳道師：教會最近在推行讀經運動，各位要不要報名呢？

Quán chuándào shī: Jiàohuì zuìjìn zài tuīxíng dújīng yùndòng, gèwèi yào bú yào bàomíng ne?

권 전도사: 최근 교회에서 성경읽기 운동을 벌이고 있는데, 여러분들 등록했습니까?

青年會友A：我們對這次的活動不太清楚，所以還沒報名。

Qīngniánhuìyǒu A: Wǒmen duì zhècì de huódòng bú tài qīngchū, suǒyǐ hái méi bàomíng.

청년회원A: 이번 프로그램에 대해 잘 몰라서 아직 등록을 안했습니다.

權：很簡單，這個活動就是一年速讀一遍聖經。

Hěn jiǎndān, zhège huódòng jiùshì yīnián sùdú yíbiàn shèngjīng.

아주 간단합니다. 일 년에 성경을 한 번 통독하는 겁니다.

青年會友B：權傳道師，請問你讀過幾遍聖經？

Quán chuándào shī, qǐngwèn nǐ dúguò jǐ biàn shèngjīng.

전도사님은 성경을 몇번 읽어 보셨어요?

權：很慚愧，我只有讀過十幾遍而已。

Hěn cánkuì, wǒ zhǐyǒu dúguò shí jǐ biàn ér yǐ.

너무 부끄럽습니다. 나는 겨우 열몇 번 읽었습니다.

A：我更不好意思呢。從小到教會，但新舊約全書還沒讀完一偏呢。

Wǒ gèng bù hǎo yìsi ne. cóng xiǎo dào jiàohuì,

dàn xīnjiùyue quánshū hái méi dú wán yíbiàn ne.

저는 더 부끄러운데요. 어릴 적부터 교회를 다녔지만 성경을 한 번도 다 읽지 못했거든요.

權：那麼你一定得參加這次的讀經運動了。

Nà me nǐ yíding děi cānjiā zhècì de dújīng yùndòng le.

그럼 이번에 꼭 성경읽기 운동에 참가해야겠네요.

推行(tuī xíng): 추진하다, 일을 벌이다.

速讀聖經(sù dú shèng jīng): 성경을 통독하는 것.

活動(huó dòng): 프로그램, 활동.

慚愧(cán kuì): 부끄럽다, 송구스럽다.

報名(bào míng): 등록하다, 접수하다.

青年會友(qīng nián huì yǒu): 청년부원.

清楚(qīng chū): 뚜렷하다, 잘 안다.

不好意思(bù hǎo yì si): 미안하다, 부끄럽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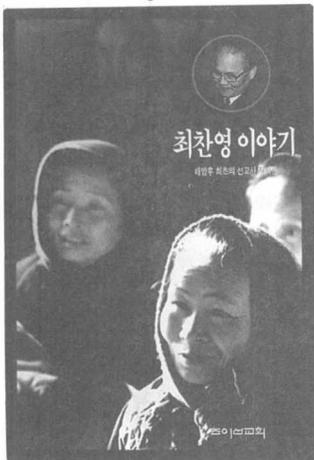
與神和好

예수 안에서



우리말 가사

예수 안에서 우리 화목됐네
예수 안에서 우리 화목됐네
하나님의 영광 함께 누릴 소망있네
예수 안에서 우리 화목됐네



최찬영 이야기

해방 후 최초의 선교사 자서전

1955 년, 대한예수교장로교 총회에서 해방 후 최초의 선교사로 파송받은 최찬영 목사. 그는 6·25의 상흔이 가시기도 전, 선교라는 말 자체가 낯설던 그 시절에 한국에서의 안정된 장래를 모두 포기하고 과감히 선교사의 삶을 살기로 헌신했다. 그 당시 선교란, 경제적으로나 문화적으로 우월한 민족이, 미개한 민족이나 야만인에게 가서 그들을 깨우치는 것이며, 기독교는 서양의 종교, 선교사는 모두 서양 사람들이라고 생각했던 때였다.

그는 37년 간 태국, 홍콩, 필리핀 등에서 선교사로 활동하면서 아시아인으로는 최초로 태국과 라오스 성서공회 총무로 사역하였고, 1978년부터 1992년 은퇴하기 전까지 역시 아시아인으로는 최초로 성서공회 아시아태평양 지역 총무로 사역했다. 그는 교단이나 한국이라는 국가를 초월한 아시아의 선교사였으며, 더 나아가 세계의 선교사였다. 선교사에서 은퇴한 그는 현재 미국 풀러 선교대학원에서 한국 선교학부 주임교수로 후진 양성에 힘쓰고 있다.

그의 사역 중 주목할 만한 것은 중국에 애덕기금회를 통해 성경 인쇄공장을 세워 중국어와 그 밖의 소수민족 언어로 1천만 권의 성경을 출판해내는 초유의 사역을 감당한 사실이다. 이는 실로 세계 문서선교 역사에 길이 남을 만한 공헌이었다.

이 책이 우리에게 많은 감동을 주는 이유는 해방 후 최초의 선교사로서 겪어야 했던 여러 가지 어려움을 극복한 과정이 그려져 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무엇보다도 최찬영 선교사의 인격적인 삶과 헌신적인 사역이 가히 한국 교회를 대표할 만한 선교의 모범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다.

태국에서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의 삶을 살아가면서,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주님을 조금이라도 닮아가는 종이 되기를 원했던 그의 기도는 지금까지도 변하지 않고 있다고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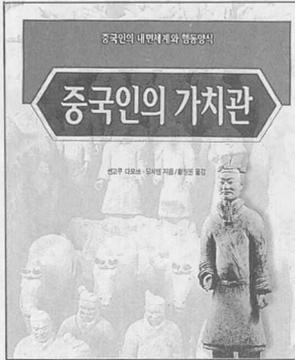
「...어떤 사람이 내게 이런 짓곳은 질문을 하였다.

“앞으로 다시 한 번 인생을 살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면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나는 조용하고 부드러운 그러나 확신에 찬 목소리로 대답하였다. “제가 다시 태어나서 지금까지 살아온 선교사의 삶을 그대로 되풀이할 수만 있다면 조금도 후회가 없을 것입니다.”...」 -본문 중에서-

이 책을 통해 독자들은 40년 간 선교의 현장에서 일했던 최찬영 선교사를 생생하게 만나볼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 시대에 선교사의 소명을 받은 자들이 어떤 자세로 살아야 할 것인지 깊이 묵상하게 될 것이다.

<최찬영 이야기 · 조이선교회 출판부 · 365쪽 · 8,000원>



중국인의 가치관

센고쿠 다모쓰 · 딩치엔 지음
황원권 옮김
신국판 · 302쪽 · 9,000원
을유문화사



중국 12억인의 개혁개방

NHK 중국 프로젝트 지음
최학준 옮김
신국판 · 334쪽 · 7,000원
하늘출판사



중국을 움직이는 사람들

김정계 지음
신국판 · 232쪽 · 7,000원
중문출판사

보통 구세대와 신세대로 구분하고 있는 다른 나라와 달리, 중국은 혁명세대의 노년층과 30, 40대의 중반인 문혁세대, 그리고 신세대로 불리는 개혁개방 세대가 어울려 복잡하고 미묘한 가치관을 형성하고 있다.

특히 국가나 사회의 정책에 대해 굴절된 사고방식의 기존세대들과, 자본주의와 자유를 갈구하는 신세대의 배금적이고 이기적인 생활 태도로 인하여 결코 서로 화해할 수 없는 가치관을 갖고 있다고 이 책은 말한다.

일본인인 저자는 연구를 통해 일본인으로서의 '이해하기 어려운 중국', '피로를 느끼게 하는 중국'이라는 편견에서 벗어나, 중일 양국의 공통된 개념과 더불어 중국 특유의 문화 사상을 발견했다고 밝히고 있다.

타문화권이 다 그렇긴 하지만 중국은 외국인의 눈으로는 더더욱 쉽게 이해할 수 없는 문화와 가치관을 가진 나라이다.

이 책을 읽고, 중국인에 대해 불신으로 일관된 개인주의자라는 편견을 좁힐 수 있는 이해를 갖기 바란다.

이 책은 일본 NHK방송 특별기획으로 중국을 취재하여 다큐멘터리로 방송했던 내용이다.

'중국을 읽으면 21세기가 보인다'는 부제가 붙어 있는 이 책은, 전 4권으로 구성되어 기획자가 불가사의한 중국에서 고민하고 발견한 모든 것을 담고 있다. 방송에서 미처 다루지 못했던 부분까지 비교적 상세히, 또한 프로듀서가 경험했던 상황을 다양하고 흥미롭게 다루고 있다.

중국을 알고 그 진실을 이해한다는 것은 현재 인류가 직면하고 있는 가장 절실한 문제를 푸는 열쇠가 되는 것이라고 강조한다.

이 책을 읽으며, 중국을 21세기의 가장 위대한 나라로 전망하는 관점을 공유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중국인의 그 놀라운 가능성을 가늠해보고 그들이 바라보는 삶과 생존을 향한 몸부림에 깊은 감동을 느낄 수 있을 것이다. 선교적인 관점을 가진 독자들이 피부로 느껴지는 중국의 현실을 바로 볼 수 있기를 바란다.

중국을 움직이는 실세의 변화는 세계의 기존질서를 변화시키는 주요인이다. 때문에 현재 '중국을 움직이는 사람들'이 누구인가 하는 것은 12억의 중국인은 물론 전 세계인의 관심사이다.

중국은 1949년 10월 1일 공산정권의 수립 이후 오늘에 이르기까지 지도층의 '갈등'과 '연합'으로 수차례의 '노선'과 '인사'의 변화를 거쳐 현재 <포스트 덩샤오핑 시대>에 이르게 되었다. 이 책은 바로 덩샤오핑 이후 중국을 이끌 지도자 7인의 생애와 사상적배경 및 그 정치노선을 통해 중국의 미래를 예측해보고자 하는 데 그 의의를 두고 있다.

이 책에 등장하는 실제 7인은, 중국 공산당 중앙정치국 상무위원으로 당 총서기직을 맡고 있는 장쩌민(江澤民), 국무원 총리 리펑(李鵬), 전국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장 치아오스(喬石),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 전국위원회 주석 리웨이환(李瑞環), 국무원 제 1부총리 주룽지(朱鎔基), 중앙군사위원회 부주석 리우화칭(劉華清), 중앙서기처 서기 후진다오(胡錦濤) 등이다.

TARGET 4000

모든 족속들은 그들의 방언으로 복음을 들을 권리가 있다.

모든 족속들은 그들의 방언으로 복음을 들을 권리가 있다는 믿음으로 1939년 조이 리더호프(Joy Ridderhof)라는 한 여성에 의해 시작된 복음음반선교회(ARM: Audio Recordings Mission)는 미전도종족과 성경이 없는 부족을 위해 전도용 테이프를 제작 보급하고 있다. 로스엔젤레스에서 시작된 이 사역은 호주를 비롯하여 현재 세계 20개의 지부를 가진 국제적인 미전도종족 선교사역으로 성장했다.

현재 한국 복음음반선교회의 대표인 조바나바 선교사가 지난 '95년 5월에 열렸던 GCOWE 대회 때 국제 총무를 만나 같은 비전을 갖고 사역하는 호주의 LRI(Languae Recordings Inspiratin)와 미국의 GR(Gospel Recordings)을 방문하게 되었다. 그 이후에 서로 협력관계가 이어져 한국에도 복음음반선교회라는 이름으로 국제적인 단체의 한 지부로서 사역하고 있다.

한국 복음음반선교회가 제공한 이 글은 미전도종족 선교전략으로서 복음 메시지를 각 종족의 언어로 녹음하여 보급하는 ARM의 비전을 소개하고 독자들의 참여를 요청하고 있다.

선교의 장애물

지금은 우리 주님께서 그의 교회를 세우고, 모든 족속과 방언과 나라로부터 사람들을 주께로 이끄심을 목도하는 흥분된 때이다. 그러나 이같이 놀라운 진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복음을 막는 많은 장벽들이 있다.

세계 선교의 주요 장애물의 하나는 전세계에 20억으로 추산되는 문맹장벽이며, 다른 하나는 오늘날 사용되는 8,000개 이상의 언어와 방언들로 인한 언어장벽(Language Barrier)이다. 대부분의 주요 언어들이 그들에게 필요한 성경을 가지고 있는 반면에 대부분의 소수 언어들은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조차 가지고 있지 못한 형편이다.

주님의 지상명령(Great Commission)을 생각할 때, 우리는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막대한 장애물을 생각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주님께서 점차적으로 이러한 장벽을 극복할 도구를 교회의 손에 쥐어 주셨다.

성경 번역자들의 지칠 줄 모르는 사역으로 거의 2,000여 개의 언어종족이 신약이나 완역된 성경 혹은 성경구절의 일부를 갖게 되었다. 이제 많은 종족 가운데 교회는 성숙해 가고 생동력이 있게 되었다.

그러나, 데이빗 바렛(세계 기독교 백과사전의 편집자)의 통계는 거의 20억에 가까운 문맹자들이 전세계에 흩어져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정부와 글을 가르치는 기관의 지속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2천 년까지 이 숫자는 24억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국제연합(UN)은 1980년대를 “잃어버린 10년”이라고 말한다. 이는 문맹률이 이 기간

동안 증가되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문맹률의 증가를 야기하는 몇 가지 상황들이 있다.

-세계의 35개 가장 가난한 나라들의 교육예산이 25%나 감소되었다.

-자이레 교사의 20%가 파면되었다.

-부패한 정부가 교육비를 개인의 영달을 위하여 사용함으로 베닌(Benin)의 학교가 수년 동안 폐교되었다.

실제적인 해결책

이 수많은 문맹자들은 복음 메시지가 가장 닿지 못한 사람들이며, 그들을 전도할 유일한 방법은 구두적 의사소통(Oral Communication)이라는 것이 명확해졌다. 입으로 전해 온 구전이 있는 사회는 일단 오디오의 형태로 들을 수 있도록 소개가 되지만 하면 복음이나 성경구절을 받아들인다.

북아프리카의 블랙 풋(Black foot) 인디언과 같은 대부분의 종족 사회는 그들 자신의 언어로 읽기를 배우는 데 전혀 관심이 없는 반면, 오디오 성경은 아주 좋아한다. 그렇지만 많은 경우에 그런 것처럼 그들이 그리스도인이 되고 난 후에는 달라질 것이다.

브라질을 예로 든다면 10년이나 15년 전에 완성된 번역 성경은 처음에 읽을 것이라고 예상했던 사람들의 1%에 의해서만 읽혀지고 있다. 결과적으로 많은 성경 번역가들은 오디오 카세트의 형태로 번역사역의 전환을 고려하고 있다.

하나님은 복음음반선교회(Gospel Recordings)가 짧은 시간에 언어 장벽을 뛰어 넘어 의사소통을 할 수 있는 간단한 녹음방식을 발전시키도록 허락하셨다. 이 방식을 사용하여, 현장 녹음 선교사팀이 세계의 가장 구석에 있는 언어를 찾아서 여행한다.

1939년 이후 복음음반선교회는 선교사의 활동이 전혀 없는 지역에서도 하나님의 진리를 전하기 위해 녹음된 음반을 사용했다. 복음음반선교회의 목표는 간단하고, 문화적으로 친숙한 형태로 구원의 길을 명확하게 지시하는 오디오 카세트를 모든 언어에 공급하는 것이다. 카세트 테이프는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에 관해 얘기하는 놀라운 방법이며 교회 개척을 위한 뛰어난 교육도구인 것이다.

오디오를 통하여 복음을 전달한 복음음반선교회의 사역은 아래와 같다.

-1943년: 20개의 언어가 오디오 음반으로 복음을 갖게 됨

-1953년: 743개의 언어가 오디오 음반으로 복음을 갖게 됨

-1963년: 2,933개의 언어가 오디오 음반으로 복음을 갖게 됨

-1973년: 3,843개의 언어가 오디오 음반으로 복음을 갖게 됨

-1983년: 4,293개의 언어가 오디오 음반으로 복음을 갖게 됨

-1993년: 4,492개의 언어가 오디오 음반으로 복음을 갖게 됨

전세계의 모든 언어로 복음이 녹음되기 위해서, 최소한 4,000개의 언어가 더 녹음되어야 하며 가능하다면 8,000개의 언어와 방언까지 녹음되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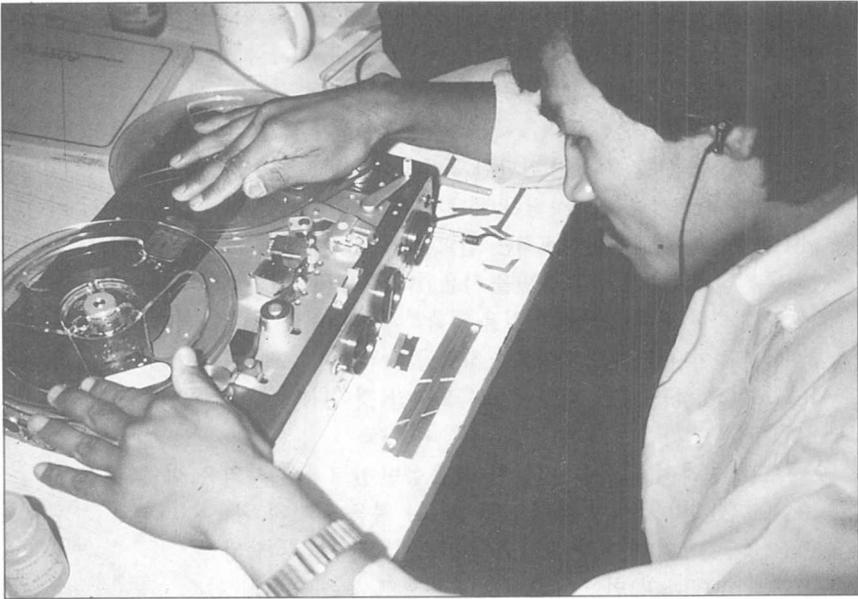
2000년까지

기도의 더 큰 참여와 교회와 선교단체의 연합된 노력으로 주력해야 한다. 녹음기술을 가진 선교사팀이 일어나서 전문화된 사역으로 연계되어야 한다. 계속적인 조사 프로그램으로 어느 언어와 방언이 그들 자신의 구별된 음반을 필요로 하는지 파악해야 한다.

국제 복음음반선교회(Global Recordings Network)는 “TARGET 4000”이라는 계획을 시작하고 있다. 이 계획은 4,000개 이상의 언어 종족이 그리스도에 대해 가능한 빨리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도록 많은 선교단체와 교회의 관심과 자원을 동원하려는 것이다.

복음음반선교회는 짧은 기간 내에 언어장벽을 뚫고 명확하게 복음을 전할 녹음 방식을 개발해 왔다. 이 방식을 사용하여, 기동성을 가진 녹음팀들은 현지 통역자의 도움을 받아 토속 언어로 메시지를 취록할 수 있다. 그들은 이 방식을 다른 선교단체와 공유하기를 원한다. 함께 동역한다면, 생명의 말씀이 몇 년 내에 모든 언어 종족에게 전해질 수 있을 것이다.

한 언어로 녹음하는 데 걸리는 평균적인 시간에 근거하여, 서기 2천 년까지 모든 필요한 언어와 방언으로 음반을 만드는 데 70개의 녹음팀(140명)을 필요로 한다. 한국 복음음반 선교회는 이러한 계획에 동참하여, 교회개척 선행전략(Pre-church Planting Strategy)으로 오디오 현장 녹음 선교팀을 보낼 교회와 선교 단체를 찾고 있다.



믿음의 사람들

현장 녹음 선교사역은 믿음의 사람들을 필요로 한다. 그들은 하나님이 매일의 필요를 채우신다는 것을 신뢰하고 그분의 은혜를 의지하여 이방 문화 속에 살며 사역한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을 어두움에서 빛으로 변화시킬 미전도 종족을 찾아 외딴 지역으로 여행하면서 복음의 메시지를 담은 카세트를 부족에게 전달한다. 고품질의 복음 장비와 발걸음을 인도하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무장한 녹음 선교사팀들은 그 곳 현지 동역자의 도움으로 구원의 메시지를 테이프에 담는다. 그들의 목표는 그 지역 문화 속에서 복음을 명확하게 제시할 수 있는 메시지와 노래를 불러 적어도 60분의 길이로 각 지역, 언어 종족에게 보급하는 것이다.



효과적인 도구들

카세트 테이프는 글과 성경이 없는 부족에게 복음을 전하는 아주 실제적인 방법이다. 수백 명의 선교사와 성도들이 그들의 사역에 우리의 음반을 사용한다. 특히 그리스천 증거자가 없는 지역에서 전도와 가르침을 위해 효과적으로 사용되는 것이다. 수동식 축음기는 배터리와 전기가 없는 지역에서도 사용될 수 있도록 복음음반선교회에 의해 개발되었다.

탐사역과 기도

복음음반 선교회는 탐사역에 주력한다. 현장 녹음 선교사와 사무실 간사, 자료 조사원, 스튜디오와 전기 전문 기술자, 컴퓨터 오퍼레이터 등등. 이러한 사람들은 이 사역을 이루어 나가는 수많은 사람들 중 소수에 불과하다. 모든 사역의 기초는 기도사역이기 때문에 수백 명의 신실한 중보기도자들이 무릎을 꿇고 기도함으로 복음음반 선교사역을 지원해오고 있다.

우리의 비전(TARGET 4000)

조사에 의하면 아직 거의 또는 전혀 그리스도인 증거자가 없는 방언과 언어가 적어도 4천여 개가 있다. 우리의 비전과 헌신은 가능한 빨리 이 언어 종족에게 그들의 말로 유용한 구원의 메시지를 담은 카세트 테이프를 만들어 주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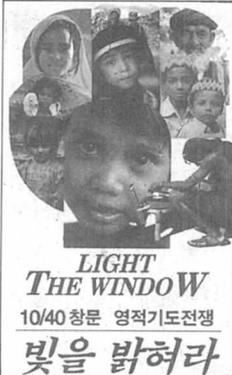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의 복음과 또 그것을 듣기 원하며 기다리는 종족들 사이에 다리를 놓아주기 위해 필요한 곳이라면 현장 복음선교사로서 어디든지 가기로 기꺼이 헌신하는 수많은 젊은이들을 하나님께서 일으키시기 원하는 것이다. 우리는 또한 모든 연령의 사람들이 이 사역의 후원자와 중보기도자로서 일어나기를 기도한다.

국제적인 네트워크

현재 20여개국이상의 모든 종족에게 전도용 음반을 보급하는 사역에 초점을 맞춘 지부를 갖고 있다. 이 지부들은 국제복음음반선교회라는 이름으로 상호 협력하고 있다. 이 마지막 때에 우리는 연합하여 나아가는 깨어있는 마음이 필요하다. 복음의 확장을 위해 우리를 효과적인 도구로 사용하실 것을 믿으면서!

복음음반선교회 한국지부 연락처/ 전화 02)408-6959 정성준 간사

복음음반선교회가 추천하는 미전도 종족선교 신간안내

<p>신간소개</p> <p>그들의 말로 듣게 하라 (Faith by Hearing)</p> 	<p>▶ 조이 리더호프의 믿음과 순종의 파란만장한 일대기!</p> <p>전기도 없이 건전지도 없이, 스피커도 없이, 오직 나뭇가지 하나로 소리가 나는 축음기! 이 축음기가 선교사의 발길이 닿지 않는 아마존과 아프리카와 아시아의 미전도 족속을 찾아 그들의 언어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한다.</p> <p>◆ 예수전도단 ◆ 4,000원</p>	<p>비디오</p> <p>빛을 밝혀라</p>  <p>▶ 10/40 창문지역의 중보기도를 통한 전략적 차원의 영적 전쟁</p> <p>10/40지역에 수천 년 동안 형성된 사탄의 견고한 진! 갓가지 우상숭배와 성적 타락, 그리고 극심한 빈곤과 영적 속박! 이 영적 요새는 어떻게 깨뜨릴 수 있는가? 영적실체를 파헤치고 영적대결의 원칙을 밝힌다.</p> <p>◆ ARM 제작 ◆ 정본/ 28분 축소본/ 14분</p> <p>구입을 원하는 분은 ARM <02)408-6959>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문의담당: 정성준 간사</p>
<p>처유 테이프</p> <p>위축된 자아의 회복</p> 	<p>우울증과 거절감, 자기학대와 부정적인 자아상으로 상처입은 마음을 향한 하나님의 세미한 위로의 음성</p> <p>현대의 많은 사람들은 우울증과 무기력증의 심각한 정서장애로 고통당하고 있다. 자신이 누구인지를 잊고 대중에 휩쓸려 사는 사람이 많다. 이것은 어린 시절 마땅히 받아야 할 격려와 수용, 사랑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이며 비록 지적, 육적으로 어른이 되었지만 여전히 부정적인 자아상으로 열등감과 비교의식 속에서 내면의 고통을 당한다.</p> <p>자기신분회복, 자기성품회복, 자기가능성회복의 3부로 나누어져 있는 이 오디오 테이프는 잃어버린 자기 정체성과 가능성을 회복시키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만들어졌다. 불신자들에게 효과적으로 복음을 전도할 수 있는 도구가 되며 내면 치유를 필요로 하는 크리스천들에게 도움이 될 것이다.</p> <p>전국 기독교서점에서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가격 3,000원</p>	

보도물에 나타난 최근 중국동향

종교

상하이시, '96년부터 미신 금지

상하이(上海)시 의회는 최근 일고 있는 미신 퇴치를 위해 '96년 3월 1일부터 사당에서 짐을 치거나 굿을 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의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짐이나 손금보기, 제비뽑기, 병치료를 위한 굿'을 하다 적발될 경우 당국으로부터 처벌을 받게 되었다. (조선일보 95. 12. 5)

사찰들, 돈벌기에 열 올려

중국의 사찰들이 돈벌기 열풍에 적극 가세, 주지승들이 핸드폰은 물론 승용차까지 보유하고 있다. 중국 불교의 4대 성산으로 꼽히는 안후이성(安徽省) 구화산(九華山)의 86개 사찰들은 숙박업과 채식 음식점, 그리고 승복, 모자, 덧신, 불경, 염불 테이프 등을 파는 가게를 운영해 떼돈을 벌고 있다. (조선일보 95. 12. 6)

티베트 관선 판첸 라마 죽위

중국 정부는 티베트 불교의 영적 지도자인 판첸라마의 11대 현신으로, 티베트 망명정부의 결정과는 별도로 선정한 6세의 기아인카인 노르부의 즉위식을 단행했다. 판첸라마가 공산 정부에 의해 선정되기는 라마교 역사상 처음있는 일로, 망명 티베트인들이 관선 판첸라마의

승인을 거부함으로써 라마교 교단의 분열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조선일보 95. 12. 8)

종교시설 일제 등록 지시

중국은 모든 종교시설의 등록을 지시하는 한편 종교가 사회주의 단결을 저해하지 못하도록 종교관련 법률을 대폭 강화할 방침이다. 베이징(北京)의 종교 관계자들은 이번 조치가 특히 시장(西藏) 티베트와 신장(新疆) 위구르의 독립 움직임을 주도하고 있는 라마교, 회교를 겨냥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또 최근 반체제 인사들과의 교류가 늘고 있는 기독교도들도 문제삼을 것으로 보인다. (중앙일보 96. 1. 14)



▲관선 11대 판첸 라마 즉위식 광경

웨이징성에 징역 14년 선고

중국의 한 법원은 13일 중국 반체제 지도자 웨이징성(魏京生·44세)에게 정부 전복 기도 혐의로 14년 징역형을 선고했다. (조선일보 95. 12. 13)

홍콩 공무원 신분 유지

리펑(李鵬) 총리는 중국이 '97년 7월로 예정된 홍콩특별행정구에 대한 주권행사 재개 이후에도 중앙 정부 공무원을 파견하지 않고 현재의 홍콩 당국 공무원을 그대로 유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경향신문 95. 12. 14)

덩샤오핑, 군 업무 계속 권장

중국 최고 지도자 덩샤오핑(鄧小平·91세)이 인민해방군 업무에 계속 개입하겠다는 뜻을 천명했다. 덩은 장쩌민(江澤民) 주석에게 최근 보낸 서한에서 "당분간 나는 '군사공작'을 계속 지원하기 바라고 있다"고 밝혔다. (한겨레신문 95. 12. 19)

계엄법 제정 추진

중국 정부는 질서를 유지하고 국토방위를 견고히 하기 위해 20일 계엄법안을 전국인민대표대회에 상정했다. 이 법안은 '소요나 반란, 폭동 등 국가의 단결과 안정, 사회안정을 해치는 사태가 발생해 다른 방법으로는 사회질서를 유지하고 인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없을 때' 계엄령의 발동을 승인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한겨레신문 95. 12. 22)

장쩌민, 5년 내 체제개혁 안해

중국 공산당 정치국은 앞으로 최소한 5년간 새로운 정치체제 개혁을 실시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장쩌민 총서기는 이같은 결정의 배경으로 정치안정과 사회안정을 위해 혼란을 피해야 할 필요가 있고, 현재 실시 중인 부분적 정치체제 개혁부터 뿌리내려야 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동아일보 95. 12. 27)



▲군대를 사열하고 있는 장쩌민

중국 외교관 2백 명 '97년 후 홍콩 상주

중국 외교부는 '97년 이후 홍콩에 약 2백 명의 외교관들을 상주시키며 이들 중 상당수는 외교 정부 대표들과 언론 및 수상한 조직들을 '감시하는 임무'를 떠맡게 될 것이라고 홍콩 주재 서방 외교관들이 밝혔다.

(조선일보 95. 12. 27)

인권백서(人權白書) 발표

중국은 지난 4년 간 범죄율이 감소하고 강요된 자백이 금지되는 등 자국의 인권이 크게 개선됐다는 인권백서를 발표했다.

(조선일보 95. 12. 28)

중국, 세네갈과 단교

중국 정부는 최근 대만을 승인하고 국교를 수립한 세네갈과 외교관계를 단절했다고 밝혔다. 세네갈은 아프리카 국가 중에서 10번째로 대만과 외교관계를 맺어, 대만을 승인한 31번째 국가가 됐다.

(조선일보 96. 1. 9)

2010년까지 사법제도 개혁

중국은 오는 2010년까지 중국의 특성과 국제적 수준에 걸맞는 방향으로 사법제도를 적극 개혁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조선일보 96. 1. 13)

범죄 용의자들 장기 구금제 폐지

중국은 그동안 범죄용의자들에 대해 기소되지 않은 상태에서, 조사를 이유로 장기 구금해온 형사 절차상의 악습을 폐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중앙일보 96. 1. 14)

지도부, 덩샤오핑 비판

주룽지(朱鎔基)는 덩샤오핑이 '92년 초 경제개혁, 개방 가속화를 촉구한 것과 관련, 중국 전역에 '미친듯한 사고방식'을 주입시켰다고 비판하고 "더이상 이 같이 비현실적인 출발들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공격했다.

(조선일보 96. 1. 17)

'홍콩, 마카오 군구' 신설 결정

중국공산당 중앙군사위원회는 홍콩과 마카오의 주권반환에 대비해 '홍콩, 마카오 군구(軍區)'를 신설하는 한편 홍콩 내에 6,000~7,000명의 인민해방군을 주둔시키기로 결정했다.

(중앙일보 96. 1. 21)

홍콩 특구 준비위 26일 공식 발족

'97년 7월 1일 출범될 홍콩특별행정구 초대정부와 의회구성 등을 책임질 홍콩특별행정구 준비위원회가 26일 공식 발족되어, 28일까지 3일간 북경 인민대회당에서 제1차 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조선일보 96. 1. 23)

장쩌민, 당의 보도매체장악 역설

장쩌민 중국 국가주석 겸 공산당 총서기는 덩샤오핑의 중국적 특색을 지닌 사회주의 건설 이론의 지침에 따라 선전 및 사상 공작에 대한 지도를 강화하라고 각급 당위원회에 촉구했다.

장 주석은 이날 중난하이(中南海)에서 열린 전국 선전부장회의에서의 연설을 통해 "정확한 여론의 방향을 견지해 먼저 신문과 잡지, 통신사, 라디오방송국, 텔레비전방송국의 선전방향을 파악하고 이들 진지를 우리 당의 수중에 확실하게 장악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선일보 96. 1. 25)

덩샤오핑 앞두고 정치운동 개시

중국 공산당은 덩샤오핑 사망을 앞두고 '96년을 '부르조아 자유화 반대' 및 '화평연변(和平演變) 반대'의 정치운동을 전국적으로 전개하기로 결정했다. 이는 마르크스·레닌주의, 모택동 사상의 퇴조에 따른 이데올로기의 혼란과 무질서를 바로잡기 위한 것이다.

(조선일보 96. 1. 31)

경제

외채 천억 불

중국의 대외채무가 '94년 말의 9백28억 달러에서 '95년 1천억 달러를 넘어설 것이라고 북경의 경제신문 『금융소식』이 보도했다.

(조선일보 95. 12. 2)

대만, 대중국 교역 경제특구 건설 제안

리엔잔(連戰) 대만 행정원장(총리)은 본토와 직거래를 하기 위한 해안 경제특별구역을 대만에 설치하는 방안을 내놓았다.

대만 신문들은 정부가 중국에 화물을 직접 운송할 수 있는 해안운송센터의 건립계획에 이어 다시 이같은 경제특구 설치안을 내놓았다면서 이는 중국과의 관계를 개선하고 대만을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거래 중심지로 만들려는 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고 전했다.

(조선일보 95. 12. 10)

'95년 중국 소매물가 인플레이션 14.8%
 중국의 '95년도 소매물가 인플레이션은 정부가 연초에 목표로 설정했던 15%보다 0.2% 포인트 낮은 14.8%로 나타났고, 연간 물가지수도 '94년보다 7%나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과열됐던 중국 경제가 진정됐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조선일보 95. 12. 31)

최초의 민영은행 출범

중국 사회주의 정부 수립 이후 최초의 민영은행인 중국민생은행공사가 베이징에서 정식으로 문을 열었다. 이 은행의 자본금은 13억 8천만 원(1천6백60만 달러)으로 이중 80%는 민간회사들이 출자했으며 주주는 59명이다.
 (중앙일보 96. 1. 12)

중국·대만·홍콩 외환보유고 합계 세계 1위

중국과 대만, 홍콩 등 3개 국가·지역의 외환보유고가 모두 2천1백억 달러를 돌파, 일본을 제치고 세계 제1위가 됐다. '95년 11월말 현재 3개 국가·지역의 총 외환보유고는 중국 7백억 달러, 대만 9백77억7천5백만 달러, 홍콩 5백억 달러 등이다.
 (조선일보 96. 1. 16)

인터넷 경제정보회사 설립

중국은 국내 기업들에 대해 인터넷을 통해 국제경제정보를 제공하는 인터넷 경제정보회사를 설립했다. '아시아 전자상업정보를 위한 인터넷 컨소시엄'이 북경에서 공식 설립됐으며 홍콩에는 중국 관영 신화통신사에 의해 운영되는 '차이나 인터넷(CIC)'사가 설립됐다.
 (조선일보 96. 1. 25)

종업원 8명 이상 업체 60만 개 넘어

중국에서 종업원 8명 이상을 둔 기업이 '95년 60만 개를 넘었다. 한편 종업원 8명 미만인 영세 개인 업체들은 '90년보다 68.5%가 늘어난 2천2백38만 개에 달한다.
 (조선일보 96. 1. 31)

'95년 기술수입 130억여 달러

중국은 '95년에 130억 3천만 달러 어치의 기술 및 장비를 수입했으며 주로 민간금융과 외국수출차관 등을 이용, 외국

기술을 구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조선일보 96. 1. 31)

사회

폭동진압 경찰, 노동자에 발포. 백여 명 사상

남부 경제특구 광둥성(廣東省) 선천(深圳)에서 폭동진압 경찰이 건설 노동자들의 폭동을 진압하기 위해 기관총을 발사하고 무차별 집단구타까지 가해 4명이 사망하고 최소 1백명 이상이 부상했다.
 (조선일보 95. 12. 6)

대만-중국 간접 직항 시대 돌입

타이베이-마카오-베이징 노선이 개통돼 대만과 중국은 이른바 간접 직항 시대에 돌입한다. 이번 '간접 직항'의 허용은 대만-중국간 직접적인 통항(通航), 통상(通商), 통우(通郵)의 금지를 견지해온 대만 당국의 이른바 '3불통정책'의 완화를 의미한다.
 (조선일보 95. 12. 7)

대만에 전화우편 등 직통조치 제안

중국은 제3국을 통해서만 가능했던 대만과의 우편, 전화를 직접 연결하는 방안에 관한 논의를 제안했다.
 (조선일보 95. 12. 16)

'녹색식품' 열풍

중국에 무공해 식품을 일컫는 '녹색식품' 바람이 불고 있다. 12억 인구 대부분의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니까 이제 생활의 질을 추구하고, 비싸도 안전하고 질 좋은 식품에 눈을 돌리고 있는 것이다.
 (문화일보 95. 12. 21)

베이징시, 공공장소 흡연 전면 금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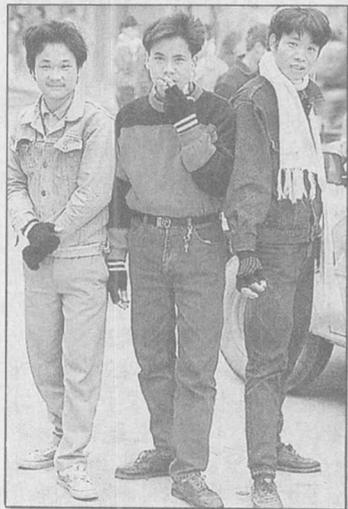
3억 5천여만 명의 흡연인구를 보유한 세계 최대 담배소비국 중국의 수도 베이징시는, '96년 5월 15일부터 공공장소에서 흡연을 전면 금지하기로 결정했다. 베이징에 이어 상하이(上海), 우한(武漢), 선양(瀋陽), 충칭(重慶) 등 다른 대도시들도 곧 이같은 형태의 금연법을 채택할 예정이다.
 (동아일보 95. 12. 22)

노동자 농민 시위·청원 1만 2천 건

중국의 노동자와 농민들은 '95년 10월 말까지 1만 2천 건의 시위 및 청원을 주도했으며, 이들의 불만은 대체로 실업과 생활고 및 당정관료들의 부패 등이 주류를 이뤘다.
 (조선일보 95. 12. 28)

'96년부터 새 신분증 발행

노동자들이 엄격한 주거지 변경 제한을 회피하기 위해 신분증을 위조하는 일이 빈번히 발생함에 따라, 중국 정부는 이를 막기 위해 '96년 1월 1일부터 위조가 어려운 입체영상의 새 신분증을 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동아일보 95. 12. 30)



광둥의 신세대 청년들

21세기 중국인 우선 구매품목은 자동차와 집

상하이 세계경제연구소의 보고서에 따르면, 21세기 되면 중국의 2~3천만 명의 도시인구가 연간 4천 달러의 소득을 올리게 될 것이라고 예상하면서, '그때가 되면 자동차와 주택이 소비자들의 가장 인기있는 구매품목'이라고 전망했다.
 (조선일보 96. 1. 3)

중국 의사, 고아원의 인권유린사례 폭로
 고아의 인권을 유린한 것으로 알려진 상하이의 한 고아원에서 일했던 한 여의사는, 중국 당국이 고아의 인권유린 및 고

의적인 방치와 관련한 자신의 견의를 묵살했다고 폭로했다. 그녀는 지난 '88년부터 '93년까지 문제의 고아원에서 근무할 때 고아들이 침대에 묶인 채 진정제를 맞고 굶어 죽어가는 광경을 목격했다고 밝혔다.

(조선일보 96. 1. 8)

외국 뉴스매체 신화사 통제반도록 지시
중국 국무원은 외국의 모든 뉴스 매체들에게 관영 신화통신의 통제 및 승인을 받도록 지시하는 명령을 내렸다.

(조선일보 96. 1. 17)

수업료 받는 중국 대학 계속 늘어나
수업료가 없던 중국 대학의 절반이 오는 가을부터 수업료를 징수할 계획이다. 중국 정부는 대학생들에게 수업료를 받지 않고 졸업 후에는 일자리를 배당해 주었으나 오는 2000년까지 모든 대학생에게 수업료를 징수하고 졸업 후 일자리를 스스로 선택토록 한다는 목표 아래 지난 '94년 시험적으로 37개 대학에 중산층 가정 연간소득의 4분의 1에 상당하는 1천~1천5백 위엔(1백20~1백80달러)의 수업료를 받도록 허용했다.

(조선일보 96. 1. 24)

밀항범법자 7천7백여명 체포

한국과 가까운 산둥성과 랴오닝성, 대만과 가까운 푸젠성 등 중국의 일부 연해지구에서는 최근 '큰 돈을 벌기 위해' 다른 나라로 밀항을 기도하거나 가짜 서류 등을 갖고 불법 출국하려는 사람이 늘어 지역 공안당국이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 지역 공안당국은 '95년 한해 동안 7천7백94명의 밀항자를 체포했다.

(조선일보 96. 1. 27)

한·중관계

장쩌민, 한국 경제발전 모델 조사 지시
중국의 국가원수로서는 처음 한국을 방문했던 장쩌민 국가주석겸 공산당 총서기는 지난 달 한국방문 뒤 귀국해 한국 경제발전 모델을 상세히 조사하도록 지시했다.

(조선일보 95. 12. 10)

매일유업, 중국 라디오 방송국 투자
매일유업은 지난 달 중국 쓰촨성(四川省) 경제뉴스 라디오 방송국과 이 방송국의 토요일, 일요일, 휴일 방송부문에 8천만 원(한화)을 투자하기로 계약을 체결, 앞으로 이 방송의 운영에 참여하고 수익금의 25%를 배당받기로 했다. 이로써 매일유업은 외국 기업중 최초로 중국의 국영 라디오방송국의 투자운영에 참여하게 됐다.

(동아일보 95. 12. 28)

대규모 탈북사태 대비

중국 정부는 북한 식량난과 관련, 식량 실태에 대한 자체 분석과 함께 체제위기 시 발생하게 될 탈북자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조선일보 96. 1. 7)

중국 교포 여성 위장결혼 성행

중국 거주 조선족 여성들이 국내 취업을 위해 브로커 등을 통해 위장결혼, 우리 국적을 취득한 뒤 잠적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특히 국내 브로커들이 중국 측 브로커들로부터 건당 5백만 원 정도의 소개료를 받아 국내 위장결혼 상대자에게 2백만~3백만 원의 '위장결혼 대가'를 주는 등 국제 위장결혼이 전문화, 조직화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조선일보 96. 1. 9)

김포공항 중국인 통과여객 '격리수용'

국내 항공사들이 김포공항에 도착한 중국인과 조선족들의 밀입국을 방지하기 위해, 다른 외국인과 달리 여권을 회수하고 출국 때까지 일정 구역에 사실상 '격리수용'하고 있다.

(조선일보 96. 1. 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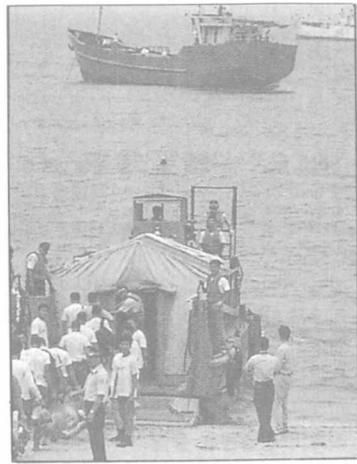
인천항 이용 내국인 감소, 중국인 증가

인천세관에 따르면 인천항을 통해 한국과 중국을 오간 여행객 중 내국인과 조선족 교포는 크게 줄고 중국인, 대만인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조선일보 96. 1. 17)

김해 출입국관리사무소, 불법체류 중국 교포 정보원 활용

법무부 김해 출입국관리사무소가 불법체류 중국교포를 정보원으로 활용, 다른 조선족을 무더기로 검거해 강제출국시



▲대만에서 추방당하는 대륙 밀항범법자들

킨 사실이 밝혀졌다.

(중앙일보 96. 1. 17)

대중국 무역수지 작년 36억 불 흑자

우리 나라는 지난해 중국에 1백2억9천만 달러 상당을 수출하고 66억9천만 달러어치를 수입, 36억 달러의 무역수지 흑자를 기록하며 중국의 7대 교역국이 되었다.

(중앙일보 96. 1. 22)

중국교포 무사증 입국 검토

법무부 출입국관리국 관계자는 26일 "현재의 사증(비자) 제도로는 중국교포들의 불법체류 및 불법입국을 억제하는데 한계가 있어, 이를 개선하기 위해 중국교포들에 대해 사증발급 절차를 간소화해 단계적으로 출입을 자유화하고 최종적으로는 무사증 입국까지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조선일보 96. 1. 27)

중국인 산업연수생 25명 출국조치

입금 인상을 요구하며 회사 직원을 감금한 중국인 산업연수생 25명에 대해 출국조치가 내려졌다. 출입국관리사무소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9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숙소에서 회사 직원 김모씨를 감금한 채 임금 20% 인상을 요구하며 작업을 집단 거부했다는 것이다.

(조선일보 96. 1. 30)

중국교포 운전자 유치 추진

국내 시내버스 운전기사 부족에 따른 운행차질을 해결하기 위해 중국교포 운전사의 유치가 적극 추진되고 있다.

(조선일보 96. 1. 31)

중국동향 초점



웨이징성이 체포된 내막

중국을 저명한 반체제 인사인 웨이징성(魏京生, 44세)을 '95년 11월 21일 정부전복(顛覆)기도 혐의로 정식 구속했고, '95년 12월 13일 14년 징역형을 선고했다. 그가 쓴 회고록, 인터넷의 학습 사용, 중국이 그를 대신해 작성한 반혁명 조직망이 그 증거자료이다. 그러나 진짜 원인은 중·미 화해 분위기가 중국의 강경화를 초래했기 때문이다.

중거1. 회고록

웨이징성은 94년 출옥한 후 거의 활동을 하지 않았다. 다만 감옥에 있었을 때의 생각과 생활의 경험을 내용으로 회고록을 적었을 뿐이다.

원래 회고록을 쓸 권리는 누구에게나 있는 것이다. 그러나 중국 정부는 그가 쓴 글에 '국가기밀'이 담겨 있다고 주장한다. 예를 들면 외국 인사들과의 접촉 경위 등이 그것인데, 만약 이러한 내용조차 국가기밀에 속한다면, 중국 지도층이 발설하는 '국가기밀'이란 무궁무진할 것이다.

중거2. 인터넷 학습과 사용

웨이징성의 비공개 피망의 하나가 바로 인터넷을 통해 정보를 제공했다는 것이다. 사실 웨이징성은 인터넷에 그다지 숙달되지 못했을 뿐 아니라, 전화선을 이용해야 하는 인터넷은 중국에서 많은 제한이 따른다.

중국 정부는 민주운동 인사들이 인터넷을 통해 외국의 자료를 얻고 중국의 '기밀'을 누출할 것을 지나치게 긴장하고 있는 듯 하다.

중거3. 정부 전복 기도

중국 정부는 회고록을 쓴 것과 인터넷 학습 사용으로는 근본적으로 죄가 성립될 수 없다는 지적을 받게 되자 웨이징성에게 '정부전복 기도'죄를 부가했다.

그가 반혁명 세력을 결집하여 최종적으로 중국 공산당의 정치를 와해하려고 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웨이징성은 출옥 후 장기간 공안과 국가안전부의 감시를 받았기 때문에 사실상 반혁명 세력과 결탁하기란 불가능하다.

또한 웨이징성이 당국에 감금당했던 1년여의 기간은 법률이 정한 구류 시간을 훨씬 초과한 것이고, 또한 그 기간 동안 아무런 언급도 없다가 지금에 와서야 '반혁명 죄'를 부가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 것이다.

중국 정부가 웨이징성을 정식으로 구속한 후 나타난 미국의 반응은 많은 사람들을 실망시켰다. 단지 중국에 유감만 표했기 때문이다. 과거 웨이징성이 석방 됐을 때의 태도와는 확연히 다르다. 한 소식통에 의하면 미국이 중국의 인권 문제에서 손을 뗀 후 여러 가지 이득을 얻게 되었다고 한다. 그 중 가장 만족스러운 것이 미국의 특정 상품에 대한 시장 개방이다. 이로써 미국은 올해 중·미 무역역차를 1/3으로 줄일 수 있게 되었다.

이것은 그야말로 중·미 양측의 필요를 다 충족시키는 누이 좋고 매부 좋은 일이 아닌가? 다만 중국 민주 발전의 앞날이 첩첩산중인 것이 안타까울 뿐이다.

웨이징성 체포의 속셈

중국 정부가 웨이징성을 체포하여 국가 전복 죄로 고발한 것은 웨이징성을 감옥에서 늙어 죽게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웨이징성을 구실로 서방과 거래를 하려는 것이며, 또한 최종 목적은 웨이징성을 국외로 추방, 망명토록 해서 내부적 화근을 없애고자 함이라고 한 고위관리는 토로했다.

현재 중국은 가장 불안한 시국에 처해있다. 사회적으로는 치안의 악화, 경제적으로는 국유기업의 고질적인 문제 등 전국이 마치 마른 장작더미에 불이 붙을 것과 같은 실정이다. 이에 중국은 웨이징성과 같은 사회 운동가가 현실에 불만을 품은 노동자, 농민과 연합해 통제할 수 없는 대규모의 군중 폭동을 일으킬 것을 두려워하고 있다. 따라서 웨이징성이 자유의 몸이 되어 사회로 되돌아가지 못하도록 여러 가지 방도를 강구하고 있는 것이다.

중국을 현재 반체제 사회 운동가, 민주 운동 인사, 지하교회 인사, 동성연애 운동가, 환경 운동가 등에 대해 엄격한 감시를 하고 있다. 소식통에 의하면 '95년 세계여성대회 기간 동안 '위험인물'이라 여겨지는 수천 명을 북경 밖으로 모시고(?) 나가 관광 유람시켰다고 하는데, 이들 '위험인물' 한 명 당 두 명의 공안원을 대동시켜 고급 호텔에서 호의호식하도록 배려(?)했다는 것이다. 이 때 지출된 경비만 1000만 위엔(한화 10억) 정도 됐다고 한다.

(開放, 95. 12)

고 신 선 단

세미나 스케치

국제 크리스티디 중국선교 해법 세미나

국제 크리스티디선교협의회에서는 중국선교해법세미나를 구랍 12월 19일(화) 오후 2시 한국교회 100주년 기념관에서 개최했다.

국제 크리스티디선교협의회 손진성 목사는 중국선교지 방문 보고를 통해,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중국선교의 문제점을 밝히고 효과적인 선교전략으로서 한글 창제 원리 속에 담긴 기독교신본 사상을 가르치는 '한글 바른 배움법'을 제시하였다.

국제 크리스티디 사회교육협의회는 작년에 중국 흑룡강성 치치할시 사범학원과 자매결연을 맺은 바 있다. 또한 이곳에 한국어를 연구하고 배양하며 훈련할 센터 등을 설치 운영한다는 계획을 갖고 있으며, 치치할 사범학교에서 한글을 가르칠 교사를 모집하고 있다.

전문인 선교사로서 한글 교육에 관심있는 이들은 국제 크리스티디선교협의회로 문의 바란다.

TEL. 685-3027, 689-8254

중국교회와선교연구소 목요일집회 안내

중국복음선교회 부설 <중국 교회와 선교연구소> 선교사역부는 올해부터 중국을 알고, 중국어를 배우는 정기 목요일집회를 갖는다.

1월 첫째 주 목요일에 열린 첫 집회는 중국어 예배 및 기도회로 진행되었다. 본회의 대표인 유전명 목사가 골로새서 3:9-10을 본문으로 '옛사람을 벗고 새사람을 입자'라는 주제로 설교하였고, 기도회 시간에는 중국 산동성을 소개하여 교회 상황을 알아보고 산동성 교회 지도자들과 신도들을 위해 기도하였다.

둘째 주는 중국어 찬양을 배우는 시간으로 1월에는 '來讚美主(주를 찬양하세)', '愛使我們相聚一起(우리는 사랑의 띠로)' 등을 배웠다. 중국어 회화는 발음반, 기초반, 회화반으로 나누어 진행되었다. 셋째 주는 중국영화를 감상하는 시간, 그 첫번째로 '진가락(陳家洛)'을 감상하였다. 이 영화에서 유심히 보아야 할 내용은 중국의 소수민족인 회족과 한족, 만주족 간의 갈등이라고 이창우 형제(중국복음선교회 회원)가 설명해 주었다.

넷째 주에는 <중국 교회와 선교연구소의 한윤숙 간사가 담당하는 '중국 탐구' 프로그램인데, 1월에는 오리엔테이션으로 12명의 참석자를 두 조로 나누어 조별로 교제하였다.

목요일집회에 관심있는 분들의 지속적인 참석을 바란다.

일시: 매주 목요일 오후 7시~9시

내용: 첫째주-말씀과 기도회

둘째주-중국어 찬양 및 선교 중국어반

셋째주-중국영화 감상

넷째주-중국탐구(자료조사 및 토론회)

다섯째주-교제

자세한 문의는 중국복음선교회로

TEL. 778-3626

..... 훈련반을 일꾼을 모집합니다.

성경번역선교회(GBT) 오리엔테이션 과정

성경번역선교회는 성경번역 사역에 관심있는 사람들을 위해 봄, 가을로 성경번역 선교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을 소개하며 공부하고 있다.

개강: 1996년 3월 4일(월)

시간: 매주 월요일 오후 7시~9시

장소: GBT 사무실(사랑의교회 옆 영동프라자)

등록비: 2만 원(교재비 포함)

(정기적인 참석이 어려운 분들을 위해 통신과정도 마련 되어 있다)

◇부산, 대구, 광주, 전주, 인천, 대전지부도 동일한 모임을 가짐(전주지부는 목요일에 모임)

자세한 문의는 GBT로

TEL. 558-4602, 555-5324(어진옥 담당간사)

한국 OMF 월요 선교학교

한국 오엠에프에서는 선교사의 삶을 이해하고 타문화권 이해와 사역에 대한 준비를 위한 훈련으로 월요선교학교를 개강한다. 특히 동아시아 지역의 선교적 상황과 필요를 알고 구체적인 이해를 위해 사역지 소개와 영어 등을 훈련할 기회를 갖는다.

대상: 선교헌신자 및 장기 사역자, 신학생

기간: 1996년 3월 4일부터 6월 24일까지

(매주 월요일 오전 10시~저녁 6시)



훈련비: 15만원

자세한 문의는 한국 옴에프로

TEL. 563-7574

세계선교훈련원 훈련학교

세계선교훈련원에서는 선교 헌신자의 영적준비와 선교 이론 및 실재를 준비하여 선교사역을 잘 감당하도록 훈련학교를 실시한다.

▷1단계: 세계선교훈련원(KWMTI)

일정: 1학기 1996년 3월 25일-4월 19일(4주간)

2학기 1996년 4월 29일-5월 23일(4주간)

훈련장소: 소망수양관(경기도 광주)

등록비: 학기당 50만원(부부는 80만원)

▷2단계: 한국선교사훈련학교(KMTS)

일정: 1학기 1996년 6월 3일- 9월 2일(14주간)

월(오후 7시-9시) / 화, 목(오전 10시-5시)

훈련장소: KMC(서울 서초구)

등록비: 학기당 10만원(부부는 15만원)

▷3단계: 해외훈련(영국, 싱가포르, 필리핀)

자세한 문의는 한국선교사훈련원으로

TEL. 363-7091

한국제자훈련원 훈련생 모집

한국제자훈련원에서는 제6기 훈련생을 모집한다.

기간: 1996년 3월 4일부터 10월 26일까지(8개월)

장소: 강원도 춘천 소재 본 훈련원

훈련비: 130만원

자세한 문의는 한국제자훈련원으로

TEL. (0361) 57-3192

고난당하는 성도들을 돕기위한 제1회 선교대회

국제선교단체인 「Open Doors With Brother Andrew」

한국지부인 옴도어선교회에서는

‘전세계의 고난당하는 성도들을 돕게하소서!’ 라는 주제로 제1회 선교대회를 개최한다.

일시: 1996년 3월 18일(월)부터 19일(화)까지

오후 6시~9시 30분

장소: 양재동 햇불선교회관

18일: 믿음실, 19일: 희락성전

강사: Johan Compenient(Open Doors 국제총재)

Alan Hall(Open Doors국제지부개발책임자)

대상: 각 교단 선교부 및 해외선교단체 사역자,

신학생 및 선교헌신자

자세한 문의는 옴도어선교회로

TEL. 403-6797

AAP 제4기 선교정탐훈련원 모집

한국 미전도종족 입양운동본부(AAP)에서는 기존의 선교정탐에 대한 새로운 방향 제시 및 정탐 리더 양성을 목적으로 제4기 선교정탐훈련생을 모집한다.

기간: 1996년 3월 16일부터 6월 1일까지

매주 토요일 오후 4시~9시(12주과정)

모집인원: 40명

장소: 사랑의교회 믿음관 3층

훈련비: 13만원

자세한 문의는 미전도종족 입양운동본부로

TEL. 402-4967, 4986

세계선교협의회 제3차 한인선교대회

2000년대 지구촌 복음화의 위대한 비전과 긴박성을 재 확인하고 한인교회의 선교적 대각성을 촉진하고자 한 한인선교대회를 개최한다.

기간: 1996년 7월 22일부터 26일까지

장소: 빌리 그레함 센터/

휘튼대학교(미국 시카고)

주제: “우리 세대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든 종족에게”

등록비: 20만원

항공권 및 호텔숙박비: 96만원

등록마감: 1996년 1월 31일

자세한 문의는 한국세계선교협의회

'96 한인선교대회 한국준비위원회로

TEL. 363-7091~2 FAX. 393-8462

상하이시 종교 조례법

(上海市 宗教事務系例)

1995년 11월 30일 상하이시 제10차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23차 회의 통과

중국 기독교양회(基督敎兩會) 본부가 위치해 있는 상하이에서 통과된 이 조례법은, 향후 중국 각 성의 종교사무조례의 모범이 된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따라서 중국 내 각지에서 종교 활동을 하려는 사람들, 특히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선교에 앞서 이 조례법을 숙독하고 연구하는 것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본다.

우리 주님도 강조하셨듯이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뱀같이 지혜로와야' 할 뿐 아니라, 한 걸음 더 나아가 뱀보다 지혜로와야 한다면, 이 법 내용의 문자적 의미뿐만 아니라 그 속에 담긴 의도와 울무들을 파악할 수 있는 지혜를 주님께 구해야 할 것이다.

(편집자 주)

제1장 총칙

제1조 국민의 종교의 자유를 보호하기 위해 법에 의거하여 종교 업무를 관리한다. 국가 통일을 견지하며, 민족 단결, 사회 안정을 유지하며, 사회주의 현대화 건설을 촉진시킨다. 중화인민공화국 헌법과 유관 법규, 실제 상황 등을 결합하여 본 조례를 제정한다.

제2조 국민에게는 종교신앙의 자유가 있다. 어떠한 개인과 조직도 신자와 불신자에 대해 편견을 가질 수 없다. 신자와 불신자, 다른 종교인들 간에는 반드시 서로 존중해야 한다.

제3조 본 조례가 적용되는 종교는 불교, 도교, 이슬람교, 천주교, 기독교이다.

제4조 본 조례가 칭하는 종교 업무란 종교와 국가, 사회, 군중 간에 존재하는 각종 사회 공공 사업을 지칭한다.

제5조 정상적인 종교 활동, 종교 단체와 종교 활동 장소의 합법적 권익은 법률의 보호를 받을 수 있다. 종교 활동은 반드시 헌법, 법률, 법규가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진행하며, 어떠한 조직이나 개인도 종교를 이용하여 위법 활동을 할 수 없다.

제6조 종교는 국가 행정, 사법, 학교 교육과 사회 공공 교육의 원칙을 위배할 수 없다. 국가 주권을 보호하고 독립 자주의 원칙을 보호하기 위해 종교 단체와 종교 사무는 외국 세력의 지배를 받지 아니한다.

제7조 시 인민정부 종교사무 부서(약칭 시 종교사무 부서)가 본 시의 종교사무 행정을 주관한다. 구(區), 현(縣) 인민 정부, 종교사무 부서(약칭 구, 현 종교사무 부서)는 구, 현 종교사무의 행정 주관부서로서 시(市) 종교사무 부서의 사업지도 받는다. 시, 구, 현 종교사무부는 본시와 관할 구역에서 본 조례를 관철 집행하기 위한 검사, 지도, 독촉의 책무를 철저히 이행해야 한다.

제2장 종교 단체

제9조 본 조례가 지칭하는 단체는 법에 합당하게 설립된 불교협회, 시 도교협회, 시 이슬람 협회, 시 천주교 애국회, 천주교 상하이 교구, 시 천주교 교무위원회, 시 기독교 삼자 애국운동위원회, 시 기독교 교무위원회, 그리고 기타 법에 의해 시, 구, 현에 성립된 단체를 지칭한다.

제10조 종교 단체는 반드시 국무원의 규정(사회단체 등기 관례 조례)을 따라 등록을 신청하고, 관리 기관의 비준을 거쳐 등록을 한 후에야 비로소 활동을 할 수 있다. 법인(法人) 조건의 구비에 따라 법인 자격을 취득할 수 있다.

제11조 종교 단체는 헌법, 법률, 법규를 준수하고 정부의 행정 관리를 받아야 한다. 종교 단체는 그 단체의 교의를 견지할 수 있고, 각 단체의 규례를 따라 행동할 때는 반드시 정부의 법률과 법규를 따라야 한다. 그 내용은 교직자와 신도들에 대해 애국주의, 사회주의 법제 등을 가르친다. 교직자와 신도들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고 정상적 종교 활동을 조직한다.

제12조 종교 단체는 문화 학술 연구, 교류를 할 수 있다. 인쇄, 출판, 종교서적, 종교 인쇄물, 종교 테이프 등을 규정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

제13조 시의 종교 단체는 대만, 홍콩, 마카오 등의 종교단체와 우호 교류하고 간섭치 않으며 존중하는 원칙을 고수한다.

제14조 종교 단체(종교활동 장소 포함)는 국가의 유관 규정에 의거하여 스스로의 성장을 위해 자양을 목적으로 한 기업, 사업을 신청할 수 있으며, 사회 공익 사업도 실천할 수 있다.

제3장 종교 교직원인원

제15조 본 조례가 지칭하는 교직자는 비구·비구니, 도교의 도사(道士)·도교(道姑), 이슬람교의 아랍(阿訇), 천주교의 주교·신부·수사·수녀, 기독교의 주교·목사·장로·전도사 등을 말한다.

제16조 종교 교직자의 신분은 시급(市級) 유관 종교 단체가 그 규정의 순서를 따라 결정하고, 시 종교사무국에 보고한다.

제17조 인정된 교직자는 본 규정의 책무에 따라 이행하고 법에 따라 등록된 종교 활동 장소에서 종교 활동을 한다. 교직자는 법에 의해 보호받는다.

제18조 교직자는 외지의 교역자를 초청하며 종교 활동이 있을 시에는 사전에 시와 유관한 종교 당국이 종교사무국에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제4장 종교 활동 장소

제19조 본 조례가 지칭하는 종교 활동 장소는 신자들이 본 시에서 종교 활동을 하는 불교 사원, 도교의 궁관(宮觀), 이슬람 사원, 교회 등을 말한다.

제20조 종교 활동 장소 설립에는 반드시 종교 활동 관리 장소 규례에 의해 규정된 구, 현 이상의 인민정부 종교사무부에 신청을 하고, 비준을 받은 후에는 종교 활동 장소 등기법대로 등록을 한다. 법인 조건이 구비되면 종교 활동 장소 법인이란 등기증을 발급한다.

제21조 종교 활동 장소는 반드시 관리 조직을 세우고 민주 관리를 실행하며 건전한 각 항목의 체도를 세우고, 인민정부 관계 부서의 행정관리를 받는다.

제22조 종교 활동 장소 폐지, 합병 이동, 변경 시에는 등기해야 하며 반드시 원 등기 기관에서 수속을 하며, 폐지 시에는 재산을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제23조 종교 활동 장소는 개인 또는 단체의 자발적인 설비와 부조, 헌금 기타 모금을 받을 수 있다.

제24조 종교 활동 장소 관리조직은 종교 활동 장소 내에서 종교용품과 종교 예술품, 합법적으로 출판된 종교서적과 간행물, 종교 테이프 등을 판매할 수 있다.

제25조 종교 활동 장소의 관리 조직과 정부 종교 업무 부서의 동의 없이 어떤 단위나 개인이 종교 활동 장소 범위 내에서 상업, 매점, 진열 판매, 전람 행위 등을 할 수 없다.

제26조 종교 활동 장소 내에서 영화, 텔레비전 등을 찍으려면 반드시 종교 활동 관리 조직의 동의와 시 종교 사무국의 비준을 얻어야 한다.

제27조 비 종교 단위는 사원, 궁관, 교회당 등의 종교 시설을 건립할 수 없으며, 종교상의 활동도 할 수 없다.

제28조 종교 활동 장소 내에서 점, 운세, 관상, 제비뽑기, 축귀, 병 치료 등의 행위를 할 수 없다.

제5장 종교 활동

제29조 종교 활동은 등기가 허락된 종교 활동 장소와 종교사무부에서 인가를 받은 장소에서 진행한다.

제30조 종교를 믿는 국민은 종교 활동 내에서 각 종교의 교리, 교칙 및 습관에 따라 예불, 독경, 참회, 기도, 예배, 설교, 세례, 미사, 절기 행사 등을 거행할 수 있으며 자기 집에서도 종교 활동을 할 수 있다.

제31조 신도들이 거행하는 종교 행사는 반드시 교직자와 그 규정 조건에 맞는 사람이 집회를 인도해야 한다.

제32조 어떤 개인이나 조직도 종교 활동 장소 내에서 타종교 활동을 하거나 타종교인끼리 쟁론할 수 없다. 또한 종교 활동 장소 밖에서 종교를 전할 수 없다.

제33조 종교 활동은 사회질서, 생산질서, 생활질서에 영향을 주어서는 안 되며 국민의 심신 건강에도 영향을 주어서는 안 된다.

제34조 종교를 믿는 국민은 혼인 등기 기관에서 결혼 등기를 마친 후 종교 활동 장소에서 종교 혼례 의식을 거행할 수 있다.

제6장 종교 학교

제35조 종교 학교는 반드시 시 급 정도의 종교 단체에서 열 수 있으며, 규정에 따라 정부 관계 부서에 신청, 등기, 허락, 수속을 거쳐야 한다.

제36조 종교 학교의 학생 모집은 반드시 조건대로 모집해야 하며 시험에 응시한 본인의 자원의 원칙에 근거하며, 해당 지역 종교 단체의 추천과 시험을 통해 우수자를 선발한다.

제37조 종교 학교는 반드시 내부 관리를 강화하고 정부 부서의 감독과 감사와 지도를 받는다.

제38조 종교 학교의 입학이 허락된 본 시의 학생과 외지 학생의 호적은 종교 학교 안에 둘 수 있다.

제39조 종교 학교의 경비는 주로 각 종교 단체에서 스스로 책임지고 조달한다.

제7장 종교 재산

제40조 종교 재산은 종교 단체 또는 종교 활동법에 의해 소유 또는 관리된다. 종교 재산이란, 사용하고 있는 부동산, 건축물, 각종 시설, 공예품 등 종교 조직에 소속된 물품과 종교수입, 헌금 및 기업 등 합법적 소유의 재산과 수입을 말한다.

제41조 종교 단체와 종교 활동 장소가 법에 의해 소유 또는 관리, 사용하고 있는 재산은 법에 의해 보호를 받으며, 어떤 개인이나 조직도 침해할 수 없다.

제42조 종교 부동산에 대해서는, 시급 종교 단체 또는 종교 활동 장소에서 유관 규정에 따라 시, 구, 현 부동산 유관 부서에 신청하여 등록하고, 부동산 권리 증서를 받는다. 변동 사항이 발생하면 곧바로 등록하고 시 종교사무국에 보고한다.

제43조 종교 활동 장소와 종교 건축물 중, 문물 보호 단위와 우수한 근대 건축 보호 단위, 시급 이상의 종교 중점 보호 단위에 속한 것은 도시 계획을 하면서 반드시 보호 범위와 건설 통제 지역으로 정한다. 보호 범위와 통제 지역 내의 각종 건설 활동은 반드시 유관 규정에 따라 집행해야 한다. 이상의 종교 활동 장소는 시 도시계획 부서와 시 종교사무부서의 비준을 받지 않으면 용도를 바꿀 수 없다.

제44조 시정(市政) 건설 시, 종교 활동 장소가 철거될 때는 반드시 사전에 시급 종교 단체 혹은 종교 활동 장소 관리부서와 시 종교 사무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제45조 도시 건설의 수요로 인해 종교 부동산을 옮기거나 철거할 때는 반드시 사전에 시급 종교 단체 혹은 종교 활동 장소 관리부서와 종교 사무국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이외에도 서로의 계약에 따라 합리적인 보상이 있어야 한다.

제46조 종교 단체, 종교 단체의 부동산은 유관 법규에 의거해 세를 줄 수 있다. 세를 주고 받는 사람은 법에 의거해 계약하고 준수해야 한다. 임대한 사람이 계약을 어기면 유관 규정에 따라 주인은 계약을 해약하고 사용권을 몰수할 수 있다.

제8장 대외 왕래

제47조 본 시의 종교 단체와 인사가 해외 종교 단체와 우호왕래, 문화 학술 교류를 할 때는 반드시 독립 자주, 상호 존중, 상호 불간섭, 평등 우호의 원칙을 견지해야 한다.

제48조 본 시의 종교 단체와 인사들이 종교 상의 이유로 외국의 종교 조직, 종교 인사를 초청, 방문할 때에는 유관 규정에 의해 수속해야 한다.

제49조 시의 종교 활동 장소 혹은 종교 사무 부가 인가한 장소 내에 외국인도 종교 활동에 참가할 수 있으며, 외국인의 요청에 따라 도장, 법회, 세례, 혼례, 장례식 등 종교 의식을 거행할 수 있다. 시급 종교 단체의 요청을 거쳐 외국인은 본 시의 종교 활동 장소에서 설교를 할 수 있다.

제50조 본시 종교 활동 장소 내에서 외국인이 영화를 촬영할 때에는 필요에 따라 종교 활동 장소 관리 기구의 허락을 받아야 하며 영화, 텔레비전 행정부서와 시 종교사무국의 인준을 받아야 한다.

제51조 외국인은 입국 시에 중국 세관 규정에 따라 본인이 사용할 소량의 종교 인쇄물, 종교 테이프 및 기타 종교용품을 휴대할 수 있다.

제52조 외국인이 본 시에서 거행되는 종교 활동에 참여할 때는 중국의 법률, 법규를 준수해야 한다. 외국인은 종교단체와 종교 사무기구, 종교 활동 장소와 종교 학교 등을 설립할 수 없다. 또한 중국 국민 중에서 신도를 확보하거나 양성해낼 수 없고, 교직원이나 종교 임원을 위임해서도 안 된다. 외국인은 종교 선전품, 녹음 테이프 및 인쇄물 등을 퍼뜨릴 수 없으며 기타 어떤 종교활동도 할 수 없다.

제53조 본 시의 유관 부서는 경제, 문화, 위생, 교육, 체육 및 기타 왕래 활동 중에 어떤 종교적인 조건도 받을 수 없다.

제9장 법률적 책임

제54조 본 조례(중화인민공화국 치안 관리 처벌 조례) 및 중화인민공화국 안전법, 기타 법률·법규를 위반한 사람은 유관 부서의 벌칙에 따라 처리한다. 범죄를 조성한 자는 사법 기관이 법에 따라 형사 책임을 추궁한다.

제55조 본 조례를 위반한 자는 종교사무 부서 혹은 관계 부서에서 사례의 경중(輕重)에 따라 법에 의해 판단한다. 이에 따라 권고, 제지, 경고, 활동정지, 시한부 해산, 등록 취소, 원상태로 복원, 배상 책임 등을 물을 수 있다. 불법 건축물, 불법 시설, 불법적인 종교 선전품과 소득은 몰수한다. 불법 조직에 대해서는 1천 위엔(元) 이상 5만 위엔 이하의 벌금을, 직접적인 책임자에게는 50만 위엔 이상 500만 위엔 이하의 벌금을 부가할 수 있다.

제56조 행정 부서에서 행정 처벌을 결정할 때는 반드시 행정 처벌 결정서를 구비해야 한다. 벌금을 수납할 때는 반드시 시 정부의 통일된 인쇄 영수증을 사용해야 하며 몰수된 벌금은 규정에 따라 국가 재정에 상납된다.

제57조 당사자가 구체적 행정 처리에 대해 불복 시, 행정 재심 조례 혹은 중화인민공화국 행정 소송법의 규정에 의해 재심 혹은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제58조 국가 공작 인원이 본 조례를 위반했을 시, 본 조례 유관 규정 범규에 의거하여 처벌되며 소속된 단위에서 행정 처벌을 할 수 있다.

제59조 외국인이 본 조례를 위반할 시, 종교 사무 부서와 유관 부서는 반드시 제재를 가한다. 외국인 출입국 관리 혹은 치안 관리 규정을 위반할 경우는 공안 기관의 법에 의거하여 가해진다. 범법이 인정되면 법 절차에 의해 형사 처벌을 받게 된다.

제10장 부칙

제60조 해외에 거주하는 중국 국민과 대만, 홍콩, 마카오 지역의 주민은 본 시에서 종교 활동을 행할 수 있으며 본 조례 유관 규정을 참조로 하여 집행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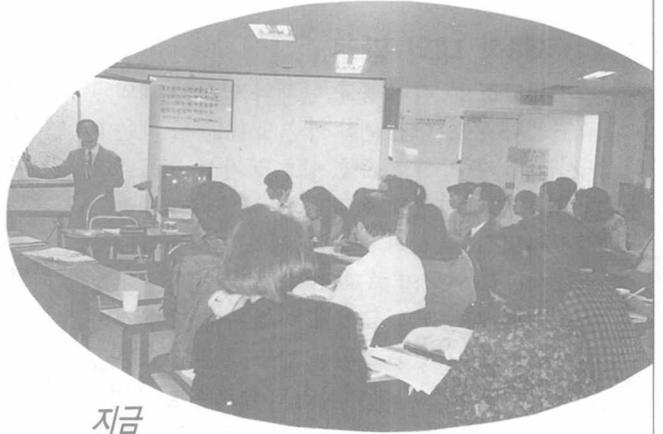
제61조 시 종교 사무국은 본 조례의 시행 세칙에 따라 시 인민 정부의 비준을 거친 후에 실시한다.

제62조 본 조례의 구체적 응용문제는 상하이 시 종교사무국이 해석의 책임을 진다.

제63조 본 조례는 199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출처: 『解放日報』 1995년 12월 22일

“중국선교 적응훈련을 아십니까?”



지금

중국선교훈련원의 성실한 준비 프로그램
중국선교 적응훈련을 만나십시오.
선교현지에 무리없이 정착하기 위해
정말 값지고 귀한 6개월을
투자하십시오.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긴
6개월 -----

급한 건 사실이지만
조급하게 서둘러서는 안됩니다.
열정은 이해하지만
무모함은 혼란을 불러올 뿐입니다.
먼길을 가려면 차근차근 준비해야 합니다.

지금
중국선교훈련원의
성실한 준비 프로그램
중국선교 적응훈련을 만나십시오.

교육목표

첫째, 중국에 대한 바른 이해로 현지 적응능력 배양
둘째, 생활중국어와 선교중국어를 자신있게 구사
셋째, 중국선교사역에 대한 비전의 구체화

교육기간

6개월(매년 3월·9월 개강, 주 5일)

교육내용

선교중국어 집중훈련, 중국문화 및 선교연구 세미나,
중국어 공동훈련, 현지 언어연수 및 답사

교육대상

중국선교 헌신자 및 관심자
훈련 후 선교지에 곧 나가려는 사람에게 우선권이 있음

참가인원 및 선발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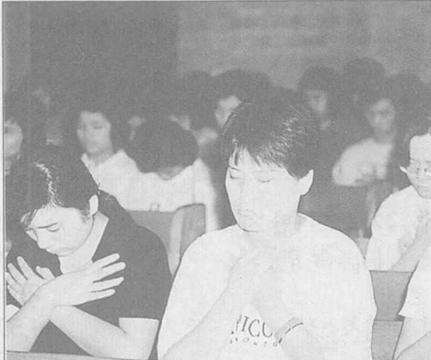
본 훈련원의 선발기준에 의함.

중국어문선교회 부설 중국선교훈련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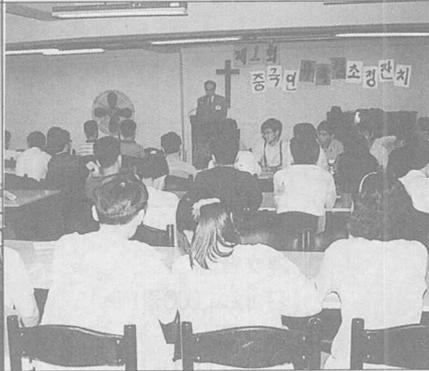
문의/중국선교훈련원 담당간사: 장희락 총무
서울특별시 서초구 방배본동 756-7 신우빌딩 402호 237-069
TEL : 02-594-8083, 535-4255
FAX : 02-599-2786

중국선교훈련원은 선교언어 훈련과 중국문화 적응훈련을 전문적으로 수행하고 있습니다.
중국선교훈련원은 초교파적·복음적 단체로 1989년 10월 30일에 창립된 중국어문선교회(대표: 박성주 장로)의 부설기관입니다.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져라”



이제는
 그물을 함께 끌어올릴 분을 찾습니다.
 저와 함께
 저 중국어반들을 끌어 올리시지 않겠습니까?



중국 현지의 중국인과 양육받아야 할 교회 지도자를,
 국내에 들어와 있는 중국인 근로자를,
 인천항의 중국선원들을,
 국내 대학 캠퍼스내의 중국인 유학생들을,
 중국인 선교에 힘쓰는 선교사들을

여러분도 도울 수 있습니다.

영혼을 사랑하며 기도로써!
 성경, 신앙서적, 지도자를 위한 신학서적 등의 문서와
 자료공급을 위해 물질로써!
이제는 선택하십시오.

문의: 중국어문선교회 선교국, 인천지부

☎ 02)873-2570, 032)872-0742

선교도서

안내

중국선교 소책자 시리즈

- | | |
|--------------------------------|--------|
| 1. 사회주의 중국에서의 교회와 국가/ 조나단 차오 著 | 1,500원 |
| 2. 중국어성경 번역소사/ 中文聖經信譯會 著 | 1,500원 |
| 3. 만남/ 中國教會中心 著 | 2,000원 |
| 4. 전도중국어/ 중국어문선교회 교육부 譯 | 1,500원 |

교재

- | | |
|---|---------|
| 1. 使徒信經, 主禱文 외
(Tape:1,000원) | 2,000원 |
| 2. 經文背誦
(Tape:1,000원) | 1,500원 |
| 3. 神愛世人
(Tape:1,000원) | 2,000원 |
| 4. 我的第一本聖經
(Tape:1,000원) | 2,500원 |
| 5. 사복음서(現代中文譯本) 낭독 Tape:12개 | 12,000원 |
| 6. 信仰讀本
(Tape 2개:2,000원) | 7,000원 |
| * 7. 中國語신약성경(和合本/한어병음 표기)
(Tape 25개:20,000원) | 10,000원 |
| 8. 中·韓 주제별 성경암송 카드(60구절:네비게이트 출판사) | 700원 |

* 위의 7번 교재는 품질관계로 당분간 구입할 수 없습니다

위에 소개되지 않은 다른 교재들도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구입방법: 중국어문선교회 사무실에 직접 오셔서 구입할 수 있습니다.

지방인 경우 우편발송이 가능하오니 전화 또는 우편으로 신청하여 주십시오.
(우편으로 신청하실 때는 전화번호를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 우편요금은 신청인이 부담하게 됩니다)

담당 : 김바울 간사 (전화: 592-0132)

중국을 주께로

중국을 사랑하는 이들의 동반자

1996년 3·4월호(봉권38호)

발행처/ 시님(중국어문선교회 출판부)

대표/ 박성주

발행·편집인/ 이동화

편집장/ 석은혜

편집기자/ 한영혜·차이나·권수영

이민선·김현주·김은희

편집디자인/ 정광숙

광고·홍보/ 김정하이준석·김도연

중국을 주께로

등록일자/ 1994년 2월 14일

등록번호/ 바 - 2078

발행일자/ 1996년 2월 20일

인쇄처/ 신구인쇄

인쇄인/ 김기환

총판/ 크리스찬 매거진

전화: 637-4163

값/ 3,500원

중국어문선교회

본부, 출판부

서울시 서초구 방배본동 756-7

신우빌딩 301호

전화: 533-5497, 592-0132

팩스: 599-2786

중국선교훈련원, 선교국

서울시 서초구 방배본동 756-7

신우빌딩 402호

전화: 594-8038, 535-4255

팩스: 599-2786

인천지부

인천시 남구 용현4동 89 9/1

성광교회 세계선교센터 309호

전화: 032)872-0742

독자투고 및 정보제공

<중국을 주께로>는 중국 복음화를 위해 기도하며 만드는 잡지입니다. 본지의 발전과 향상을 위한 독자들의 정성어린 의견과 정보에 귀 기울이고 있습니다. 본지를 읽은 소감 및 의견을 보내주시십시오

천리안 ID / Sinim

Tel. 533-5497, 592-0132

Fax. 599-2786



<중국을 주께로>의 소리

지금 창밖엔 아주 큰 눈송이가 펄펄 쏟아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중국을 주께로 3/4 월호를 받아보실 쯤에는 어김없이 꽃소식이 들리겠지요.

그렇습니다. 지금 아무리 무섭게 추울지라도 때가 되면 봄은 오게 마련입니다. 그래서 어둡고 차가웠던 마음마다 꽃의 향기와 따사로운 희망으로 가득찰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중국은 마치 봄을 기다리는, 겨울의 막바지에 접어든 듯합니다. 간혹 따뜻한 날이기도 하다가 갑자기 영하의 기온으로 뚝 떨어지기도 합니다. 최근 중국 정부는 외국인의 종교활동에 대해 규제를 강화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연경에서 또 한 분의 선교사님이 목숨을 잃으셨다는 기습 아픈 소식도 있었습니다.

이미 많은 중국인들의 영혼 속에 복음의 씨앗이 났지만, 아직도 11억이 넘는 이들이 자신을 향한 그리스도의 가슴저린 사랑 이야기를 들어본 적조차 없습니다. 얼마 전 한국을 방문한 북경 승문문교회 여성 찬양단의 한 자매를 만났습니다. 그녀는 하나님께서 한국만 편애하시는 것 같다고 볼레 소리로 말했습니다. “우리 나라에는 믿지 않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한국에는 이렇게 많은데...”

우리 역시 ‘중국의 봄’을 꿈꾸지만, 정말로 간절히 그 날이 오기를 기다리는 이들은 바로 중국 교회의 형제 자매들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 중에는 지금도 남이 들을까 숨죽이고 기도하고 찬송하며 평생의 소원인 성경책 한 권을 기다리는 이들이 있고, 비교적 자유로운 환경에서 주님을 경배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어떤 상황이든 이들 모두 중국에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봄이 오기만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번호는 ‘확산일로, 중국의 종교열기’라는 특집으로 올립니다. 현재 중국에는 기독교뿐만 아니라 불교, 회교, 도교, 미신 등 모든 종교가 활기를 되찾기 시작했습니다. 이번 특집에는 선교 전문가의 글은 물론이요 일반 시사잡지, 중국사회과학원의 소논문 등 보다 다양한 시각이 담긴 글을 통해 독자 여러분의 중국 종교 이해를 돕고자 했습니다.

아름다운 봄날,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 위에 주님의 축복이 넘치기를 기도드립니다. 아울러 모든 중국인들의 심령 가운데 예수의 전하신 생명의 씨앗이 파릇파릇 돋아나는 봄이 오기를 기도드립니다.

<중국을 주께로>에 게재된 모든 기사와 사진, 그림은 중국어문선교회 출판부의 허가를 받고 사용할 수 있습니다. 허가 없이는 기사와 사진의 무단복제를 금합니다.

본지에 실린 글의 내용은 필자 개인의 견해를 나타내는 것으로, 중국어문선교회의 공식적인 입장을 대변하는 것이 아닐 수 있습니다. 본지는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의 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중국을 주께로는 중국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동반잡지입니다.

중국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을 소개하며 특히 중국선교에 초점을 맞추어 중국의 교회소식, 선교상황에 관한 정보 등을 제공하여 국내외의 교회와 관심자들에게 중국을 알려주는 중국선교 전문정보지입니다.

우 편 엽 서

보내는 사람

전화

〒



받는 사람

중국을 주께로 편집부 앞

서울 서초구 방배본동756-7
(신우빌딩 301호)

137-069

우 편 엽 서

보내는 사람

전화

〒



받는 사람

중국을 주께로 편집부 앞

서울 서초구 방배본동756-7
(신우빌딩 301호)

137-069

「중국을 주제로」 정기구독 안내

정기구독 신청요령

아래의 정기구독 신청엽서에 기재사항을 모두 적으신 후 우체통에 넣어주시거나
직접 전화(02-533-5497, 02-592-0132, 담당자 정광숙 간사)를 주시면됩니다.

구독료 납부방법

정기구독료를 시중은행 99번 창구에 가서서 지로용지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지로번호: 7602362

중국을 주제로 독자카드(1996년 3,4월호)

귀하의 의견은 「중국을 주제로」의 발전에 더없이 소중한입니다.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 이번 호에서 가장 유익했던(도움이 되는) 기사는 무엇이었습니까?

2. 「중국을 주제로」에 보완될 부분이나 수정되어야 할 부분이 있다면?

3. 앞으로 「중국을 주제로」를 통해서 다루어 주었으면 하는 기사나 주제가 있다면?

4. 그밖에 편집자에게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면 적어주십시오.

정기구독 신청서(전화신청 및 문의: 정광숙 간사 Tel.02-533-5497, 02-592-0132)

1. 해당되는 곳에 V 표를 하십시오.

신규구독 재구독 주소변경

*구독기간(신규 및 재구독): 19 년 월부터 19 년 월까지

1년 21,000(6권) 2년 42,000(12권) 3년 63,000(18권)

2. 신청인 이름 (남, 여)

생년월일

배달주소(우 -)

전화: (집) (직장) 팩스:

교회명 직분

기타 요망사항

3. 주소변경; 성명 전화

변경주소(우 -)

* 주소는 통반까지 정확히, 그리고 우편번호도 꼭 기입해 주십시오.

중국을 주제로

중국

최대의 미전도 지역입니다.

세계 인구의 25%를 차지하는 중국!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 중 13억 이상이 아직도 복음을 듣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숫자는 전세계에서 복음을 전혀 듣지 못한 25억의 인구 중 절반에 해당합니다.



면적/ 9,561,000km²

인구/ 14억, 대부분 중부지역과 동부 해안지역에 거주, 인구증가율 1.1%

민족/ 한족(93%), 55개 소수민족(7%)

언어/ 표준중국어 84,800만, 광둥어 6,200만, 호남어 6,100만, 객가어 4,700만, 민남어 3,800만

종교/ 무신론자 12% 무종교 50% 중국 전통종교(불교, 유교, 도교) 28% 정령숭배 2% 회교도 3.4% 기독교인 5% 미만

여러분의 기도와 관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중국어문선교회

서울 서초구 방배본동 756-7(신우빌딩 301호)

전화 / 592-0132, 533-5497

팩스/599-2786



**극동방송
아세아방송**

아직도 선교사 파송과 활동이
자유롭지 못한 북방지역에

극동방송과 아세아방송은 전파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 일에 기도와 헌금으로 동역할
전파선교사가 되어 주십시오.

**방 송 의
메 아 리**

**별목장에서
귀순한
북한주민**

"시베리아 별목장에서 남몰래 극동방송을 들으면서 처음으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자유에 대하여 많은 생각을 한 끝에 목숨을 걸고 남조선으로 귀순하게 되었습니다."

**러시아의
시골주부**

"주부인 저는 사는 것이 고달퍼서 자살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우연히 귀 방송을 듣고 예수님을 믿게 됐지요. 지금은 마을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기쁨으로 살고 있습니다."

**중국교회
지도자**

"지금 중국에 천소교회가 약 3만 군데 있는데, 그들은 극동방송과 아세아방송을 들으며 믿음 생활을 한답니다. 어느 한 집에 라디오가 있으면 밤중에, 시간에 맞춰, 그 집에 모여 설교를 듣습니다."

**북한지역
주민**

"하루는 새벽에 방송을 들으니가 합창(찬송)이 끝난 후에 어느 사람이 연설(설교)을 하는데 참 좋더군요. 그후 하루라도 그 방송을 듣지 않고 출장을 간다든지 하면 불안했습니다. 이제 저는 공산주의자도 민족주의자도 아닙니다. 저는 이제부터 예수주의자입니다."

**전파선교사
신.청.방.법**

① 저희 방송사에 전화(또는 방문)해 주시면 됩니다.

● 전용 전화 번호 / (서울 02) 322-0·6·9·1
영 육 구 원
(서울 320-0283, 0290)

② 어느 은행이든 99번 창구에 가서 지로 용지를 요청,
아래 번호를 적어 작성 금액을 송금해 주시면 됩니다.

전용 지로구좌번호

1 · 1 · 2 · 0 · 6 · 9 · 1
일 일 이 - 영 육 구 원



기도와 헌금으로 북방선교 사역에 동역할
전파선교사 100,000명을 주옵소서!